

速記界

第 34 號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

■ 권두언 신속·정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때입니다.

■ 신년사 보다 진취적이고 보다 헌신적인 사고방식으로 발상의 전환을...

■ 인터뷰/권용태 부회장

한국속기50년사는 우리나라 의회정치사와 그 궤를 같이 합니다.

■ 초대석/신세화 부회장

협회 발전기금 구성에 많은 참여 기대합니다.

■ 논단 지방의회 속기사제도와 과제

국회를 떠나면서

속기예찬

인생은 60부터하는데...

■ 자료파일 미국에도 사관있다.

■ Intersteno 소식 '97 INTERSTENO 중앙위원회 참가보고

하고싶은말·못다한 말들

빠른손워드 교육과 못다한 이야기

■ 세미나

제3회 속기학술세미나 결과보고

제4회 속기학술세미나/ 전국지방속기사협의회

제4회 속기학술세미나를 마치고

■ 시 속기, 속기인이여

밖에서 드리는 제언

네 바퀴의 조화

- 연수기 호주의회 연수보고
- 비망록 초창기의 의회속기 비망록
- 그시절 그얘기 남북대화 4반세기를 돌아보며
- 교차로 경기지역 속기사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 회원동산

이제는 조금 더...

워싱턴 D.C의 잠못 이루는 밤

나는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될꺼야

신혼여행에서

종이거울(사진)과의 만남

알아드립니다.

한글 바로 쓰기

■소식

회원동정

협회동정

협회임원

편집후기

신속·정확성이 그 어느때보다 요구되는 때입니다



회장 지대섭

회원동지 여러분!

제가 처음 협회 회장직을 맡아 여러분 앞에서 인사말을 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속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얼떨결에 시작했습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챙겨가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한 식구라는 애정과 우리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됩니다.

지난 1년 중에서도 특히 전국에서 모인 속기동지들과 하나가 되었던 무주 구천동에서의 1박2일의 세미나는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그때 언급이 되어 우리의 현안문제 중의 하나가 된 지방의회 속기사의 일반직화를 위해서 저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97년에 이어 '98년도에 두 번째로 속기협회 국고보조금 1억원을 확보하는 데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한 점 기쁘게 생각합니다.

회원동지 여러분!

본인은 지난 9월 벨기에 리에즈에서 열린 제41차 인터스테노(Intersteno: 국제속기타자연맹) 중앙위원회에 참석했었습니다. 전세계 속기인들이 국경을 초월하여 친목을 다지며 속기에 관계된 정보나 자료의 교환을 통해 속기

기술향상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세계기록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그 자리에 저는 "우리 속기인들이 많이 참석하여 한국문화를 널리 알리는 민간외교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98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제42차 인터스테노 총회에는 보다 많은 회원들의 참가를 기대해 봅니다.

특히 '98년은 우리 의정사와 그 맥을 같이 해온 한국 속기계가 50주년이 되는 해로 더욱 뜻이 깊다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각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협회는 더욱 더 활성화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힘을 합쳐 봅시다.

회원동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보화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빨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로 그 사람의 능력이 평가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회의록 또한 단순한 역사의 기록이라는 차원을 넘어 이제는 즉시 검색 가능한 정보로서의 기능이 강조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국회의회의록 전문이 국회LAN망을 통해 국회내에 서비스가 구축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까지 서비스를 확산시킬 예정이라고 하니 신속·정확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는 것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래를 대비해 가는 노력은 의회민주주의에도 큰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사명감과 보람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지만 좋은 경험들이었고, 또 필요한 시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경험과 시련을 밑거름 삼아 새해에는 한층 더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보람찬 한 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보다 진취적이고 보다 헌신적인 사고방식으로 발상의 전환을



이사장 성천영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지난 연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사장에 취임하였지만 새로 회장에 취임한 지대섭 회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권용태, 신세화양 부회장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성원에 큰 힘을 얻게 되자 "그동안 흐트러졌던 우리 속기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고 뭉치는 데 노력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협회는 의욕은 있었지만 부족한 재원으로 인하여 활동에 많은 제약을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1997년은 제1회 국고보조금의 지원으로 보다 폭넓고 다양한 협회 활동을 모색할 수 있게 되어 저는 우선 "우리 속기계가 그동안 예산만 배정해 놓고 실천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복원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음과 같은 일들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두 차례에 걸친 속기학술세미나를 개최한 일입니다.

특히 지난 6월 전북 무주에서 열린 제3회 속기학술세미나는 우리 속기인들의 단합된 모습을 확인한 '화합의 자리'였다고 자부할 수 있을 만큼 전국에 산재해 있는 300여명의 속기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의 현실을 새롭게 투영해 본 인상깊은 대회였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벨기에 리에즈에서 열린 인터스테노 중앙집행위원회에 지대섭 회장님을 비롯한 협회 임원이 참가하였고, 또한 11월에 열린 제4회 속기학술세미나는 '지방화·정보화 시대속기사의 사명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려 세미나의 방향을 새롭게 모색해본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밖에 (대한속기협회소식)지의 창간, (속기계)의 증편발행, 2년 사업인 한국속기50년사의 편찬작업 기계속기연구, 제5회 전국속기경기대회 개최 등 협회가 역점사업으로 계획했던 일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저는 1997년은 실로 속기계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한 해였다고 생각하며 지난 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우리 속기계가 추진해야 할 방향과 개선점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협회의 새로운 정착을 위해 미진한 힘을 다할까 합니다.

첫째, 국고 예산사업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우리 협회는 문화체육부가 인가한 문화단체로서 그에 걸맞는 사업을 개발해야 할 절실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협회 임원진은 배전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요청된다 할 것입니다.

둘째, 지방의회속기사의 지위향상과 협회 사무실의 마련입니다.

그동안 간단없이 지방의회속기사의 지위문제에 대하여 회장님 이하 협회의 임원단에서는 힘써 왔지만 아직 기대했던 소기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처럼 바라고 있는 지위향상문제를 우리의 권리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먼저 과연 우리에게 상응하는 피나는 노력을 해 보았는지, 또 그만큼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성해 보아야 할 줄 압니다.

또한 이제 우리 협회가 견실한 위상 갖추기 위해서는 전임요원과 협회 사무실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회장단과 임원진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셋째, 정통 속기협회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일입니다.

작년 국가기술자격법 등의 개정에 따라 본 협회는 자격검정업무를 이관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협회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자격검정에 따른 일체의 업무를 이관받기 위한 실무작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에 부수되는 문제점들도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격검정업무는 본래 협회의 고유업무였던 만큼 이 업무의 이관은 명실공히 한국속기계를 총결집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정통 속기협회로서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취임 1년을 보내면서 평소제가 생각해 왔던 점을 적어 보았습니다. 다마는 기본적으로 협회의 환경이 새롭게 바뀌고 있고 협회의 기본사업에 참여하는 회원의 범위도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이제는 보다 진취적인 사고와 봉사정신이 없이는 협회를 이끌어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원여러분!

지금 우리는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맞이하는 정보화 지방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모든 부문에서 급속히변화·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사회전반에서는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실천과 평가가 잇따르고 있으며 경제적 상황은 냉혹한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속기인 모두는 보다 진취적이고 보다 헌신적인 사고방식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여 새마음, 새 정신으로 새로운 속기인상과 협회상을 정립해 나가는 데 동참해줄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국회 사무처 속기 1과장)

한국속기50년사는 우리나라 의회정치사와 그 궤를 같이 합니다

인터뷰어 : 장 미 경(홍보부장)

협회는 의회정치사와 그 궤를 함께 하는 우리 나라 속기계의 발전상을 집대성하게 될 (한국속기 50년사) 발간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본지는 '98년 5월경에 발간예정인 이 사업의 추진배경과 내용 및 진행상황 등을 편찬위원장직을 맡고있는 권용태부회장으로부터 들어 보았다.

- 편집자 주 -

안녕하십니까? 늘 바쁘신데도 오늘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30회 협회 정년총회에서 새로운 회장단과 임원진이 선출되어 희망찬 출발을 하였을 때 협회의 주요 현안사업으로 지부의 설립과 지방의회 속기직 공무원의 일반직화 문제, 협회발전기금 확보문제 등과 함께 한국속기50년사를 발간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국속기50년사) 발간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이며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우선 이 사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먼저 이렇게 지면을 통해서 회원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새해에도 회원 여러분들 각자보다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속기50년사) 발간사업은 우리나라 의회정치사와 그 궤를 함께 하는 한국 속기계의 발자취와 속기문화 발전 50년사에 대한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한국속기50년사를 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50년이라는 숫자는 제헌국회를 기준으로 한, 대략 반세기에 걸친 세월을 의미하는데 사업은 꼭 제헌국회를 시점으로 하지는 않았고 그 이전 속기가 이 땅에 도입된 부분부터 다루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에 처음 속기가 도입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겠군요. 이전에도 (속기개관)이라는 것과 (속기총람)이란 이을 발간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사업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1969년에 (속기개관)을, 1972년에(속기총람)을 발간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 책은 속기술의 기원부터 시작하여 우리 나라 속기계의 성장과 발전, 속기의 실무적 고찰과 학문적 고찰을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사였습니다. 이에 비하여 이번 사업은 한국속기술의 사적 고찰부터 시작하여 속기개관, 속기법식 등 속기술의 제반이론

과 함께 우리 의정사와 그 맥락을 같이 해온 한국속기의 지난 날을 살펴보고 오늘날 한국속기의 현주소는 어디이며 앞으로 우리 속기계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를 알아 보고자하는 데 그 의의를두었습니다. 마침 내년은 제헌국회가 개원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로 국회에서는 내년 5월경에 (국회50년사)를 발간할 예정인데 우리도 그 때쯤 해서 시기를 맞추어 발간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의정사는 속기술에 의한 회의록으로서 기록·보존되어 왔습니다. 이 회의록은 우리 의회정치사의 산 증거요, 증인이며 또한 국회의 발자취로서 후손에 길이 보존되어야 할 더없이 중요한 사료라는 것이 이제 누구나 다 인정할 것입니다.

속기인이거나 협회회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그렇지요 더구나 이제 속기는 회의록뿐만 아니라 법률 사회·문화 교육 등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긴요하게 활용되고 있어 일반인들의 인식도 많이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누가, 어느 정도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본 사업은 우리 협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고 있지만 사실 속기인이면 모두 다 참여할 수 있고, 또 참여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편찬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편찬위원장은 제가 맡고 있으며, 위원회 위원으로는 신세화 부회장, 전해성 자문위원, 송기철 자문위원, 김순철 회원, 김기영이사, 황인하 감사, 유순태 회원과 박정호·간찬기 간사

등 10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분야별 집필자로는 우선 1차로 간찬기·김선옥
김점동·김치원·손재옥·염덕훈 유순태·장미경·한동춘·홍기표(가나다
순)등 1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외 속기인이거나 협회 회원이면 누구나
다 참가자격이 있으니까 집필을 원하시는 분이나 도움을 주실 분이면 언제
든 환영합니다.

- (한국속기50년사)의 전반적인 내용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 5월 1일 '한국속기50년사 편찬위원회의 임원진'이 구성됨에 따라 편
찬위원회에서 (한국속기50년사)의 목차를 구성하였고, 분야별 집필자를 선
정하였습니다. (한국속기50년사)의 내용구성은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
다만 대략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잡았습니다.

우선 제1편, 총설부분에서는 '속기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속기의 정의
부터 시작하여 우리 속기의 문화, 속기가 왜 필요한지 속기의 필요성과 활
용도, 속기가 우리 문화에 끼친 공적 등을 다룰 것이고, 제2편에서는 한국
속기의 발자취라고 해서 한국속기의 태동, 각 속기법식의 창안과정, 속기가
실용화되는 과정과 제헌국회를 등장으로 한 속기계의 약진, 6·25 당시 속
기계의 상황 등 오늘에 이르기까지 의정사와 함께 한 속기계를 돌아보고 제
3편에서는 대한속기협회가 1955년 창립된 이래 행해졌던 주요행사를 다룰
것입니다.

제4편에서는 '한국속기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한국속기의 당면과
제와 침체기에 접어든 수필속기, 또
그 보완으로 등장한 기계속기의 전망등 향후 속기계의 비전에 대해서 생각
해 보고, 제5편에서는 '외국속기계의 어제와 오늘'이라고 해서 영국 미f·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속기계 현황도 아울러 알아볼 예정입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방대한 사업이군요, 지금 사업의 진행은 어느 정도입니
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지난 5월과 6월에 제1·2차 집필자 회의를 열어 자료수집·정리 및 원고 작
성지침을 정하고 10명의 집필진을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8월 25일에는 정원
도 고문택을 방문하여 편찬사업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당시 현장에서 일어났
던 생생한 속기관련 증언을 청취하는 등 각 분야별로 집필자들이 열심히 원
고작성 중에 있으나 아시다시피 정기국회·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인하여 진
척률은 아직 저조한 편입니다. 12월 10일경에 원고마감을 하고 곧 이어 편
집작업에 들어가서 교열·감수작업을 마친 다음 늦어도 내년 5월말까지 발

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속기계 발전을 위해서 참으로 뜻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회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사실 속기인이면 누구나 다 참여해야 하는 속기인 모두의 사업입니다. 지난해 우리 협회가 새롭게 출발하면서 침체된 속기계를 좀더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마련한 주요 현안사업 중의 하나로 추진하게 된 이 사업은 회원여러분들의 협조가 없으면 추진되기 어렵습니다. 우리 나라 속기 초창기에 활동했던 원로나 고문들께서는 자신이 실무하면서 당시에 경험했던 일이나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비화라 할까 일화, 해프닝 같은 재미있는 얘기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가 될만한 자료가 있으시면 알려주시고 젊은 회원들은 그 나름대로 신선한 아이디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환영하니까 적극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권부회장님을 이렇게 뵈고 나니까 듣던 대로 협회를 위해서라면 항상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으시는 '속기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내년 초에 우리 협회의 사무실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회원들은 매우 고무되어 있습니다.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추진력과 박력이 넘치시는 그 모습 늘 간직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속기 50년사 발간 자료수집

한국속기발전사와 관련 있는 자료나 사진을 보유하고 계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용후 원본대로 반환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150-70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사무처 속기1과
박정호, 간찬기

Tel : 788-2372, 2472

Fax : 788-3550

협회 발전기금 조성에 많은 참여 기대합니다

글 : 김 영 중(재정부장)

대한속기협회가 사단법인으로 정식 출범한 지 수십년(?)이 지나도록 열악한 재정구조를 탈피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 지방자치 제도의 부활에 따라 회원 수가 급격히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협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자연스럽게 그때 협회를 맡고 있던 회장단을 비롯해 이사들의 공통적인 관심은 재정의 확보 문제였다. 아마 일반 회원들 중에는 흥부에게 박씨를 안겨다 준 제비가 우리에게도 와 주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고민 끝에 생각해 낸 것이 바로 발전기금이었다."고 회고하는 신세화 부회장으로부터 협회 발전기금의 조성 배경과 경위를 들어본다.

"이름이야 어떻든지간에 다달이 회원들이 내는 연회비나 회원가입비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협회가 제대로 사업을 수행할 수도 없거니와 협회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어떤 사업도 구상할 수가 없다는 판단하에서 발전기금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일정액, 그러니까 3억까지는 지출없이 적립만 해서 그 기금을 기반으로 협회가 일을 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뜻있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이 발전기금을 만들게 되었고, 또 술선수범해서 발전기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협회가 21세기를 향한 중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협회 발전기금의 조성 배경을 술회하는 신부회장은 이어 발전기금을 납부한 회원은 평생회원으로 등록됨과 동시에 이후 회비를 면제해 주기로 하여

여러 회원들이 이런 취지를 심분 이해하고 동참해준 데 대해 이 기회를 빌어 "참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모이기 시작한 발전기금은 현재 일천여만원에 달했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1997년에는 국고보조금을 협회 사업예산으로 지원받는 낭보가 있었다.

물론 정부의 예산지원이 협회에 활력을 불어 넣은 점도 있으나 너무 이에 의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노파심인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처음 시작할 때의 열의가 조금씩 사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든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기금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회원들 개개인의 참여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새삼 강조하면서 여러 회원들의 동참을 간곡히 당부한다.

그래야 "협회가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또 훌륭히 시행함으로써 그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며, 그러한 사업의 결과가 회원들에게 유·무형의 열매로 골고루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평소의 생각을 털어놓은 다음 "처음 발전기금의 출발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애정을 가지고 꼭 지켜본 한 사람으로서 이 발전기금의 적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협회의 발전에 밑거름으로 쓰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면서 "앞으로 그 날이 꼭 오게 되리라 믿는다"고 힘주어 말하는 신세화 부회장.

"우리 회원들의 적극적인 주인의식이 없이는 그 목표달성이 요원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 동안 발전기금을 납부해 준 회원들께 거듭 고마운 뜻을 표한다.

그리고 그는 또 이번 기회에 발전기금의 적립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김과 동시에 회원 각자가 내는 발전기금은 목표액 달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회원들의 애정 어린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지방의회 속기사제도와 과제

윤 태 원

1991년 4월 15일 전국 238개 시·군·구의회가 일제히 개원되면서 지방의회 회의록을 담당할 속기사가 대거 지방의회에 근무하게 되었다.

현재 지방의 의회는 크게 나누어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로 구분된다. 이 모두 회의체로 구성되어 있어 속기사가 회의내용을 속기하여 회의록을 발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방법원 속기사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준비도 없이 속기업무를 담당하게 된 지방의 속기사들은 지방의회 구성시부터 업무에 비해 책임과 권한이 많이 축소된 속기사제도에 의해 회의록 발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행 속기사 제도와 개선할 방향, 그리고 향후 과제들을 짚어가며 지방의회 속기사 현황에 대해 살펴보자.

1. 지방의회 속기사제도와 문제점

1) 특채에 따른 자질부족

개원 당시 속기사 부족현상과 지방의회의 급속한 출발로 인해 3급 이상 속기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행정업무 수행능력을 검증하지도 않은 채 1급과 2급은 9등급, 3급은 10등급에 특별임용하였다. 대한속기협회에서 정한 속기요금표에도 1급 속기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급 이상의 속기사가야 실무능력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속기사 부족으로 인해 3급 자격증을 소지하여도 쉽게 지방의회에 근무하게 되고, 1급 속기사를 또한 실무경험이 전혀 없는 속기사들이 대부분이어서 속기사 자질론이 계속 대두되었다. 국회처럼 1차 속기능력, 2차 소양과목으로 공개경쟁 제도를 도입했다라면 그러한 자질론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대한속기협회를 중심으로 한 세미나와 내부 교육, 6년여의 현장경험을 토대로 말끔히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겠

다.

2) 기능직 직제

내무부에서 발행한 (1992년도 지방의회백서)에 따르면 '91년 1월 현재 전국속기학원은 69개소이고 수강 중인 자가 2,539명, 자격증 소지자가 1,771명중 서울이 920명, 지방이 251명이었다. 서울은 속기사 확보에 어려움이 없었으나 지방에는 600여명의 소요인력이 필요한데 251명이어서 속기사 대처방안으로 DS(Dictation System, 자료녹취시스템)가 도입되게 되었다. 이미 내무부에서는 회의록의 중요성을 떠나 단순히 기록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 속기사가 속기를 한 후 번문해서 원고가 나오는 시간과 DS방식으로 녹음을 한 후 타자수가 원고를 만드는 시간, 그리고 인건비 등을 비교하여 최종안을 확정, 각 자치단체에 지침을 통해 속기사 채용이 가능한 지역은 속기사를 채용하도록 하고 속기사 채용이 어려운 의회에서는 DS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되 군과 자치군 의회에서는 속기와 DS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고, 시·도의회에서는 속기방식에 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개원 당시 DS방식을 채택한 의회는 82개, DS를 병행한 의회는 156개 시·군·구의회였다.

결국 이 방안이 지방의회 속기사들을 기능직내에 묶게 된 배경이 되었다. 1급과 2급은 9등급, 3급은 10등급으로 채용되었는데 이 또한 1급을 소지하고도 10등급에 임용된 속기사가 많았다.

현재 인사규칙이 개정되어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7등급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1급 소지자도 10등급으로 임용되고 있다.

다만, 서울시를 비롯한 서울지역 구의회에만 별정직으로 전환되어 7급 상당의 대우를 받고 있고, 경기도의회와 경상북도의회, 포항시의회에서만 7등급의 속기사가 근무하고 있다.

지방의회백서에 따르면 회의록의 중요성을 '지방의회 회의 운영의 필수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사무보조원이라는 기능직으로 채용한 것은 지방의회 발전에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제반 사항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속기록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하며 직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직제 담당부서에서는 속기사의 중요성보다는 한 사람의 공무원으로서 유사 직렬의 전체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우선시하여 직제 개선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96년 9월 14일 지방의회 속기사들을 기능직내에 속기원으로 임용하려고 하는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는데 속기와 관련된 단체 및 개인이 반대의사를 제출하여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문제는 지방의회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속기계의 존속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3) 정원부족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속기사의 정원은 지방의회의원의 숫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지방의회 개원 당시 의회 사무직원의 정원은 '91년 3월 8일자로 시행하고, 사무기구는 의회구성일로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그리고 회원정수별로 사무직원 정원을 책정하였는데 기초의회에서는 의회의원이 30인 이상인 경우 16인, 21인에서 30인은 13인, 20인 이하의 의회는 10인으로 하였다. 그리고 정원책정 기준을 명시하였는데 속기사는 2~3명이 책정되었다. 그러나 속기사의 부족 현상으로 인해 속기사 정원이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속기사를 더 채용하고 싶어도 정원이 없어 채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첫째, 속기사 수의 부족과 둘째는 속기직렬이 없고 일반 타자와 함께 기능직군내 필기직류로써 속기와 타자가 함께 존재하고 있어 속기사 정원을 타자수가 차지해 버렸기 때문이다.

속기사의 증원 필요성은 꾸준히 전개되어 왔는데 개원 당시 속기사 비채용의회가 82개 의회였으나 '97년 10월말 현재 43개 의회로 줄었다.

'97년 10월말 현재 지방의회 숫자는 기초 234개와 광역 16개이고, 속기사 채용의회는 207개 의회이며, 속기사수는 640명이다. 평균 2.6명으로서 전체의회가 평균 수치로 따진다면 112명의 속기사가 더 필요하다. 그러나 이 수치는 단순히 현 정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회의일수가 늘어나고 지방의회가 발전하며, 국민들의 자치의식이 높아감에 따라 회의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어 속기사의 정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 이르렀다. 각 지방의회에서 속기사의 필요성이 갈수록 증대되어 계속적인 속기사 증원 요청을 하였으나 인구증대로 인한 의원의 수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상임위원회 수가 늘어난 의회에는 내무부에는 늘어난 상임위원회 수만큼 속기사 정원을 승인해 주고 있다.

지방의회의 속기업무는 국회와는 달리 속기와 번문·교정·편집·인

쇄·배부 심지어 의사진행 업무까지 속기사가 담당하여야 하므로 비록 회기는 광역 120일, 기초 80일이라고는 하나업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속기사의 증원 또한 불가피한 실정이다.

4) 지방자치법의 모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법시행령·회의규칙 등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속기업무도 이 법령에 의해 통제를 받고 있다.

회의록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는 "지방의회는 회의내용을 속기 또는 녹음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서 '속기 또는 녹음'에서의 '녹음'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 녹음은 전기 장치가 수반된 기계의 조작이므로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회의내용을 녹음한 후 타자수가 DS를 사용하여 회의록을 만듦으로 해서 회의록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는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집행부에 회의록을 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행 회의록 업무의 분량과 속기사 정원을 비교해 볼 때 일부 기초의회를 제외하고는 30일 이내에 회의록을 발간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조항을 개정하든가, 아니면 속기사 정원을 늘리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회의수당은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각 지방의회의 의원들은 이 회의수당을 지급받고자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휴회없이 계속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속기사의 업무가 대폭 증가되었다. 또한 회의수당을 둘러싼 잡음을 없애고자 회의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속기록에 기재된 의원명단에 의해서만 하도록 내무부에서 지침으로 시달하여 속기록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속기사의 증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 속기사가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으나 기능직으로 임용되어 있어 회의록의 사실여부에 대한 믿음이 실추되고 있다.

이 조항은 속기업무뿐만 아니라 의사업무 전반에 대해 논란이 많으므로 회의수당 지급에 관한 조항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지방의회 속기사들의 노력

속기사 제도의 개선은 지방의회 구성 당시부터 제기되어 의회의원을 통해 관계부서에 끊임없이 건의되어 왔다. 그러나 '97년말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몇 가지로 압축된다. 속기사들의 자질이 부족하고, 컴퓨터의 발달로 인한 속기의 쇠퇴, 업무의 단순성 등이 거론되었다.



지방의회 속기계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히 고려하여 각 지역별 속기사들이 자체 모임을 결성하여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대한속기협회가 주축이 되어 매년 속기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

고, '97년 8월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에서는 지방의회 속기사 103명이 1주일간 교육을 받았고, '97년 10월에는 국회 의정연수원에서 3일 동안 40여명의 지방의회 속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있었다. 또한 지역별로 회의록 전산화와 관련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회의록 업무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이 전개되었다. 회의록 발간의 시간 단축을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의록을 만들고, 속기사가 더 많은 일을 부담하여 회의록 인쇄비를 절감하는 등 많은 노력들을 해 왔다.

이러한 지역적 노력들이 '97년 5월 하나로 결집되어 '전국지방의회속기사 협의회'가 구성되어 체계적으로 지방속기계를 이끌어 나가게 되었다. 전국지방의회속기사협의회는 대한속기협회를 중심으로 하여 속기문화의 발전과 지방의회 회의록 업무 전반에 대해 개선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해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각 의회마다 수범적인 기록업무를 발굴·전파하고 회의록 업무의 획기적인 발전과 속기사가 소명과 책임의식을 갖고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97년 10월말 현재 몇몇속기사들을 제외하고 교육위원회, 법원 속기사까지 회원으로 가입하여 지방속기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3. 지방의회 속기사들의 과제

1) 직제개정

현행 기능직군내에 있는 지방의회 속기사들의 직제를 행정직군내 속기직 또는 행정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는 지방의회 구성 당시부터 계속 제기되어 온 과제로서 속기업무는 지방의회 사무 중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해 낮은 직급으로 인해 회의록 발간업무의 발전이 더디지고 있다.

이 문제는 대한속기협회 '97년도 중점 추진과제 중의 하나로 채택하여 협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광역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와 전국시·군·구의회의장, 각 시·도대표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채택하여 관계부처에 계속 건의해 오고 있다.

직제개정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있는데, 회의록 발간업무의 중요성 제고와 속기업무의 비단순성에 대한 인식제고, 공직자로서의 의식함양, 자기계발 등이다.

회의록 업무의 중요성은 지방의회와 관련된 부서에서는 충분한 인식을 하고 있으나 직제 담당부서에서는 현실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컴퓨터의 발달로 워드와 속기의 구분이 없어진다고는 하나 지방의회 속기사의 속기 업무는 단순히 속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회의록을 만들고 배부하는 데까지 이어지고 있다. 워드나 빠른 입력기 등은 기록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속기업무의 전체가 될 수는 없다. 이로 인해 속기 하나만을 바라보며 속기사를 평가하는 시각에서 속기사의 업무가 단순하기에 기능직이 알맞다는 이론이 나오고 있으며 파트타임제나 녹음을 이용한 회의록 만들기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는 행정낭비를 초래할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 파트타임일 경우 책임감이 없어 회의록의 부실이 초래되고 회의내용의 진실이 오도되어 지방의회의 발전에 장애요인이 된다. 어느 의회에서 전산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의록 재입력 부분에 있어 외부에 용역을 의뢰하였는데 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타자수가 입력한 원고가 상당부분 오타와 체제가 잘못 입력되어 재입력하는 사태가 벌어져 시간과 예산낭비가 초래되었다.

녹음을 이용한 회의록 발간업무는 의사계 전 직원이 회의록 발간업무에 매달려야 하는 단점이 있다. 속기사가 회의록 업무를 담당하면 속기에서 인쇄되어 배부될 때까지 속기사가 다 담당하지만 타자수가 녹음된 회의내

용을 입력한다고 하면 교정과 인쇄·배부는 일반 의사계 직원이 담당해야 한다. 작은 정부, 공무원 정원 동결, 공무원 수 축소 등이 거론되고 있는 현시대에 인력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회의록 업무는 속기사에게 전담케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일 것이다. 그러나 기능에 비해 권한과 책임이 폐쇄되어 있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업무의 완벽한 수행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아울러 속기사들 또한 속기에 치중한 나머지 "나는 속기사인데!"하는 생각보다는 한 사람의 공무원임을 우선 생각하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시대에 뒤쳐지지 않는 모범 공무원상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2) 컴퓨터와의 접촉

회의 분량이 늘어남에 따라 회의록발간에 있어서도 시간적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기존 지방의회 속기사들 대부분이 수필속기사들이나 수필속기의 단점은 번문시간이 길다는 것이다.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 입력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를 활용한 회의록 발간업무가 이루어져야 한다. 속기는 수필로써 하되 번문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함으로써 입력시간을 단축하고, 입력과 동시에 회의록 체제에 맞추며, 교정을 거쳐 원고는 인쇄소로 보내 마스타 인쇄를 하여 배부를 한다.

그리고 입력된 파일은 의회백서라든지 추후 급속도로 전개될 회의록 전산화를 대비한 형태로 보존을 하거나, 전산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면 이에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전산업무에 대해서 속기사들이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지방의회의 전산화라 하면 회의록 전산화에 초점이 맞추어지는만큼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현재 속기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회의록 원고의 파일로서의 보관이다. 어느 광역의회에서 회의록 전산화를 추진하면서 기존 회의록의 재입력비가 무려 1억여원 정도 소요되었는데 사전 회의록 원고의 파일화가 되어 있었다면 이 예산은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회의록 전산화는 시대적 요청이며, 앞으로 몇 년 내에 급속도로 확산될 것이다.

속기사가 이 사업에 관여하게 되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그리고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은 속기사의 우수성을 입증할 것이며

나아가 현행 속기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3) 속기인력 보장

국회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회의록작성내규가 작성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임시회의록)에 대한 부분이 있다. 국회에는 임시회의록 발간이 가능하나 지방의회에서는 발간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일부 의회에서 특정 위원회의 회의록을 임시회의록으로 다음날 발간하고 있기는 하나 극히 제한적이다. 그 이유는 속기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날로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지방의회에서의 임시회의록 발간요구가 높아져 가고 있다. 이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속기인력과 장비가 보장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회의가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록을 집행부에 통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이 기간을 지키기가 어려운데 이는 속기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다.

업무가 전산화되면 인력은 줄여야한다고 하지만 늘어나는 회의량과 업무의 특성상 속기인력은 증원되어야 하며, 업무방식에 있어서 개선효과를 기대하여야 할 것이다.

4) 교육기회 부여

지방의회의 속기사는 이제 속기 하나만으로 근무를 하고 있지는 않다. 일반 직원들은 잦은 인사 이동으로 인해 의사업무의 공백이 많이 생긴다. 특히 정기회 기간 중인 12월에 인사가 집중되어 있어 의사진행상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행정공백을 메꾸는 역할을 속기사가 담당해야 한다. 그러므로 속기에 대한 교육은 6년여의 현장 실무경험을 통해 터득하였으므로 이제는 행정에 관한 교육을 받고 실제 적용할 단계이다. 이에 따라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에서 실시한 '97속기행정과정'과 같은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어 우수한 속기사로서 지방의회에 근무함으로써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5) 자기계발 노력

현대는 전쟁터를 방불케 할 만큼 노력하는 자만이 살아 남는다. 속기사도 속기 하나만을 생각하며 현실에 안주하게 된다면 이는 도태만을 가져올 것이다. 지방의회 속기사는 속기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공무원으로

서의 정신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속기뿐만 아니라 회의록 발간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행정가로서의 역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일부 속기사는 외국어를 공부하여 의원들의 해외연수시 수행원으로 동행하는가 하면 회의록 발간 업무의 전산화 도입으로 표창과 함께 승진의 기회도 만 들었다.

처음 잘못 시행되어 특채로서 기능직에 채용되었지만 일반 직원들이 단순 기능인력으로 보는 시각을 전환시키려면 속기사 개개인의 자기개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6) 사회적 분위기 조성

문화민족은 기록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로 판가름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기록문화는 그다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속기사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게 되는데 회의체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속기사가 존재해야 한다는, 반드시 기록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되어 타 기관으로도 속기사들이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 현 체제라면 얼마되지 않아 지방의회 속기사들간에도 인사적체 현상이 도래하게 되어 속기사간의 갈등이 빚어질 것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기록문화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선임 속기사가 지방의회보다 더 좋은 곳으로 진출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속기사의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더이상 속기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면 속기계의 역사는 끊어지고 말 것이며, 속기계의 발전 또한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렇듯 지방의회의 속기사들은 개원 당시 시행된 제도로 인해 자기개발의 한계에 도달해 있으며, 이는 우리 나라 속기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너무 이 문제에 치중하여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며 직급에 맞는 일만 하게 된다면 속기사 제도에 대한 개선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회의록 발간업무는 물론이거니와 행정 수행능력을 충분히 배양한다면 제도개선은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속기사가 속기사답게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의 발전은 배가될 것이며, 우리 나라 속기계의 발전도 증대될 것이다.

(대구 중구의회)

속 기 예 찬

전 해 성

국회 40년 그리고 정년



내가 국회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속기 때문이다. 제3대 국회 후반기인 1958년 4월 9일 국회 속기사로 취직이 된 것이다. 그때만 해도 속기 하면 글을 빨리 쓰는 것으로만 알았던 때로 국회 속기록 작성을 위한 소수의 속기사만이 국회에 있었기 때문에 속기사는 아주 귀한 존재였다.

내가 근속한 40년은 우리 의정사로 볼 때 매우 기복이 심했던 격동기였다.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4·19학생의거로 자유당정권이 몰락하고 대통령책임제를 내각책임제로 개헌한 제4대 국회는 2년 2개월만에 해산되었고, 제5대 국회는 5·16쿠데타로 10개월만에 해산된 후 약 2년 7개월간 국회가 존재하지 아니한 헌정중단기간으로 국회속기사들도 퇴직당할 수밖에 없었다.

1963년 12월 17일 민정이양에 따라 제6대 국회가 문을 열어 헌정중단은 해소되었으나 제8대 국회는 대통령국가긴급권에 따라 1년 3개월만에 해산되었고, 제10대 국회도 유신헌법 부칙에 따라 1년 8개월만에 해산되었으며, 제12대 국회는 6·29민주화선언에 따른 제6공화국 헌법 부칙에 의하여 임기를 1년 앞당겨 해산함으로써 우리 나라 의정사는 14대 까지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한 것이 다섯 번이나 된다.

이는 우리 나라 의정사가 얼마나 격동기였고,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정치발전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이런 격동기 속에서 국회라는 배를 타고 정년이라는 목적지까지 무사히 온 것은 항상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본다. 오직 주어진 소임을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왔고, 아직도 마음은 더 달리고 싶은데 어느덧 정년, 지나간

세월을 계산해 보니 40년, 참으로 긴 세월이었다.

속기에 얽힌 일화들

내가 국회 속기업무를 담당한 기간은 약 15년 6개월간이다. 1958년 4월 9일부터 5·16 쿠데타로 국회가 해산되어 퇴직한 1961년 6월 10일까지가 1단계라면 2단계는 내가 속기주사보로 복직한 1965년 3월 6일부터 1977년 6월 10일 법제관으로 전직되기까지다.

이 글은 대한속기협회에서 발행하는 속기계에 게재되는 만큼 내가 속기 업무를 담당하면서 겪었던 일 가운데,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 일들을 중심으로 써 보려고 한다.

① 산회소동

속기사로서 취직한 첫 해 올챙이 부무시절,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 있었던 일화다. 당시 자유당과 민주당이 예산안 심의 일정관계로 진통을 겪고 있을 때 위원장대리(자유당)가 정회를 선포한다는 것이 산회를 선포해 버렸다. 그때 민주당위원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위원장대리의 발언을 낭독해 보라는 것이었다. 순간적으로 옆을 보니 주무는 이미 퇴장하고 그 자리에 없었으므로 나는 속기된 대로 "산회한다"라고 낭독하였다. 그러자 민주당위원들이 퇴장하던 위원장대리에게 달려가서 "다시 정회를 선포하라"고 다그치고 위원장대리는 정회를 선포한 것이 틀림없다고 버티고, 그때 속기석에 앉아 있던 나는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혹시 올챙이 속기사인 내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가슴은 뛰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나는 숨막히는 그런 순간이었다.

서로 '산회'와 '정회'를 가지고 다투던 위원들이 결국 속기사의 기록을 인정하고 위원장대리는 산회선포를 정정하고 정회선포를 함으로써 이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나는 정회선포 즉시 사무실로 달려가서 녹음내용을 들어보니 "산회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음을 확인했을 때 느꼈던 그 희열, 내가 비록 올챙이 부무속기사이지만 기록만큼은 정확하게 했다는 자부심, 고리고 속기는 정말로 신속 정확하다는 신뢰감을 나에게 심어준 하나의 사건이었다.

② 하모라의 상사격

이것도 부무시절에 겪었던 일화다. 제4대 국회까지만 하더라도 국회의원은 대부분이 한문세대였기에 발언 중에는 고사성어가 많았고, 연세가 많은 의원들의 발언은 발음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속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것으로는 "하모라의 상사격"이다. 처음부터 하모라의 상사격으로 들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전 계원이 동원되어 들어 보아도 "아모라의 상사격"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발언 의원을 찾아 뵙고 확인을 구하니 발언 의원은 껄껄 웃으면서 직접 속기노트에다가 "하모라의 상사격"이라고 써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가 "아"로 들리니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때 나는 속기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

옛말에 나는 '바담풍' 해도 너는 '바람풍'하라는 말이 실감이 났던 사건이다.

③ 발언 시비의 해결사

제5대 국회까지는 본회의 중심제였고, 본회의장에서는 질의와 토론이 상당히 활발했었다. 지금은 상임위원회 중심제로 질의도 원고를 낭독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처럼 되어 있으나 그 당시는 원고 없이 발언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발언내용의 진위를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본회의 발언 가운데 이의가 제기되면 속기사로 하여금 그 발언내용을 낭독케 함으로써 시비를 가렸다.

내가 겪었던 사례를 하나만 소개하면 1968년 제7대 국회 때 재정위원회에서 장관과 위원간에 논쟁이 극도로 과열되어 상대방을 비방하는 등 격돌 일보 직전까지 이르러 회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위원장은 회의 분위기를 전환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였다.

정회로 인해서 회의시 격앙된 감정이 이성으로 돌아가자 "발언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나는 속기원문을 낭독했고 다시 회의는 속개되었다.

"국왕 국회의장·재판관과 그리고 속기사는 가장 공정하다"는 영국의 격언과 같이 속기사는 발언내용에 대하여 "한 자도 보태거나 빼지 아니하

고 사실 그대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회의장에서의 발언내용을 둘러싼 시비를 우리가 해결한다는 점에서 속기사는 '기록보국'을 한다는 공지와 함께 '발언시비의 해결사'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④ 의료보험과 일요보험

이것은 1975년(제9대 국회) 속기과 제5계장으로 있던 때의 일이다. 지금은 의료보험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것이지만 그때는 의료보험이 실시되기 전이었으므로 의료보험은 생소한 용어였다.

그 당시 국회는 발언시간에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도 한 시간 이상 발언하는 경우가 많았다.

재경위원회에서 의료보험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세제감면의 필요성을 한 시간 이상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때 동원된 속기사는 6명이었고, 6명 모두가 일요보험으로 번문을 해 왔다.

내가 계장으로서 제출된 원고를 확인하다 보니 이제까지 듣지 못했던 생소한 용어라 담당속기사들에게 이를 확인한 바, 모두가 "일요보험이 틀림없다"는 것이다.

나는 좀 미심쩍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한두 사람도 아니고 6명이 똑같이 들었다고 하기에 더 이상 확인하지 않고 편집계로 넘겨서 회의록이 발간되었다.

발언위원은 새로운 제도도입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외국의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서 그 속기록을 선거구 및 관계기관에 배포할 계획이었는데 엉뚱하게도 '의료보험'이 '일요보험'으로 되었으니 얼마나 황당했겠는가?

위원은 화가 나서 전화로 담당계장인 나에게 시내에 있는 사무실로 "속기록을 가지고 당장 오라"는 것이었다. 내가 사무실에 도착해 보니 위원은 상당히 화가 나 있었다.

먼저 속기사들이 의문이 있는 발언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회의록을 발간하게 된 것을 사과드리고 나서 회의록을 다시 읽어달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의료보험'을 '일요보험'으로 낭독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은 대부분 표준말을 사용하지만 그 당시 경상남도 남부지역 사람들은 '의'를 '이'로

발음하는 것이 습관화 되어 '의료보험'을 '일요보험'으로 자연스럽게 발언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일요보험' 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그때서야 웃으면서 "내가 발음을 정확히 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군"하시면서 다음부터는 발음을 정확히 하겠다는 다짐까지 해주었다.

회의록에 잘못 기재된 '일요보험'을 '의료보험'으로 정정할 것을 약속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내 발걸음은 위원님을 뵈러 갈 때의 걱정은 사라지고 속기사의 어려움을 이해시켰다는 자부심 같은 것으로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다.

속기는 발언자의 '음'을 기록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해프닝이 종종 있었다 'KISA' 가 '기사' 로 기록되어 정정한 적도 있고, 발음이 잘못되어 회의록을 정정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 나라 말이 가지는 수많은 유사어, 동음이의어와 발언자의 정확치 아니한 발음을 바르게 기록하기 위해서는 속기사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더 많은 지식의 습득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식의 범위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특수전문분야의 기술용어와 신조어까지 미리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확신이 되지 않는 내용에 대하여는 신속을 생명으로 하는 속기이지만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발언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사건으로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다.

속기인의 금지

속기인 누구 하나 머리 나쁜 사람이 있는가?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머리 나쁜 사람이 속기를 배울 수 있는가?

속기에 매력을 느껴서 배운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속기인들은 부모님의 경제력 때문에 남들이 하기 어려운 속기술을 배우게 되었다.

1분에 320자 이상 쓴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인가?

또 320자 이상을 쓸 수 있도록 되기까지의 교육과정은 또 얼마나 고된 험로인가?

속기인들이라면 다 체험한 것이지만 속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그만 두겠다"고 결심한 것이 몇몇 번이던가?

실지로 속기술을 배우겠다고 시작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도에서 포기하고 인내심이 아주 강하고 의지력이 있는 머리 좋은 소수만이 목적을 달성하지 않는가?

우리가 속기술을 배우는 동안 낭독한 국회속기록 및 신문사설, 그리고 직무수행에 있어서 훌륭한 발언을 기록하는 동안 그것들이 머리 속에 들어와 자연스럽게 우리를 박식하게 만들고 있지 않는가?

참으로 속기인들처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나는 확신한다.

이처럼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의정사를 우리들만이 갖고 있는 속기술로 '기록보국'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속기인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우기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속기술을 끝까지 인내로서 목적을 달성한 그 의지력, 배우고 보니 신속·정확하고 비밀이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이 속기술,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수기술을 우리는 하나 더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긍지를 가져야될 것이 아닌가?

속기예찬

내가 속기를 애용하는 것은 속기는 신속·정확하고 비밀을 유지해 주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경우 신속성을 강조하다 보면 정확성이 떨어지고, 정확성을 강조하다 보면 신속성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겸비하고 있는 것은 속기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다. 참으로 신비스럽기만 하다. 거기에다 비밀까지 유지되므로 더욱 금상첨화가 아닌가.

나는 아침 출근하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탁상일기이다 그날 하루 하여야 할 일들을 속기로 적는 것이다.

지금 세상은 정보통신의 발달로 우리 나라 TV뉴스가 바로 그 시간에 전세계에서 시청이 되는, 전인류가 동시권에 살고 있는 현대인으로서 시간만큼 귀중한 것은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와 같이 귀중한 시간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속기가 아닌가?

그리고 속기는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때 그때 생각나는 것

을 속기로 메모해 두었다가 그것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내가 국회 속기사로 출발하여 법제관, 경위과장, 입법조사관, 입법심의관, 그리고 전문위원 등 40년간이라는 긴 세월을 국회에서 봉직하면서 한번의 실수도 없이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정년퇴직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속기술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속기에 대해서 무한한 애정과 함께 예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맺는 말(속기술의 활용)

우리는 지금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지금 세계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속기계도 수필속기에서 기계속기로, 다시 Speed Word시대로 진입하려고 하고있다. 대부분의 속기인들이 기능인으로 인정되어 전문 속기직에서 탈출하려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속기는 우리 인간생활에 있어서 종속변수이지 독립변수는 아니다. 그러므로 속기인들은 속기직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전문직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여야한다.

속기인들은 머리로 명석하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신속·정확하고 비밀이 유지되는 '속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전문직을 갖기 위한 능력개발과 시대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습득에 '속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전 국회속기과 , 위원회 법제관, 경위과장, 동력자원위원회 입법 심의관 통상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 97. 12. 31 정년퇴직)

인생은 60부터라는데……

신 세 화



어느덧 내 나이 60이 넘어 공직사회에서 정년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다.

생각하면 세상사의 순리라 여겨져 나로서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인생여정이라고 애써 자위하고자 한다.

흔히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나도 그런 말을 들으면 남의 일인 양 옆견의 자리에 놓아 두었었다.

그런데 바로 내가 60을 넘어 공직에서 떠나게 되고, 그야말로 좋게 말하여 자유분방한 업자가 되고 말았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인생은 세월보다 더 빠른 것 같다.

그러면 과연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흘러간 지난 인생은 헛된 인생이란 말인가. 시간이나 인생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無始無終)는데 그 중간인들 있겠는가. 세월의 연속인데 어찌 60이란 말로 딱 잘라 구별짓는 것인지. 이것이 세상사의 규율인데 어찌하리오만……

아무튼 지금 바로 내가 60이 넘었는데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없고 곰곰이 그 의미를 나름대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앞으로 얼마를 더 살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늦게나마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에 걸맞는 삶이 되는 것일까.

본래 인생이란 고통과 괴로움과 즐거움과 행복이 얽히고 설키는 삶이 그 본래일진대 이를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마는 더 아름답고 행복하고 참되게 삶을 누려 보겠다는 희망섞인 쪽으로 내 마음을 몰아부쳐 봄이 어떨까?

이 또한 탐심 중의 하나인 유애에 의한 애착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어찌 마음대로 되랴마는 더욱이 흘러버린 삶 속에 이를 위한 터전과 여건을 갖추어 놓지 못한 상태에서 이는 언감생심이 아닌가.

행복의 조건들 중 몸과 마음의 건강, 그리고 경제적인 부를 들 수 있다면 그 어느 것 하나 내세울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고 하지 못하는 처지 아닌가.

특히나 현대 사회에서 절대적인 생활의 바탕을 이루는 경제적인 면을 생각한다면 그저 한심할 뿐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의 의미를 아주 외면해 버릴 수는 없다. 조금이라도 다가가 보아야하지 않는가. 어차피 무상공상인데 나를 둘러싼 모든 애착을 훌훌 흘려 버리자. 마음을 비워보려고 애나 써 보자.

마음을 비운다, 무슨 뜻인가?

"마음을 얽매는 모든 꼬달림과 집착을 훌훌 털어버리는 것도 그 중의 하나가 아닌가"하고 나 나름대로 생각해본다.

과거에 있었던, 그리고 지금, 또 앞으로 있을 모든 그 무엇에 따른 더럽혀짐이 없는 청정심이 될 수는 없을까. 허망에, 망상에, 사랑과 미움에 의한 일체의 업이 소멸되는 길은 없을까.

유와 무, 낙과 고, 사랑과 미움이 서로 이분이 될 수 없다는데 이것들에 편차됨이 없이 초월할 수 있는 삶은 어떤 것일까.

모든 악과 괴로움의 인이 되는 욕심(貪)과 성냄(瞋)과 어리석음(痴)의 삼독을 없앨 수는 있는가.

일면이나마 나를 돌아본다.

나는 재물과 권력에 대한 욕심은 어차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수십년간 공들여 쌓아온 술 욕심은 어떻게 할까. 욕심대로 마실 수 있게 몸이나 지탱되거라, 다만 술에 취한 추태나 술로 인해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못된 버릇이나 고쳐지거라, 그리고 뭐가 잘 났다고 남편 우위의 고정관념으로 특하면 화도 성도 잘냈던 나만이 지니고 있는 습관이라도 없어졌으면 한다.

오래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은 욕심이야 어찌하랴마는 그 욕심도 버린 가운데 일생을 같이 해 왔고 앞으로의 여생 동안 같이 할 동반자인 애들의 어머니와 티격태격하면서 산에라도 올라 맑은 공기 마시며 대자연의

품에 안겨보고 싶은 마음도 욕심이라고 하기에는 절대 거부한다.

그리고 온 집안이 평안하고 우리 아이들이 장가·시집가서 건강하고 평범하게 살면서도 행복이 넘치고 그 행복을 맘껏 느끼며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영원하리라!

인생은 60부터! 어떠한 것에도 욕심을 내지 않고, 어떠한 일에도 성내지 않으며, 무명에 의한 어리석음도 없애는, 이른바 삼독을 없애고, 어떤 ㄱ달림에 의한 얽매임도 없애보겠다. "없애보겠다"는 욕심도 하나의 집착이라서 없애야겠다는 욕심도 없는 사이 자연스레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내 어찌 그리 실행이 되라마는 '인생은 60부터'라는 의미를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만이라도 가져 보는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진정 자유인이 되고 싶고, 중도의 삶을 누려 보려는 마음이라도 굳건해졌으면 한다.

그리하여 이것이 씨앗이 되어 지위나 명예나 재물이 없이도 마음이 평화로와져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대한속기협회 부회장, 전 국회사무처 속기과장, 경제과학위원회·행정위원회 입법조사관, 특별위원회 입법심의회관, 전문위원, 97 12. 31 정년퇴직)

미국에도 사관 있다

- 한번만 고쳐주라 대통령 통사정에도 NO! -

미국 백악관에서는 1주일 단위로 <주간 대통령 문서록>이라는 백악관 속기록을 발간하고 있는데 이 문서록에는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행하는 모든 발언과 대통령의 이름으로 발표되는 성명서와 명령 등이 게재된다. 이 문건을 작성하는 속기사는 대통령 본인이 직접 부탁해도 일단 발언한 말은 고쳐주지 않는다. 다음은 <신동아>11월호에 게재된 내용을 발췌 요약한 글이다.

- 편집자 주 -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을 보여주는 백악관 속기록

매일 오후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열리는 마이클 매커리 대변인의 브리핑에는 기자들이 전혀 나지 않는 중년 신사 한 명이 거의 빠짐없이 참석한다. 늘 오른쪽 입구 가까이에서 서서 대변인과 기자들이 주고 받는 질의응답을 지켜보는 그는 국립문서보관소 관보국 소속 공무원 마이클 설리번 씨. 직책은 <주간 대통령 문서록>의 편집장이다.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행하는 모든 발언, 대통령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성명서와 명령 등 각종 문건을 1주일 단위로 기록·정리하여 책자로 발행하는 백악관의 사관이다.

<주간 대통령 문서록>은 매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나온 자료를 마감해 관보국의 편집작업을 거쳐 다음주 월요일자로 발행된다. 편집, 교정을 거쳐 정부인쇄국에서 실제로 배포하는 날은 목요일. 매호 말미에 대통령의 출장 등 일정, 주요인사에 대한 상원인준요청 현황, 백악관 공보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목록 등 부수자료를 실어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을 보여준다.

국립문서보관소는 '97년 9월27일자부터 <대통령문서록>을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했다.

미국인은 물론 전세계의 관심있는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의 활동상을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게된 것이다.

<주간 대통령 문서록>이 처음 발행된 것은 린든 존슨 대통령 시절인 1966년 7월이었다.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를 지냈던 존슨은 의회 속기록 같은 것을 만들어 자신의 발언과 백악관의 움직임을 기록하기로 결심했다.

이에 따라 백악관 참모들과 각 부처장관 보좌관들이 국립문서보관소와 협력하여 백악관 속기록을 만들어 내기에 이르렀다.

속기록의 생명은 정확성.

설리번씨가 매일 대변인의 브리핑에 참석하는 까닭도 백악관의 흐름과 그 날의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의 발언을 담은 속기록은 백악관 통신국에서 제작한다.

육·해·공군과 해병대에서 파견된 현역장병 581명으로 구성된 통신국은 대통령이 참석하는 모든 국내외 공식 행사장에 통신시설을 하고, 모든 연설과 발언을 백악관 기자실로 중계하는 한편, 속기록을 만들어 보도진에 배포한다.

대통령 본인이 부탁해도 일단 내뱉은 말은 절대 고쳐주지 않는다

통신국에서는 또 대통령의 모든 공식활동을 비디오로 녹화해 텔레비전 방송사에 제공한다. 업무성격상 방송사 종사자들 외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 비디오 녹화는 1996년 선거때 클린턴이 거액 현금기탁자들을 백악관에 초대해 베푼 커피모임까지 녹화한 사실이 최근 확인되면서 의회에서 물의를 빚었고, 백악관 법률고문이 대배심에 소환되어 테이프를 늦게 제출한 경위를 추궁받는 등 불법 현금 스캔들에 새 전기를 불어왔다.

설리번씨는 대통령 속기록을 정리하다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녹음 테이프를 확인하고, 대통령이 국내외 출장에서 행한 발언은 주로 비디오 테이프를 돌리면서 대조한다고 밝혔다. 존슨 대통령이 대통령문서 기록작업을 백악관의 핵심업무로 부각시킨 덕분에 백악관 참모들과 직원들은 적극 협조한다고 했다.

통신국에서 제공하는 녹음테이프 이외에도 공보실은 모든 보도자료를 한 벌씩 따로 챙겨준다. 대통령 일정표도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것보다 훨씬 상세한 백악관 내부용으로 제공받는다.

백악관과 맞붙은 옛 행정부청사 5층에 자리잡은 설리번씨의 사무실에는 백악관 공보실의 안내방송을 들려주는 오디오 중계시설뿐만 아니라 대통령 집무실과 브리핑룸 등 백악관 곳곳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를 중계하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그럼에도 설리번씨는 틈날 때마다 백악관 기자실로 직접 가서 각종 보도자료를 직접 챙기는 등 정확한 기록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정확한 기록을 위한 기본원칙은 대통령이 말한 그대로 적는 것. 대통령 본인이 부탁해도 일단 내뱉은 말은 고쳐주지 않는다. 제럴드 포드 대통령 때 딱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다.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을 맞이해 베푼 국민 만찬장에서 축사를 하던 포드 대통령은 이집트를 이스라엘로 착각, "우리의 우방 이스라엘"로 부르는 실수를 범했다 당황한 대통령은 이튿날 정정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대통령의 청탁을 면전에서 거절할 수 없었던 설리번씨는 알겠다고 말하곤 속기록에는 실수한 그대로 적었다.

대통령 보좌진에서 자기들 실수로 틀린 기록을 고쳐 달라고 청탁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부시 대통령 때의 일이다. 연설문 작성자의 실수로 대통령이 인용한 통계숫자가 틀린 사건이 발생했다. 나쁜 기록은 남기지 않으려는 것이 인지상정 작성자가 바로잡아 달라고 간청했다.

설리번씨는 평소 접촉하는 부대변인을 찾아가서 상의했다. 그러나 그의 의견도 마찬가지로였다.

대통령이 말한 대로 기록하자는 것이었다.

정확한 기록은 객관적인 재평가의 기준

정확한 기록은 결국 대통령과 보좌관들의 업무에 도움을 준다. 클린턴 대통령은 대학 같은 곳에서 연설을 할 때 과거 같은 장소에서 전임 대통령들이 연설했는지 여부를 점검해 역사적인 의미를 즐겨 부여한다. 최근 워싱턴 시내 아메리칸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클린턴은 34년 전에 케네디 대통령이 같은 대학에서 행한 연설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 8월15일 '2000년대를 맞는 계획'을 발표하는 행사를 개최하면서, 그 장소로 국립문서보관소 본부를 선택,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기도 했다. 영국과 호주 대사 등 각국 외교사절도 초청된 이날 행사에서 클린턴은 "이렇게 훌륭한 장소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자료들의 그늘에 우리를 초대한 칼린소장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주간 대통령 문서록>에 기록되어 있다.

국립문서보관소는 한해 동안 발행한 <주간 대통령 문서록>을 한데 묶은 '대통령 문서록'을 매년 발행하며, 신임 대통령의 취임 첫해를 기록한 문서록은 특별히 가족으로 제본해 대통령에게 증정한다.

20세기 들어 미국 정부에서 대통령 문서록을 처음 발행한 것은 1958년 국립문서보관소 관보국에서 대통령의 공식문서를 담은 연감을 발행할 것을 건의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집권 2기의 전반부인 1956년과 1957년 2년치를 각각 두 권의 책으로 발행했다. 관보국은 또 아이젠하워의 전임자인 트루먼 대통령의 집권 후반부인 1951년과 1952년의 문서록을 역시 두권으로 각각 발행하기도 했다.

물론 그 전에도 대통령 문서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과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의 문서록이 이미 발행돼 있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경우 민간 차원에서 재임중의 모든 문서가 완벽히 정리돼 나왔기 때문에 국립문서보관소가 제작하지 않았다. 그 대신 루즈벨트의 전임자인 허버트 후버 대통령의 문서록은 후버 탄생 100주년이 되던 1974년에 발행했다.

후버 대통령의 문서록 발행은 1960년대 미국을 휩쓸었던 수정주의 사관에 따라 경제대공황을 일으킨 원흉으로 낙인찍혔던 그의 치적을 재평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확한 기록은 당대에 무능하다고 매도된 대통령을 후세에 엄밀하게 재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마이클 설리번씨는 드레이크대학에서 사학 석사학위를 받은 다음 1973년 후버 문서록 편찬에 참여하면서 대통령의 문서록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올해로 24년째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일하는 그는 최근 예산감축으로 과거 3명의 직원이 하던 <주간 대통령 문서록> 편찬작업을 혼자서 하고 있다. 문서록을 인터넷에 올린 이유도 예산을 절약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미국이 자랑하는 기록문화를 세계에 전파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백악관과 의회를 연결하는 펜실베이니아 애비뉴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국립문서보관소 북쪽 현관 좌우에는 남녀 조각상이 있다. 둘 다 무릎에 책을 놓은 좌상이다. 왼쪽의 여자 조각 아래 기단에는 "과거지사는 전주곡(What Is Past Is Prologue)" 오른쪽 남자 조각의 기단에는 "과거를 공부하라(Study The Past)"라는 경구가 각각 새겨져 있다.

날마다 백악관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문건을 전 세계에 뿌리는 초강대국 미국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깨닫게 하는 명문들이다.

인터넷 주소는 <http://www.access.gpo.gov/nara/index.html>

'국회 속기록' 다크로 듣는다

KBS-1 라디오 새해부터 방송

내년 정부수립 5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KBS 제1라디오(서울지역 711 kHz·97.3MHz)에서는 1월 1일부터 다큐멘터리 '국회속기록'(연출 이영노)을 방송한다.

국회 의정활동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한국 현대사에 미친 영향을 국회 속기록에 근거하여 새롭게 조명하겠다는 것이 기획의도.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각종 정책과 법안, 정치적 사건과 여기에 얽힌 관련자 및 전문가들의 증언이 드라마 양식을 통해 입체적으로 꾸며진다.

테마로 등장하는 '그린벨트 법안'의 경우 ▶최초 법안 제정 당시 상황과 처음 발의한 의원 등 여러 사람들의 활동 ▶수시로 개정된 과정과 이 과정에서 드러난 각 의원들의 발언내용 및 그 배경, 시대적 상황변화상과 지역구 사정, 비화 등을 담을 예정.

특히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남녀 내레이터들의 국회속기록을 읽는 방식을 차용. 단순 추측방식의 전개를 지양하고 신뢰도를 높여 제2라디오의 '그때 그 사건' 및 MBC '격동 30년' 등과 차별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정치자금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가족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까지 폭넓게 짚어보겠다는 조원석 라디오국 드라마 부주관은 "검찰수사도 국회 속기록에 근거하는 것에 착안. 의원활동이 임기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이를 통해 한국 현대사를 재정리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방송시간은 월~토 밤 9시 36분부터 22분간.

한편 현재 방송중인 '한국외교비사'는 올해말에 끝난다.

(중앙일보 97. 10. 31일자 기사 전재)

'97INTERSTENO 중앙위원회 참가보고

- 국제부 -

1. 참가목적

1887년 영국 런던에서 창설된 세계 속기사의 조직체인 Intersteno는 현재 미·불·독·중·일·한국을 비롯한 25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우리 나라 대표단이 지속적으로 참가함으로써 속기문화의 창달 및 국위선양은 물론 속기관련 정보의 상호 교환으로 한국 기록 문화와 속기계의 세계화에 기여하기 위함.

2. 일시 : '97. 9. 4(목)~9. 7(일)

3. 장소 : Belgium Liege IBIs Hotel

(※ Intersteno Belgium Tel + Fax : 32 50 82 7121)

4. 참가자

① 한국측 대표

- 지대섭 대한속기협회 회장(자민련 국회의원, 예결위원, 문화체육공보위 간사)
- 권용태 대한속기협회 부회장(국회문화체육공보위 수석전문위원)
- 염덕훈 대한속기협회 국제부이사(국회사무처 속기1과)
- 조영기 대한속기협회 국제부간사(국회사무처 속기2과)

② 참가국 및 인원

한국·미국·프랑스·독일·스위스·스웨덴·핀란드·벨기에·인도네시아·터어키·오스트리아·이탈리아·네덜란드·체코·헝가리 등 15개국 중앙위원 및 회원 등 50여명 참석

5. 중앙위원회 일정

<환영 만찬>

·일시 : '97. 9. 4(목) 18:30

·장소 : LE FIACRE 레스토랑

①'97 Intersteno 벨기에 조직위원장 Jos Jossart씨 환영 인사

②'98 Intersteno총회 의장 William Bonnet(Switzerland)씨 치사

③Intersteno 사무총장 Dr. Karl Gutzler(독일)씨, 지대섭 한국대표단장
일행 특별소개·환영

④지대섭 한국대표단장 겸 Intersteno 중앙위원 답례인사말씀

<답례인사말씀 요지>

- Intersteno 의장단 및 집행진에 대한 노고 치하와 각국 대표들에게 인사
- 세계화와 함께 과학화 정보화로 국제교류 필요성 언급
- Intersteno 회원국 상호간 활발한 접촉을 통해 전문직업분야의 발전,
나아가 인류 발전에 이바지하자

<제1차 중앙위원회>

·시간 : '97. 9. 5(금) 09:00~12:00

·장소 : Liege IBIS 호텔 6층 회의실

·참석범위 : Intersteno 중앙위원회 의장단 및 각국 중앙위원 등 25명 참석

·통용언어 : 독어·불어·영어 사용

·회의내용

1. '96 Intersteno중앙위원회<Italy Bellinzona> 회의록 보고, 접수

2. '98 제42차 Intersteno총회(Switzerland Lausanne)

①총회 준비

- 일시 1998. 7. 11(토)~1998. 7. 17(금)

- 장소 : Switzerland Lausanne(스위스 로잔)

- 총회 세부계획 일정 심의

- 참가신청 접수 : 참가신청서 작성하여 1998. 4.15~5.31까지 등록 또
는 Internet을 통해 동 기간에 등록(참가신청서는 협회 국제부에 비치)

<제2차 중앙위원회>

·시간 : '97. 9. 5(금) 14:00 ~17.40

·장소 : Liege IBIS 호텔 6층 회의실

·회의내용 :

1. 경기대회

①타이프

·전문적 워드프로세싱 경기규정

- Belgium Intersteno 조직위원회 Danny Devriendt씨의 「전문적 워드 프로세싱 콘테스트」 제안에 대한 심의
- 경기규정에 대한 세부적이며 정밀한 축조심의, 찬반토론, 다수결에 의한 심의

②기타사항

- 경기장 준비 등 논의

<제3차 중앙위원회>

·일시 : '97. 9. 6(토) 09:00~2:55

·장소 : Llege IBIS 호텔 6층 회의실

·회의내용 :

1. 속기

- 속기경기대회 실시간(Real Time)을 위한 규칙심의
- 축조심의를 통해 심도있는 토의와 찬반토론으로 진지하게 규칙 제정

2. 기타 동의안

벨기에 국가그룹의 동의안 : 'Intersteno'를 'Interinfo'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제안

- 제안설명 : 'Intersteno'는 일반인들에게 속기와 관련된 조직체로 인식되고 있으나 정보화 세계화의 흐름에 맞도록 'Interinfo'로의 명칭 변경의 필요성 역설
- 'Interinfo'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기존 단체들이 여럿 존재하고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과 함께 '98년 제42차 Intersteno 총회의 중앙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재론기로 유보함.

6. 성과

- ① 세계 각국 의회의 속기업무에 관한 정보 자료 상호교환 계기 마련
- ② 우리나라 속기문화를 각국 대표들에게 설명하고 앞으로 계속적인 자료 교환 등을 약속
- ③ 2002년 월드컵 경기대회 개최국임을 홍보하고 각국 대표들과의 대화

를 통해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한 민간외교 역할 수행

- ④ Intersteno 중앙위는 Wordprocessing 규칙을 하나하나 축조심 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에서는 찬반투표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등 예정된 회의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아주 진지하게 토론을 하는 모습을 보고 같은 전문직업인으로서 많은 교훈을 얻었음.

7. 기타사항

- ① Intersteno 중앙위는 다음 총회 준비를 위한 실무적 성격의 회의체로서 참석대표는 속기협회 이사장급 이하 속기실무자들로 구성하여 참석함이 바람직함.
- ② 차기 제42차 Intersteno 총회 및 중앙위원회는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될 예정임.
- ③ Intersteno에 꾸준히 참석하던 일본속기계의 다꾸사리씨가 1996년 작고하고, 중국대표들도 언어소통 곤란 등의 이유로 불참하여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이 유일하게 참석하였음

8. 건의사항

- ① Intersteno는 전세계 속기인들의 유일한 조직체이며 전문직업인들이 국경을 초월하여 친목을 다지며, 관계정보·자료 교환을 통한 기술향상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세계 각국 기록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바 우리 나라도 OECD 가입국으로서, 또한 2000년대의 세계사에 함께 적극 동참하는 의미에서 지속적으로 국가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② 1998년 7월 11일에서 7월 17일까지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되는 제42회 Intersteno 총회에는 보다 더 많은 속기인들이 한국대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연구검토가 요망됨.

빠른손워드 교육과 못다한 이야기

홍순관

■ 컴퓨터속기의 필요성

속기란 발언속도에 맞추어 정확하게 기록하고 이것이 다시 일반문자로 번문되어 나오는 과정까지를 말하며 이러한 속기의 생명은 신속과 정확에 있다.

그중에서 정확의 문제는 녹음기나 테크 또는 딕테이션시스템 등의 발달로 기록속도는 다소 떨어져도 전문지식과 성의만 있다면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가 있다.

그러나 번문까지를 포함한 신속의 문제는 수필속기가 컴퓨터속기를 따를 수 없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실제로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에서의 번문시간도 수필속기는 10배 내지 12배를 주고 있으나 컴퓨터속기는 4배를 주고 있다.

그러므로 과도한 번문시간의 단축을 위해서는 컴퓨터속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한편 그동안 회의록 신속발간과 관련하여 기계속기 또는 컴퓨터속기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수필속기사는 무슨 죄인이나 된 것처럼 위축되곤 했었다. 그래서 '91년 생산기술연구원에서 개발을 시도하다 중단된 얘기만 되풀이하기에 급급했었다.

그러나 이는 수필속기사가 책임질 문제는 아니다. 그때까지는 컴퓨터속기를 배우고 싶어도 속기가 가능한 기종이 없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기존 속기사로서는 컴퓨터속기를 개발할 능력도 없을 뿐더러 개발할 능력이 있다면 직접 사업을 하지 왜 힘든 속기를 하겠는가.

그러므로 속기과의 입장에서는 민간으로 하여금 개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 또는 지원해주고 기술개발이 되면 검증 후 채택하여 사용함으로써 민간의 기술개발을 활성화시켜 주면 된다고 본다.

■ 빠른손워드와의 만남

'96년 1월 18일 본 협회 모 이사로부터 조선일보 신문기사 하나를 건네받았다. 내용인 즉 "초고속워드프로세서 등장, 1분에 한글 320자 이상, 온라인 문자 생중계가능"이라는 기사였다. 당시 설마하는 심정으로 회사에 연락하게 되었고, 며칠후 빠른손워드(구명 : 스피드워드) 개발자가 찾아와서 제품설명회를 갖게 되었다.

설명 과정에서 현재 YTN 뉴스를 생중계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YTN 뉴스를 틀어놓고 PC통신에 들어가보니 약 2~3초후 화면에 문자가 뜨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출력하여 채점하여 본 결과 97% 이상의 정확도를 보였다. 뉴스를 속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는 속기를 배운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 아닌가. 물론 한 사람이 입력하는 것은 아니고 2인이 교대로 입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인 1조로 10분간 속기하면 번문에 1시간 내외가 소요되는데 2~3초만에 화면에 뜬다는 것은 실로 충격이었다. 문자방송과 속기가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이것이 정말 분업이 아닌가?

이것이 일반화될 경우 현직 속기사의 앞날은 어찌되는 것인가? 또한 일반 PC에 S/W를 깔고 일반 키보드로 입력하는 것이니 타자수들이 먼저 익혔을 경우 원고의 질은 차치하고 엄청나게 빨리 번문해 낸다면 속기사의 위상은 무엇인가?

또한 국회보다는 변신이 용이한 지방의회에서 먼저 성과를 보인다면 국회의 체면은 무엇인가? 이런저런 생각에 잠을 이루기가 힘들었다.

며칠후 경영소프트 본사를 찾아가 현장에서 문자 생중계하는 것을 직접 살펴보았다. 실험 연구용으로 몇 개의 S/W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했으나 한 마디로 거절당했다. 자기들은 문자방송이 목적이지만 속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었다. 할 수 없이 교재만 1부 얻어와서 분석해보니 조직적인 약자·약법 등에서 소위 속기마인드가 부족함을 느꼈다. 또한 S/W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주면 개발팀에서는 기술적인 문제를 쉽게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시 찾아가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함께 개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설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합의했다. 첫째는 국회 속기사

제3회 속기학술세미나 결과보고

- 사업부 -

1. 개황

1997년 학술세미나는 대한속기협회가 문화체육부의 지원을 받은 첫 사업으로 6월 14일과 15일 양일에 걸쳐 전국의 270여 속기인들이 전라북도 무주군 소재의 무주리조트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사업부 주관으로 실시한 이번 세미나에는 전국의 총 103개 지방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현직 속기사들과 국회속기사 50명, 그리고 CAS속기 및 빠른손워드속기 관계자들도 같이 참여하여 3개의 주제발표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고 회원들간의 화합의 자리도 함께 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속기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전국의 지방의회 속기사들에게 협회의 활동을 알리는 좋은 기회로서 협회를 중심으로 전국 속기인들이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지방에서의 대규모행사 준비경험 미숙으로 세미나 진행에 여러 가지 차질을 빚은 점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된다.

2. 일시

1997년 6월14일(토) 12시30분 서울출발→ 18시 개회

6월15일(일) 12시 폐회→ 18시30분 서울 도착

3. 장소

무주리조트(전북 무주군 소재)내 티롤호텔 그랜드볼룸

4. 발표내용

- 지방의회 운영과 변화를 이용하는 지혜 (서우선 의정연수원 연수부장)
- CAS속기와 스피드워드의 현황 및 발전방향 (염덕훈 이사)
- 지방의회의 속기사무 개선방안(송효곤 회원)

5. 참석인원 : 총 270명

6. 참석인원별 분류

국회 50명, CAS 8명, 경영소프트 2명, 원로 6명, 문체위 3명, 동우속기 3명, 지방의회 178명, 기타 회원가족

7. 홍보·접수

공문발송 : 총무부장 한기수 접수 : 재정간사 김영중(서울) 대전시의회 신종식(지방)

8. 교통편

경기·서울지역 회원(약 110명)은 국회에서 '금성관광' 대형버스 3대로 이동, 지방은 각자 출발

9. 준비반 편성표

사업이사, 사업부장, 사업부 간사 회원이사, 회원부장, 총무이사, 총무부장, 재정부장, 기타

① 사전답사팀

팀장 : 김 덕 진

팀원 : 안기철, 송동우, 권영찬, 신종식(대전), 손상범(전주)

② 실무지원팀

팀장 : 이주성

팀원 : 사업부·총무부·회원부 외 서명순, 신연희, 강은실, 한순덕, 조신자, 정 숙, 서현숙, 이시정, 강지유, 편무창, 이봉선, 최윤정, 정영희, 간찬기, 남미경, 이혜정

12. 결산내역

· 총무부 보고

13. 문제점 분석 및 향후 대책

- ① 준비기획단 구성 미흡으로 지휘체계 혼선, 총괄부서 및 총인원 부족→ 기획단을 구성하여 각 담당별 책임자 및 보고체계를 구성하는 팀플레이가 요청됨(근본적으로 회원 20여명 이상으로 대책반을 구성한 후 행사에 대비하여 전면 가동하는 체제가 아쉬움)
- ② 찬조금 수입이 미미하고 참가비(1만원) 과소 책정으로 예산 부족→ 참가비를 실비로 책정하여 재정부담을 줄이고, 국고로 쓸 수 있는 한계를 홍보하여 협찬받을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요망됨
- ③ 핸드폰 등 통신시설 미비로 신속한 상황 보고와 계획 변경이 전달 안 됨→ 선발대와 서울 현지 및 각 버스 간 등 핸드폰 6, 7개 필요
- ④ 세미나장, 식당과 숙소간 이동거리 과다. 기동력 미흡→ 너무 큰 리조트를 선택한 결과임, 준비기획단 승용차 3대 필요
- ⑤ 참가인원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행사에 차질을 빚음→ 접수 마감을 최소한 행사 10일 전에 할 수 있도록 협조 요망
- ⑥ 여흥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져 지루한 감을 줌→ 전국노래자랑식의 진행을 피하고 시·도별로 장기자랑 등 경쟁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함
- ⑦ 세미나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있음→ 발표자 섭외에 차질이 있었고, 대안으로 나온 강사의 준비기간이 너무 짧았으므로 충분한 기간을 갖고 발표자를 선택해야 함→ 주입식 강의가 아닌 토론식 세미나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협회에 바라는 점 등 아픈 곳을 찌르는 발전적인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 ⑧ 세미나 교재를 이중으로 만들어야 되는 문제→ 역시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고 원고를 받아서 인쇄소에 넘겨야 할 것임

- ⑨ 무주리조트의 콘도사용료 할인방안 대책 미흡→ 그랜드볼룸에서 세미나를 할 경우 콘도요금을 회원가로 할인해 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했어야 함
- ⑩ 세미나 진행을 이벤트팀에 일괄하여 맡기거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비용문제가 관건이나 일부 도움을 받는 방안은 검토 여지가 있음
- ⑪ 식사인원수를 정확히 계산하여 식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아침식사를 거르는 회원이 상당수 있음
- ⑫ 관광버스가 쾌적하지 않아 불편하다는 지적→ 계약조건에 에어컨과 냉장고가 부착된 97년형 버스라고 명백히 했어야 하고, 가능하면 사진에 시승했어야 함
- ⑬ 일간신문 '인물동정'란에 회장의 기사가 실리지 않은 문제→ 3일 전에 국회출입기자 등에게 사진과 함께 자료를 부탁했어야 함
- ⑭ 세미나 후 평가회가 없음→ 준비기획단에서 여론을 분석하여 평가회를 갖고 미흡했던 점을 세밀히 분석하여 자료로 남겨야 함

제4회 속기학술세미나

- 전국지방의회 속기사 협의회 -

1. 개황

'지방화 정보화시대 속기사의 사명과 역할'이라는 주제 아래 제4회 속기학술세미나가 '97년 11월 5일 대구광역시 소재 한국섬유개발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의 주최는 대한속기협회이지만 전국지방의회속기사업의회에서 모든 준비와 진행을 맡았다.

종전 세미나와는 달리 속기와 관련된 내용 대신 시대적 요청에 따라 발전하는 지방의회에서의 속기사의 자세와 공직자로서의 예절,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와 향후방향, 회의록 전산화에 관한 내용들로 꾸며졌다.

대한속기협회 본부에서는 정기국회 일정으로 협회장 및 부회장이 불참하게 되어 이사장과 총무재정이사, 회원이사, 한동춘·김점동 이사만이 참석을 했다.

10시 30분부터 시작된 세미나에서 성천영 협회 이사장은 협회장 인사 말씀 대독을 통해 "선진 기록문화의 창달을 위해 가일층 노력해야 하며, 속기인의 올바른 위상을 정립함으로써 큰 자부심과 희망을 가지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의회 박삼술 부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250만 대구시민을 대표하여 환영한다"는 말과 함께 "이번 세미나가 전국 속기인들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21세기 지방화·정보화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질향상과 속기실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전동호 의장의 축사가 있었다. 전의장은 축사에서 "대구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지방의정사의 산증인이며 사관의 후예이기도 한 속기사의 역할이 지방의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지방의회 속기사들의 지위향상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했다.

마지막으로 축사에 나선 전국 시·군·구의회의장이자 각 시도대표협회 회장인 김형수 서울 영등포구의회 의장이 내무부장관을 만나 속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일반직으로 전환해줄 것을 건의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참석한 지방의회 속기사들로부터 뜨거운 갈채를 받았다.

주제발표는 특강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21세기 의회사무직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이수만 박사의 강의를 있었고, '공직자로서의 예절'은 한국프로토콜스쿨 서자원 대표가, '정보화의 동향과 회의록 문헌검색'이라는 주제는 문화체육부 정보화추진위원으로 있는 김덕준위원이, '지방자치 2년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내무부 지방자치기획단에 근무하고 있는 채홍호 사무관이 발표했다.

이수만박사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사무직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의회의 산 증인이라 할 수 있는 속기사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이며, 특정 부서에 근무하는 관계로 인사상 애로점이 많은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승진에 대한 배려와 집행 부서에의 보직순환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서자원 대표는 지난 8월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강의를 맡아 속기사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속기사가 의회에 근무하면서

지방의원들을 상대로 한 의견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만큼 말 한 마디 행동 하나에까지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덕준 위원은 지방의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회의록 전산화의 기본방향과 검색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정보화시대 속기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켰으며, 채홍호사무관은 2년간의 지방자치 실시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내무부에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지방의회 속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담당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 세미나 준비 상황

처음 세미나를 시작할 때와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는 프로젝트를 이용한 프리젠테이션이 있었는데, 여기서 지방의회 속기사들의 능력이 한층 돋보였다.

프로젝트는 2대를 설치하였는데, 한 대는 정면 강단 스크린에 비추었고, 다른 한대는 왼쪽편에 스크린을 설치하여 강의 도중 강사의 모습을 확대하여 비춤으로써 뒤에 앉아 경청하는 참석자들에게도 강사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 주었다. 세미나장 바깥 접수대에도 컴퓨터를 설치, 비디오 카메라를 연결하여 세미나장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볼 수 있게 하였다.

프리젠테이션은 대한속기협회가 그동안 한 일들을 중점으로 하여 속기사들에게 단합된 의지를 보여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들로 영상은 오쇼웨어와 프리미어, 파워포인트로 만들었으며 음성은 별도로 테입에 녹음하여 방송실을 통해 방송했다.

특히 대한속기협회 활동사진과, 제2회, 제3회 속기학술세미나에서 찍은 사진, 지방의회 속기사들의 활동사진을 CD-ROM에 담아 참석자들이 쉬는 시간에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국 지방의회속기사협의회의 6개월

간 활동 내용들로 꾸며진 보고회에서는 뜨거운 감동을 자아냈다.

세미나를 준비한 측에서는 최대한 참석자들의 편의를 제공했는데 아침 시간 승용차를 공항에 대기시켰는가 하면, 세미나가 끝날 무렵 버스 2대를 역과 터미널에 각각 운행하였다.

3. 제5회 전국 속기 경기대회 및 평가

세미나와 함께 제5회 전국 속기 경기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사전에 각 지역별로 3명씩의 참가자를 신청받아 치러졌다.

두 종류의 문제중 경기대회 직전 하나를 선택하여 협회 김점동 이사의 낭독으로 참가자 전원 수필 속기로서 5분 속기후 60분 변문하였다.

이번 경기 대회에서는 변성수(경상북도 의회)씨가 금상을, 조영선(충북 청주시 의회)씨가 은상을, 장미남(충북 청주시 의회)씨와 이정선(경남 합천군 의회)씨가 동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지적된 문제점은 세미나 개최 장소가 대구에 집중되었다는 것이었고, 내무부 교육, 국회의정연수원 교육 등과 연계하여 너무 잦다는 의견도 있었다.

본 세미나를 통해 참석한 지방의회 속기사들에게는 6년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이제는 행정가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지방의 속기사들에게 신분상 변화가 오고 있음을 예시했다.

제4회 속기학술세미나를 마치고

정 선 량

정축년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11월 중턱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 11월 5일 대구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서 제4회 속기학술세미나가 있었다.

국제회의장을 가득 메운 전국 속기사 여러분들을 보는 순간 이렇게 단합된 힘을 과시한다면 우리가 이루어내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지방화·정보화시대 속기사의 사명과 역할'에 대한 매우 유익한 강의를 경청했다.

특히 한국프로토콜스쿨 대표 서자원님의 '공직자로서의 예절'에 대한 강의는 너무나 편안하고도 인상적이었다.

퇴근할 때 늘 "먼저 가겠습니다"라는 말이 먼저 튀어 나왔었는데 "내일 뵙겠습니다"로 당장에 고치게 되었고, 아침인사도 큰소리로 밝게 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이제는 권위적이고 차가운 분위기로 대하기보다는 따뜻한 눈빛으로 직장 동료들에게나 상사분들에게도 늘 플러스 심리를 심어주는 이미지 변신을 스스로 해야 되리라 생각한다.

그날 행사장에 설치한 멀티미디어나 회의록 전산화에 대한 관심 등, 이것만 보아도 얼마나 속기사들의 수준이 높아졌는지 한 눈에 알 수 있었

다.

그리고 세미나 참석은 물론 숙기를 하는 데 있어 열악한 근무여건을 조금이나마 개선시켜 주기 위해 음으로 양으로 열심히 후원해 주시고 세미나 뒷풀이 자리까지 함께 하시면서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성천영 이사장님을 비롯해 한동춘 이사님, 김점동 이사님, 총무처 조대성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밖에 세미나 준비에 너무나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도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다.

그 분들 덕분에 숙기직 신설이라는 서광이 조금씩 비치기 시작했고, 우리 숙기사들은 더욱 더 맡은 직무에 충실을 기하고 전문가답게 월등한 실력도 갖추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다. 유능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자연히 그 존재가 드러나게 된다는 뜻이다. 우리 숙기사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역시 숙기사들은 다르다"라는 말도 들어보고 여러 사람에게 인정도 받는 숙기사가 되도록 더욱 정진하자.

지푸라기를 잡았다고 살아남는 게 아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 지푸라기를 잡고 옥지까지 도착해서 착지할 때까지 안심해서는 안되고, 안일해서도 안된다. 세미나장을 한마음으로 가득 메울 수 있었듯이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 끝까지 뒤에서 성원해 주고 적극 동참해 주는 것 또한 앞으로 우리가 다같이 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해 본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속기, 속기인이여

제4회 속기학술세미나에 부쳐
장혜경

글 빠른 이들이여!
어린 아기 걸음마 배우듯
가나다라 익히며 견뎌온 인고의
나날들
서로 안고 부둥키며 눈물 달래며
여기까지 왔네

지방의회 뿌리를 다지는 산실의 장
그 장을 영원히
기억되게 하는 우리
글 빠른 이들이여~

고성의 나타전 속에서도
묵묵히 제 일을 수행하는 우리는
고함 오가던 의원 떠나고
새로운 의원 들어오고
또 그러하고
그러해도
변함없이 회의장 한 가운데를

나즈막한 펜소리 하나로

지키고 있는 우리는
지방의회에 영원한 주춧돌

남영주, 정읍, 보령,
대전, 강릉, 서귀포....
코케속정 빌고
비행기 빌어

월월 날아오는 이들의 뜨거운
가슴
지방의회 사관들이여
열정의 사관들이여
그대들의 자긍심
하나되어 역사를 잇는다.

그대들의 빠른 손놀림에
의회역사는 비로소 기억에 남는것

영원히 빛날 우리 속기사들이여
그 앞날에 무궁한 발전 있으리

(서울 서대문구의회)

네 바퀴의 조화

윤진훈

내 역할은 과대평가하고 상대방 역할은 과소평가했던 시절

국회법에서는 국회의 입법·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국회사무처법은 국회의 입법보조업무와 행정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속기·경위·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러한 업무를 맡도록 하고 있다.

국회와 같은 회의체 조직에서 기록의 중요성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다. 따라서 국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회의·위원회의 모든 의사는 속기방법에 의하여 기록, 의장 또는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속기직의 역할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네 개의 직렬 모두가 소중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이들을 네 바퀴를 가진 자동차에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다.

네 개의 바퀴는 자신의 고유한 역할이 있어서 한 개의 바퀴만 빠져도 앞으로 굴러갈 수가 없다. 혹시 굴러간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곳으로는 갈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네 바퀴가 자기 바퀴만 중요하고 다른 바퀴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여 다른 바퀴들의 기력이 약해져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다.

또한 오른쪽 앞바퀴이면서 왼쪽 뒷바퀴인 체 하는 사람, 왼쪽 앞바퀴이면서 오른쪽 앞바퀴인 체 하는 사람, 오른쪽 뒷바퀴이면서 왼쪽 앞바퀴인 체 하는 사람, 왼쪽 뒷바퀴이면서 오른쪽 앞바퀴인 체 하는 사람이 있었던 때도 있었다. 아마 그래야만 살아가는 데 편리했던 모양이다.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서로의 역할을 과소평가했던 시절의 이야기이지만 말이다.

전문직으로서의 직업윤리를 갖자

그러니 이제는 그래서 안된다고 본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모여서 일하는 조직이 있다고 하더라도 난방을 담당하는 직원이 혹독한 추위에 난방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소중한 사람일지라도 모두 얼어죽고 만다. 오후 2시에 중요한 본회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원을 모시는 운전기사가 없으면 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다. 그리고 회의가 시작되었더라도 속기할 직원이 없으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지 않겠는가? 모두가 소중하고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의 역할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 줄 때 국회의 의정활동도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서로 닦아주고, 조이고, 기름칠을 해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항상 달리고 싶을 때 달릴 수 있는 것이다.

지금 국가는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하여 '경제신탁통치'에 들어가고, 국가경쟁력 추락, 규제왕국, 부패공화국, 돈과 뺨만 있으면 지상의 천국 등의 낙인이 찍혀버린 오늘의 우리 위치가 한없이 부끄럽고 서글퍼진다. 아니! 다시 뛰어야 한다.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우리 모두가 변화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

헤라클리투스는 "변화하는 것이 바로 안정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네 바퀴가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로 굴러갈지 모르는 세상이 온 것이다.

즉, 전문직으로서의 직업윤리를 가져야 한다. 근본적인 직업윤리의 목표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성실성을 갖추는 것이다. 이러한 직업윤리를 가져야 자신의 내면적 가치와 직무수행에서 실천하는 가치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지를 점검하는 자기 반성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네 바퀴의 성실한 조화를 통하여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고, 참여하는 가운데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다할 때 모두가 승리자가 되어 경쟁력 있는 입법부의 네 바퀴가 되리라고 확신한다.

(국회사무처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호주 의회 연수 보고

조 미 경

>> 들어가며

지난 '96년 8월 12일부터 한달간 진행된 호주연방의회 연수는 의회사무처에서 준비한 일정과 연수방식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번 연수일정에는 우리 국회에서는 본인과 위원회에 근무하시던 사무관 한 분, 그리고 모잠비크(Mozambique)의 국회의사무총장(Secretary General)이신 시뵘보(Mr. David Sibambo)씨와 함께 하였는데, 연방의회와 사무처 연수는 의회에 관한 정보수집과 아울러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의회연수가 주로 하원사무처를 중심으로 업무의 전반적인 것을 접하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속기업무 연수에 많은 시간을 할애받을 수 없었다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본회의 참관 및 공청회에 참관하여 실제로 기록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었고, 또한 방송시설 및 컴퓨터 시스템 등의 시찰을 통하여는 상호유기적 연결로 업무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하에서는 호주의회에서 입수한 자료와 또 호주의회 인터넷 웹사이트 검색을 토대로 해서 속기업무를 비롯한 전반적인 호주의회에 대해서 고찰해보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소감을 피력하고자 한다.

>> 연방의회

의회의 구성

하원의원 148명과 상원의원 7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1996년 3월 총선에 의해서 두 달 후인 5월에 제38대 국회가 개시되었다.

하원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하원의원 148명은 유권자 7만9,000명당 1명의 의원이 선출되는 것이며

의원의 임기는 3년이다.

·1918년 이래 투표자가 선거후보자 의 선호를 제1위, 제2위, 제3위 등으로 순위를 연기하는 선택투표제(preferential voting)가 시행되고 있다.



·정당별 의석분포(1997년9월30일 현재)

1) LP 75 Members

NP 18 Members

CLP 1 Member

ALP 49 Members

Ind. 4 Members

PHON 1 Member

·하원의원의 보수

기본봉급과 수당으로 구분되어지는데 기본봉급(Basic allowance)은 연 \$80,251이고 유권자 수당(electorate allowance)은 연 \$25,540에서 \$37,035이다. 그래서 Total \$105,791에서 \$117,286이다.

그 외 교통수당(Travelling allowance)이 있다.

·하원의 주기능

-내각구성권한

-법률안 발의권 및 심의권 예산지출 통제권

-정부정책 및 집행의 조사

-주요현안에 대한 토의 및 민원처리

·입법과정

하원과 상원의 Legislative Process를 도식화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서 각각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다시 하원은 상원으로, 상원은 하원으로 보내져서 최종 검토가 끝나면 총독

(Governor General)에게 송부되고, 인준을 받으면 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Main Committee 소개

최근들어 의회의 변화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으로 Main Committee의 신설을 들 수 있는데 이는 1994년 2월 운영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알 수 있다.

·Main위원회란?

Main Committee의 본질은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건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하기 위한 위원회이다.

'second chamber'라는 용어가 가끔 사용되어지는데 이것은 Main Committee의 기능과 중요성을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나 그 역할을 직설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Main Committee는 하원의 확장이라 할 수 있으며 안건의 심사가 공동으로 논의되어지도록 평행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Main Committee는 하원의 가장 큰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며, 이 방은 새로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새로 설치하였다.

하원의원은 누구나 Main Committee의 구성원이 될 수 있으며, 위원장(Chair of the Committee)은 부의장(Deputy Speaker)이 맡으며 위원장은 부부의장(Second Deputy Speaker)과 의장 전문위원단의 지원을 받는다. 여당 총무가 장관과 야당총무 및 비교섭의원의 협의를 거쳐 상정의제를 결정한다.

의사정족수는 위원장과 여당 및 야당의원 1명씩을 포함하여 3인이다.

·Main Committee의 역할

Main Committee는 의사일정의 한정된 범위를 담당할 수 있다. - 특히 Second Reading과 법안의 세부심사단계, 위원회에서의 논의, 대표보고서, 하원에 제출된 문서에 대한 논의 - 이러한 의사일정은 Main Committee에서 참고되거나 하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데, Main Committee의 시간은 본회의 일정과 교대로 이루어지고 Main Committee

는 하원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단계에서 수정안을 포함해서 동의안의 심의·의결 및 법안심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Main Committee는 하원의 종속체이며 여기서 결정된 어떠한 안건도 다시 나중에 하원의 결정에 의해서 확정된다.(결정권은 하원에 있다)

·회의는 언제 개최되는가?

Main Committee는 일반적으로 회기 중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에 서 오후 1시 사이에 개최된다.

이 시간은 의사일정의 필요에 따라서 연장될 수 있지만 실제로 Questiontime(대정부질문시간)에는 열리지 않는다.

상원(The Senate)

·상원의원은 모두 76명으로서 6개의 주(State)에서 각 12명씩 72인과 2개의 특별구(Territory)에서 2명씩 4명의 상원의원이 선출된다.

·주에서 선출된 상원의 임기는 6년(3년마다 선거를 실시하여 1/2씩 retire됨)이며, 구에서 선출된 상원의 임기는 하원의원과 같은 3년이다.

·선거 방법은 1950년 이래 비례대표제이다.(proportional representation)

·정당별 의석분포(1997년9월30일 현재)

LP 31 Senators

NP 6 Senators

ALP 28 Senators

AD 7 Senators

GWA 1 Senator

AG 1 Senator

Ind. 2 Senators

의회사무처

연방의회 사무처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양원에 공히 지원하는 기구로는 기록국

(Department of

Parliamentary

Reporting Service), 관리국(Department of Joint House), 도서관(Department of Parliamentary Library)이 있는데 다음에서는 속기업무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Hansard(속기) : Hansard는 기록국(Department of Parliamentary Reporting Service)의 한 분야이며, 기록국에서는 속기(Hansard)를 비롯한 의사록 발간 및 배부·보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Hansard란 의사록을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의 공식적인 명칭은 Parliamentary Debates이지만 호주에서는 Hansard라는 용어가 사용되며 Hansard라는 단어는 영국의 최초의 출판업자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다.

의원들의 발언을 기록하는 Hansard는 어느 정도까지는 교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반복되는 문장의 삭제라든지 문법적인 오류를 범했을 때의 수정 등이다. 그러나 발언의 본질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기록업무 담당 속기사는 모두 25명으로 대부분 컴퓨터 속기를 하고 있으며, 기술적인 발전 및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다.

90년대에 들어와서 컴퓨터시스템으로 업무를 전환할 때 비용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고, 효율성 등 비용에 따른 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다고 관계자는 전하고 있다. 말하자면 변화의 욕구와 도전에 직면한 적절한 대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원과 상원의 본회의 및 공청회에 참관해서 회의하는 모습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는데 본회의의 경우에는 1명이 5분씩, 공청회 및 위원회의 경우에는 20분씩 기록하며(컴퓨터속기의 경우는 본인의 steno-machine을 가지고 회의장에 입장함), 기록 후 사무실로 돌아가 번문작업에 임한다. 본회의에는 주임속기사(Chief Hansard Reporter) 2명이 1시간 30분씩 교대로 참석하여 회의의 제반상황을 체크한다.

속기의 제반시설을 견학할 때 동행하여 설명해 주신 Bernie Harris씨는 주임속기사이며, 1964년에 국회에 들어와 30년 이상 근속하고 계신 분인데 그 분의 설명을 통해서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가 처리되고 있는가를 들을 수 있었다.

>>신국회의사당(New Parliament House) 시설 소개

1988년 5월 9일 설립되어 1988년 8월 22일 이곳에서의 첫 회기가 시작된 신 국회의사당은 총 면적 32ha의 거대한 부지에 세워진 Canberra의 명소이다.

건물 자체는 정면에서 보면 마치 접시를 얹어놓은 듯한 모양이며 그 앞에 수직으로 곧게 세워진 높이 81m의 국기 게양탑이 인상적이다.

정면 입구의 정원에는 원주민 애버리지니 예술가에 의한 멋진 모자이크가 있다. 일반인들은 Foyer(현관로비)·메인 홀·상원·하원 등을 견학할 수 있다. 의원 홀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지만 가운데가 훤히 뚫린 2층에서 구경할 수 있다.

의사당 건물로 들어가면 온통 대리석의 세계로 흑색·백색·적색·회색의 대리석이 건물 곳곳을 장식하고 있다. 또한 2층에는 이 건물에 사용된 대리석들을 전시해 놓은 방도 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국기 게양탑 바로 아래의 테라스로 올라가면 캐피털 힐을 중심으로 펼쳐진 산과 시가지와 호수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상원과 하원은 각각 붉은 색 카펫과 푸른 색 카펫으로 구분하고 있다.

Parliament House에는 Senators(상원의원)와 Members(하원의원)를 비롯한 그 staff들, 그리고 Parliamentary staff(국회직원) 약 1,400여명, 그리고 부속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포함해서 약 3,200명이 근무하고 있다.

>>끝맺으며

지금까지 호주의회의 대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번 연수는 호주의회에 대한 정보수집은 물론이거니와 호주민의 친절과 정성, 그리고 그들의 합리성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의회사무처에서 준비한 연수일정에 따라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 보통 오전 9시30분에 국회에 출근해서 오후 4시30분까지 주로 각 부서를 방문해서 브리핑을 받고 질문·응답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시설 견학의 기회도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중에서 캔버라시내에 있는 옛국회의사당(Old Parliament House) 방문을 통해 과거의 자료 및 시설 등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선거교육센터(Electoral Education Center)를 방문해서는 그 곳에 견학 온 호주의 초·중등학교 학생들과 같이 선택투표제(Preferential voting)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의투표를 해보기도 하였는데, 교육센터의 1년 스케줄이 각급 학교 학생들의 방문일정으로 꽉 채워져 있었다.

때때로 주어지는 free time에는 호주·모잠비크·한국 등 서로 다른 문화권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야기 꽃을 피우기도 했는데, Mr. Sibambo씨를 만나게 됨으로써 아프리카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또 하나의 선물이었으며, 그 분의 빼어난 유머감과 특유의 위트는 그 후로도 계속 즐거운 추억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이름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분들을 만났고, 그 분들은 모두 우리 연수자 3명이 일정수행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늘 친절했고, 협조적이었으며,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 그 중에서도 하원사무처 방문 첫날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신 Lyn Barlin 총장님, 그리고 우리들을 자택으로까지 초대해 주신 Ian Harris 차장님과 Bernard Wright 의사국장님, 그리고 시내관광에 동행하셔서 안내해주신 Ian Cochran 의사부국장님, 우리의 모든 일정을 일일이 챙겨준 Mrs Elizabeth Robertson 여사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이번의 호주의회연수를 통해 내 인식의 지평이 한층 더 넓어진 것을 느끼며 부족하나마 글을 맺는다.

(국회사무처 속기1과)

초창기의 의회속기 비망록

한 철 영(본명 : 한구영)



의문시되는 박여일의 "조선어 속기법" 창안 연도

우리말 속기의 탄생 기점은 대개 1908년에 '조선어속기법'을 창안했다는 재미교포 박여일(Park Yale)씨와 1923년 중국 상해에서 김두봉이 '날적말 적기 약기법(略記法)'을 발표한 때를 들어 정설로 삼고 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가 한결같이 실용단계의 속기법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속기의 효시라고 규정할 수 있을지 개운치 않은 구석이 있다.

그러면서도 역설적으로 만약 일제의 압제가 없는 환경이었다면 이들이 실용화에 성공했을지도 모른다는 가정에서 볼 때 그들의 창안을 일단 높이 사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용화되지 못한 속기법을 과연 속기로 볼 것인지 그 여부는 앞으로 한 번 따지고 넘어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전제 아래 이 두 사람에 관해 나름대로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적어 본다.

박여일씨는 1947년 과도입법의원 시절 나에게 서한을 보내오으로써 그가 '조선어속기법'을 창안한 사실이 속기계에 알려진 인물이다. 이제껏 김두봉이가 한국속기의 비조(鼻祖)로 알려졌던 사실이 무너지는 순간이 되었다.

당시 입법의원 중에 재미교포 출신인 김평, 김원용(샌프란시스코 거주) 의원이 일시 귀국하여 관선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은 일제시대 당시 반이승만 단체인 '북미 대한인 국민회'의 핵심간부로 활약하며 재미교포 사이에 널리 알려진 독립운동가였다.

나는 우연하게도 김호 의원과 절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 분이

박여일씨로부터 문의를 받고 한국에도 속기사가 있다는 사실과 함께 나를 소개한 것이었다.

이같은 인연으로 박씨와 여러 차례 문통을 하게 되었는데 그는 이민 2세였고 보내온 사진으로 보아 60세 전후의 온화하고 건강한 인품이었다.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던 그는 미국속기 그렉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현역속기사로 활약하면서 아마도 그렉식을 기본으로 하여 조선어속기법을 창안하게 된 것으로 짐작이 갔다.

한글의 모음·자음·받침을 비롯한 여러 가지 속기예문을 속기문자로 써서 보내주어 받아본 기억이 난다.

박씨가 써서 보낸 한글편지는 몹시 서투르기 짝이 없었지만 어쨌든 해방조국을 예견하고 우리말 속기법을 비록 실용화에 성공하지는 못했을망정 창안에 열의를 보였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어서 나 자신 조금은 흥분할 수밖에 없었다.

한번 귀국하여 우리들을 만나보기로 하였으나 끝내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말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그의 발표년도라는 1908년이 아무래도 석연치 못한 면이 있다. 이 연도가 이조말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의 서신을 받은 내가 오기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후배들이 잘못 기록했든간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 연도 문제는 어떻게든지 바로 잡아나 가야 할 일이다.

한편 김두봉은 젊은 날에 한글학자로 활약할 때부터 속기법 창안에 열의를 갖고 책자 <날적말 적기 약기법>을 발행하였다. '날적말'이란 새가 날듯이 빠르게 적는다는 뜻이 함축되었다는 것이며, '약기'란 것도 문자 그대로 "축소된 속기문자로 축자하여 쓴다"는 것을 말한다고 그 책 서문에서 읽은 기억이 난다. 그러나 그 자신이 이 약기법을 얼마만큼이나 실용하였는지는 알 길이 없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일제말 훨씬 이전에, 그것도 외국에서 우리 속기법을 창안했다는 사실만은 주목할 일이다.

이들 이외에 일제말기에 일본어 속기실무에 종사하고 있던 조선인 가운데 몇 분이 미구에 일본이 패망할것을 예견하고 우리말 속기법을 창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뚜렷한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는지 알길이 없다.

일제말기 언론사 지방국과의 기사 송수신은 속기사의 몫

태평양전쟁 말기에 조선에서는 일본속기가 주로 언론기관과 개인이 개업한 속기사무소(서울에 2개소가 있었음)에서 활용되고 있었고, 이에 종사한 조선인 속기사가 10여명이 있었다.

언론기관에는 <경성일보>(현 서울신문 전신)의 박인태, <동명통신>의 김천한<모두 와세다식>, 나카네식(中根式)을 구사한 강준원(해방후 동아일보)이 일본신문사(이름은 알 수 없음)에 근무하고 있었고, 속기사무소에는 대구 출신인 이용길(법식 알 수 없음)이 있었다.

당시의 언론기관은 지국과의 기사송고를 통신에 의존하지 않고 편집국에 '연락부'라는 부서를 두고 전화를 통하여 속기사가 송·수신을 하고 있었다.

당시 와세다식 속기를 통신교육을 통하여 1년여 동안 연마한 나는 실습 지도를 받기 위해 김천한·박인태를 직장으로 찾아다니다가 언론기관의 속기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다.

속기사무소에 관해 이용길을 통해 해방 후에 들은 바에 따르면 속기 수요가 강연회·좌담회 속기 등에 치중되어 일거리가 제법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보면 우리말 속기는 엄밀히 말해 해방과 더불어 개발·창안되어 실용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창안자가 거의 일본어 속기사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해방이 되면서 향후 정치체제가 의회민주주의제로 채택될 것이 확실해짐에 따라 속기 수요가 필연적일 것이라는 점을 간파한 이들은 자기들이 구사하고 있던 속기법을 참고하여 간난신고 끝에 각각 자기 속기법을 완성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국회 회의록 작성을 최초로 제안한 김규식 박사

이들이 창안한 속기법이 실전장에서 실용화될 수 있는 기회가 마침내

빨리 찾아오게 되었다.

1946년 12월 12일에 개원한 남조선 과도입법위원이 회의록을 속기로 기록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비로소 속기계가 형성되는 역사적인 경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입법위원은 정원 90명(전국에서 간접 선출된 민선 및 임명직 관선위원이 각각 45명)으로 구성되었고 의장은 김규식 박사였다.

구미제국 의회제도의 골격을 그런대로 도입한 입법위원은 8개 상위와 6개 특위가 있었고, 이듬해 4월 폐원되기까지 50여개의 법안을 제정 통과시키는 실적을 남겼다.

그러나 의회제도 및 조직은 갖추었다 할지라도 이를 운영하고 추진할 공무원 중에는 역시 해방되고 1년여가 경과된 시점이었던 만큼 짐짓 초보 일망정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인재가 있을 턱이 없어 인재난이 심각한 고민거리였다.

그런 와중에 속기에 대한 개념조차 알 리가 없는 상황에서 회의록을 속기로 하자고 제안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궁금해 질 것이다.

의장 김규식 박사는 미국 유학시절에 미국속기를 손수 한 분이라고 들었다. 속기에 대한 이해가 깊었기 때문에 그가 사무처에 속기사를 구하라고 지시한 장본인이었던 것이다.

속기에 대해 이해할 리 없는 사무처 실무진은 속기사가 있거나 한지 우선 수소문이라도 해보려는 무렵에 때마침 속기사 3명이 제발로 그들을 찾아 들이닥친 것이다. 이들 3명은 입법위원이 속기사를 구하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의회속기의 필요성을 강조, 설득하려고 여러 자료를 준비하고 이날 예고없이 찾아갔다가 오히려 환대를 받는 꼴이 된 것이다.

강준원·박인태·김천한 세 사람이 바로 그 주인공이었는데 이들이 전격적으로 채용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리하여 한국속기의 요람이 마침내 그 막을 올리게 된 것이다.

당초 속기사 정원은 10명으로 결정되었으나 충당할만한 인원이 있을 리 없었다. 그 후에 다소 시일의 간격을 두고 4차로 나누어 충원이 되었지만 초기에 채용된 사람은 거의가 강준원으로부터 개인지도를 받은 제자들이었다. 그 면모들을 알아보자.

1차 : 상기3명

2차 : 박희선, 금학헌, 서정록, 김상호(모두 서울식)

3차 : 이용길(독자식), 박상태, 한철영(중앙식), 김용환, 이길현(서울식), 허수(일파식)

4차 : 입법의원 말기에 실습생으로 정원도, 김진기(일파식)

당시 속기사는 당초에 비서처 문서과에 소속되었다가 얼마 후에 사무처 의사국 의사과 기록계로 배속되었으며계장은 강준원이었다.

작성된 원고는 계장이 통독 후 편집 담당자를 거쳐 인쇄에 넘기는 시스템이었다.

개원 초기의 본회의장은 그야말로 불꽃 튀기는 토론장이었고 해방 후 최초의 의회답게 의욕과 정열이 넘치고 있었다. 그래서 본회의와 상위가 거의 매일 개최되었으며 그것도 종일회의가 태반이었다.

속기사는 본회의에 국한하여 배치하였으나 속기량의 과부하로 과로가 쌓이기 시작하였다.

속기사가 7명일 때는 계장까지 속기석에 배치되었다 하는데 길어진 회의시간에 비하여 적은 수의 속기사가 이를 소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어 처음부터 문제점을 안고 출발한 셈이었다.

당초에 속기배치는 2인 1조로 30분씩 기록하도록 했으나 하루에 두세 번 배치될 때가 흔하였다 하니 그 고충이 얼마나 컸을까……

이쯤 되니 반문할 시간 여유가 있었겠는가. 결국 회의록 간행이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되자 문제는 심각한 국면을 맞게 되었다.

1회기(20여일)를 마치고 나서 따져보니 반문량이 자그마치 3개월이 소요돼야 완성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더라는 것이다.

고민한 끝에 고위층에 보고하기에 이르렀는데(사무처는 의장에게까지 보고) 결국 속기사가 충원될 때까지 잠정조치로 주요 회의록은 완벽하게 반문하고 보통 안건에 대해서는 약기형식으로 작성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한다.

이 잠정조치는 3차 인원이 충원될 때까지 시행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

며 그 때까지 간행된 회의록은 결국 질름발이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잠정조치가 취해지게 된 배경에는 역시 김의장의 배려가 작용했다는 후문이였다.

반문시간이 걸린다는 애로를 이해하는 김의장이 있음으로 하여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는 것이다.

김의장은 속기사를 가리켜 '속기원'이라고 호칭하였는데 그는 비단 속기문제뿐만 아니라 의회운영 방법에 있어 전혀 백지상태이던 의원에서부터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문제점이 노출될 때마다 해법을 제시하고 원활히 운영되게 하는 데 백과사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의원 중에 의사진행을 잘못하거나 발언하다가 실언을 할 경우에 즉각 이를 시정시키는 일은 전적으로 그의 몫이었다.

처우개선 위한 최초의 속기중단

3차 인원이 충원된 후부터는 속기시간이 10분 교대로 변경되었고 회의록도 정상간행이 이루어졌으나 속기 부하량이 많은 경우에는 대개 각자가 3일치 반문량을 떠안게 될 때도 있었다.

이럴 때는 야간작업이나 휴일근무를 하여 마무리짓곤 하였다.

그러다가 개원 2년째 접어들자 속기부하량이 갑자기 불어나는 사태에 당면하게 되었다.

본회의가 종일회의로 이어지는 바람에 반문량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과로가 겹쳐 결근자가 속출하는 국면을 맞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속기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탄원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속기사 대우는 일반기술직 공무원 급여에도 미달하는 박봉이었으며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따위는 제도 자체가 없었다.

사무처는 속기사의 격무는 이해하지만 재원이 없다는 핑계로 우리의 탄원을 일축하여 결국 우리들은 강경수단인 줄 알면서 어쩔 수 없이 속기중단으로 맞대응하여 불미스러운 사태를 맞게 하였다.

그리하여 약 10일 동안 속기없는 의회가 파행적으로 진행되었다.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속기사가 없는 동안에는 임시방편으로 임시정부에서 서기로 일했다는 임정요인 김봉준의 따님이 약기로 작성하여 속기공백기를 커버하였다.

사무처는 속기사에게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여타 직원의 사기에 영향을 준다고 우리의 탄원을 계속 묵살하므로 사태는 원만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평소 나를 아껴주던 이상국 사무처장을 방문하여 진의를 파악해보자는 권고가 동료간에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내가 새벽녘에 돈암동에 있는 이처장 사저를 방문하였는데 그는 나를 반갑게 맞으면서 곧 전반적인 급여조정을 할 예정이니 그 때 속기수당도 반영하겠다면 우선 정상근무할 것을 간청하는 것이었다.

결국 우리들은 그의 말을 믿고 이튿날부터 정상근무로 복귀하였다. 그러나 속기수당 신설은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고 제헌국회 들어서서야 겨우 실현을 보게 되었다.

1948년 봄인 것으로 기억되는데 최초로 국회 속기사 채용시험이 실시되었다. 시험과목은 상식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실기에 있어서는 신문논설과 국회속기록 2종류를 낭독한 것을 속기반문하는 것이었다.

제헌국회 시절의 속기실상

역사적인 제헌국회가 개원되기 전에 속기사 충원이 피치를 올리고 있었다. 그 당시 이미 몇몇 속기학원이 개강을 하고 인재양성에 열을 올리고 있었지만 실력을 갖춘 속기사가 그리 간단하게 단시일에 탄생되기는 쉽지 않았다.

속기학원 중에 최초로 속성교육을 기치로 내걸고 출발한 곳이 일과속기학원(원장 장기태, 와세다식)인 것으로 기억한다.

그 뒤를 이어 고려속기학원(원장 김천한), 중앙속기학원(원장 박인태), 서울 속기학원(원장 강준원)의 순으로 개원을 했고 기타 몇 군데서 속기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1948년 봄인 것으로 기억되는데 최초로 국회 속기사 채용시험이 실시되었다. 시험과목은 상식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실

기에 있어서는 신문논설과 국회속기록 2종류를 낭독한 것을 속기반문하는 것이었다.

1분간 300자 내외의 속도로 각각 10분씩 낭독되었는데 낭독자는 김용환이었다. 이 시험의 관문을 뚫고 채용된 신예는 정원도, 김진기, 장덕근(일파식)이었고 그 얼마 후에 실시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한봉영, 류호룡, 이종호(서울식) 등이 있었다. 그 이후에도 채용시험을 통하여 여러 명이 합격되어 제헌국회 속기진은 약 20명으로 대폭 강화되었다.

직제도 개정이 되어 의사국 기록계가 '속기계'로 개칭이 된데다가 회의록 간행업무를 전담할 편찬계가 신설되었고, 속기계장은 역시 강준원이었다.

속기록 작성은 역시 2인1조로 하고 10분마다 교대하였으며 본회의에만 배치되었다.

제헌국회가 개원되자 건국 터전을 다져 나가는 중대한 국면을 맞게 된 만큼 회의 분위기가 역시 의욕적이었는데 춘각을 다투는 심의안건이 하나씩 신중하게 처리되어 나가는 모습이었다. 그러다 보니 회의가 오전 오후를 가리지 않고 개최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속기 부하량도 덩달아 증척되었다.

제헌국회가 건국초기의 국회였던 만큼 때로는 의안심의가 심의절차상에 있어서나 의사진행법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한 흠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그럴 때마다 임정요인을 지낸 신익희 의장의 능숙한 조정과 지도로 정상궤도를 찾아서 국회의 기반이 차츰 다져지게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초창기를 겪는 속기 역시 크고 작은 기술적 결함이 속출되었고 그럴 때마다 이를 보완, 봉합하는 작업이 각 속기법에 따라 행해짐으로써 완벽을 기하도록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때나 지금이나 속기사는 발언의 반구라도 빠뜨려서는 안된다는 게 속기의 속성적 숙명이므로 이 철칙을 지키기 위해서 겪어야 했던 고충들이야 어디 한두 가지였겠는가.

몇 가지 사례를 든다면

첫째, 일부 의원의 심한 사투리 섞인 발언을 만나게 되면 굴러가던 펜이 곤두박질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전혀 이해 못할 사투리에 걸리게 되

면 펜이 날뛰기 마련. 초창기였기에 속기문자가 사통팔달. 무슨 발언이든 쉽게 적게끔 고안되어 있지 못한 결함이 여지없이 노출되고 있었다.

그래서 발언빈도가 많은 단어를 추출하고 독립적인 속기문자를 새로 확정함으로써 미진했던 속기문자가 차츰 정착되어 갔다.

둘째, 고사, 속담과 지명, 인명 그리고 외국어 인용이 튀어나올 때가 가장 당황케 하는 순간이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일 때에는 별문제가 없었지만 2인1조의 상대방마저 해독을 못하게 되면 해당 사전을 뒤진다거나 연장자에게 문의하는 등 법석을 부리기 마련. 그렇게 해도 정답을 얻어내지 못한 경우는 부득이 발언 당사자를 찾아가 확인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쯤 되면 자존심이 건드려지고 어색해질 수밖에...

당시 일본의회 속기과에서는 이같은 난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박식다재한 논객을 자문역으로 두고 있었다고 들었다.

이제 그 당시 속기할 때 사용했던 문방구가 어떤 것이었는지 살펴보자. 입법의원 시절에는 가장 질이 좋다는 갱지를 A5판(국판) 사이즈로 재단된 것을 지급받았는데 이것을 30매 두께로 좌측을 끈으로 묶어 사용하였고 필구는 연필이었다.

갱지의 질이 나빠서 운필하기가 매끄럽지 못한데다가 연필도 속기하다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 대개 다섯 자루 정도는 예비한 후에 회의장에 들어갔다.

제헌국회에 들어와서 용지는 얇은 백색 미농지로 바뀌고 필구는 일본으로부터 도입된 속기용 연필을 각자 구입해 사용하게 되었다.

녹음기가 없던 시절이라 2인1조 배치가 주효하여 반문할 때에는 애매한 부분을 대조하면서 완벽을 기하였다.

반문용지는 이른바 양면패지 전면에다 종서로 기록하고 국한문을 혼용하였다.

헌법공포식과 대통령선거일에 생긴 일

1948년 7월 17일은 대한민국 헌법이 만방에 공포, 발효됐던 역사적인

날이다. 공포식은 국회의사당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앙청 1층 홀에서 경축식에 버금가는 행사로 거행되었는데 이승만의장의 사회로 미군정청 고위층과 내빈, 제헌의원 그리고 방청인이 참석한 가운데 그 실황이 전국에 라디오방송으로 중계되었다.

홀 정면 양쪽의 석조계단에는 어린이합창단이 도열하였고, 속기석이 있던 자리는 내빈석으로 바뀌어 이 공포식에 배치된 나와 김용환은 우측 석조 계단 아래로 밀려나 선 채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

속기용지가 미농지라 책상위가 아니면 용지가 흐트러져서 선 채로는 기록하기가 어려웠으므로 책받침을 받치고 기록했던 일이 인상에 남는다.

한편 헌법공포식이 있는 지 3일 후인 7월20일에 초대대통령선거가 의사당에서 실시되었다.

투표소가 두 개만 준비되어 의원들이 일렬로 장사진을 친 가운데 차례로 투표한 끝에 이승만박사가 마침내 선출되었다.

부의장이던 신익희선생이 이를 선포하자 방청석에서 갑자기 이승만대통령 만세를 외치는 여자 목소리가 터져 나와 의사당이 술렁거리게 되었다. 방청석을 힐끗 쳐다보니 한 노파가 경위에게 제지를 받아 의사당 밖으로 퇴장당하고 있었다. 그 후 설왕설래 들리는 바에 따르면 그 노파가 이박사의 첫째 부인이라고 하던가...

진해회담과 재판속기

진해회담은 1949년 8월 8일 동남아 제국이 반공보루를 구축하기 위해 이승만 대통령과 중화민국 장개석 총통이 진해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을 말한다.

건국초기에 반공제일주의를 국시로 표방하고 추진해 나가는 한국으로서는 진해회담이 전세계의 주목거리가 되기에 충분하였다. 그런 만큼 이 회담의 기록은 주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경무대(지금의 청와대) 당국은 이에 속기사를 투입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허수·김진기 두 사람이 진해로 급파되었고 회담의 사용용어가 영어와 중국어였기 때문에 그 통역한 것을 기록하는데 그쳤다고 들었다.

어쨌든 정상회담에 최초로 속기가 등장되었다는 사실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

한편 재판정에 속기가 등장하여 각광을 받게 된 것도 이 무렵이었다.

김구선생 살인범인 안두희 등 피고인과 증인심문공판이 있는 것이 1949년 9월이었다. 이 공판이 중앙청 2층 제1회의실에 10여일간 개정되었는데 재판장, 검찰관이 모두 미군장교였고 미군당국의 요청으로 국회 속기사가 대거 이에 차출된 것이었다.

우리들은 통역관의 발언을 속기하였고, 미군측에서는 여성 스테노그래퍼(Stenographer, 기계속기사)가 혼자 영어발언을 속기하고 있었다. 이른바 속칭 기계속기를 처음 구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때 속기료를 미군으로부터 지급 받아 과외수입을 처음 얻은 일이 기억난다. 결국 이 공판이 우리나라 재판속기의 효시로 기록되게 한 것이었다.

속기 전문지 <속기> 발행

이제까지 적은 것들은 기억을 더듬어 기술한 것이지만 귀중하게 쓰여질 자료가 6·25동란 와중에 분실되어 매우 안타까울 뿐이다. 그러나 아직껏 뚜렷이 인상에 남는 일 몇 가지를 적어본다면 실용속기법 창시자 가운데 강준원 같은 분은 속기법을 하나의 속기학으로까지 격상(체계화)시키려고 무던히 열중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속기에 관한 문헌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었다. 김두봉의 <날적말 적기 약기법> 책자도 보관하고 있었으니까... 일설에 따르면 생존시에 그가소장했던 문건 일체를 국립도서관에 기증했다는데 그 여부는 확인해 보지 못하였다.

제헌국회 당시 약관이었던 나는 속기를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속기의 위상을 높이는데 미력을 다하려고 광적이라만큼 정열을 쏟고 있었다.

동양3국에서 일본이 의회속기에 있어서도(문화, 언론, 산업계에도 속기 수요가 으뜸이었다) 선진국 수준이었기에 그들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일본 중의원 속기과에 문통을 하여 어렵사리 기관지 <속기>를 간혹 얻어 읽기도 하였다.

그 잡지에 따르면 그들의 속기법 연구가 부러울 정도로 활발하였고 속기학으로서 체계를 거의 잡아가는 단계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해외속기

계 소식란이 흥미를 끌게 하였다.

세계의회 중에서 제일 먼저 속기를 의회에 도입한 나라는 영국인데 초기의 영국의회의 속기사 역할이 인상적이어서 이제껏 잊혀지지 않는다.

내가 속기홍보 차원에서 최초로 착수한 일은 잠시간행이었다. 창간호는 <속기>라 제하고 프린트로 된 A5(국판) 32쪽의 것이 나왔는데 아마 250부가 발행된 것 같다.

간행비는 속기를 이해하는 의원 몇 분이 출연해 주어 충당하였고, 그중에서 이진수(경기 양주출신) 의원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기에 잊혀지지 않는다.

여담이지만 이진수 의원은 제법 발언도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자기가 발언한 속기의 반문원고는 반드시 손수 교열하고 되돌려 주는 세심파였다. 간혹 속기사 전원을 야유회에 가도록 원조해 주어 '친속기사와 의원(?)'이라고 우리가 늘 추앙하였다.

프린트잡지에 이어 B5판(4×6배판) 크기의 16쪽으로 인쇄체로 하여 2·3호가 속간되었는데 인쇄는 속기국을 도급인쇄 맡은 세종인쇄소에서 무료로 인쇄해 주어 햇빛을 보았다.

게재된 기사는 박여일씨의 서한을 비롯하여 속기에 관한 것이었고, 외부 기고문에서는 '출입기자가 본 속기'라는 읽을 거리도 있었다. 발행처는 속기계, 발행인은 강준원, 편집인은 나...

발행할 때마다 국립도서관, 종로도서관에 여러 부를 기증한 것 같은데 오늘날 찾아볼 수가 없다니 매우 안타깝다.

속기전시회 개최로 속기 홍보

한편 당시만 하더라도 속기에 대한 일반의 이해가 전무상태였기에 속기 실태를 대외에 홍보할 필요성을 절감한 나머지 나는 '속기전시회'를 기획, 전시물을 준비하느라고 동료들이 분담하여 구슬땀을 흘린 때가 있었다.

전시물이라야 고작 모조지 B0(46전지)에다 차드문자로 써서 벽에 부착하는 것에 불과했지만 전지 20매 분량을 똑같은 글씨로 써 나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전원이 한마음으로 열성껏 준비하였기에 화려(?)하게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전시물 내용은 ①속기의 소개 ②속기에 관한 문건과 자료 ③의원을 위한 자료로 나누어 준비하였다.

①은 '외국속기 약사' '우리 말 속기의 발달' '기본속기문자' 속기문자 반문원고의 원본 등, ②는 김두봉 저서 각종속기 교재, 기타 속기문헌, ③은 '회기중 의원별 발언회수' '의원별 발언속도' 등이었다.

전시물 중에서 하이라이트는 ③이었다. 관람자들이 전시물 앞에서 떠날 줄 모를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의원별 발언속도'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발언한 의원은 윤치영(서울 중구을 출신)씨로 1분에 320자가 넘을 때가 많아 과연 속사포를 방불케 했는가 하면 가장 느린 속도의 발언자는 서우석(전남 곡성 출신)의원이 랭크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전시회는 입법의원 말기와 제헌국회 2년초에 두 번 개최하였는데 개최 시일은 휴회기간이 지나고 새회기가 시작되기 2일 전에 개막하여 1주일 동안 개최하였다. 이는 휴회 중에는 의원들이 참관하지 못할 것을 배려한 때문이었다.

전시 장소는 중앙청 2층 소회의실을 두 번 다 빌려 사용하였다. 제헌국회 시절에 개최했을 때는 전시물 차드 작성을 달필인 정원도가 전담하여 마무리해준 것이 이제야 기억이 난다.

회의중 속기록 즉석낭독 요청에 등골 오싹하기도

이밖에 인상에 남는 일 가운데 본회의장에서 속기문을 낭독하도록 지시 받은 일이 떠오른다.

근래 국회에서도 이같은 사례가 있는지 과문탐으로 알 길이 없지만 입법의원 때부터 정파간에 중요사안을 토의하다가 과격, 불경,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하여 발언취소공방으로 비하되어 갑론을박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속기사가 애꿎게 등장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으레껏 의장이 속기한 기록을 속기사로 하여금 즉석에서 낭독하도록 하여 확인하는 일이 생겼던 것이다.

김규식의장이 "속기원! OOO의원이 발언한 문제된 부분을 낭독하십시오"

하고 지시하는 바람에 나도 한 차례 낭독해 준 일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제헌국회 때 서정록은 낭독 지시를 받고 혼쫓이 난 사람이다. 1950년 2월 이른바 국회 프락치사건이 터져 김약수를 비롯한 소장파 11명이 검거된 사건이 있었다. 그 주도인물이었던 노시환(전북 순창 출신)은 평소 발언할 적마다 적지 않은 파문을 던지고 있었다.

하루는 이대통령을 가리켜 왕정하의 군황이라고 혹독하게 몰아부친 다음 그의 명령은 짐즉국가라고 비난한 일이 있었다.

이에 맞서 정부 수립 이전에 이박사의 비서였던 윤치영의원이 이 노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아 발언취소할 것을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때 속기중에 있던 서정록이 문제발언을 낭독하라는 지시를 의장으로부터 받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5분여 동안 낭독하게 되었는데 '짐즉국가'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몰라 속기할 때부터 속기문에 퀘스천마크를 쳐놓기까지 했는데 막상 낭독하자니 막연하더라는 것. 어찌할 수 없이 발음대로 낭독하여 거의 위기를 넘겼다는 것이다. 낭독을 마치고 나니 온몸이 흠뻑 젖었더라는 것...

당시 속기석은 연단 밑에 의원석보다 훨씬 높게 마련되어 있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를 주시하는 의원들을 의식하면서 낭독한다는 일은 경험해 보지 못하고는 그 심정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리라.

한편 제헌국회 당시 속기사 중에서 속기의 정확도에 있어 가장 완벽하게 속기하는 능력의 소유자는 김용환이었다. 그는 속기원문을 마치 활자를 읽듯이 읽어내는 귀재적인 존재였다.

그런가 하면 박희선 같은 이는 속기는 제대로 기록하고서도 반문할 때면 해독을 못하는 부분에 봉착하여 곤욕을 치르는 케이스였다. 그는 일찍이 북경대학에 수학한 재사로 박식다재했는데 나와 한 조가 되었을 때도 속기를 마치고 사무실에 돌아오면 그가 반문에 막히는 부분을 대조해 주는 수고를 하였다.

대조해 주면서 알게 된 일이지만 속기 자체는 완벽한데 해독할 때 속기문자가 길고 짧음에 따라 단어해독이 달라지는 법인데 이 점에서 착각을 일으키는 듯하였다.

그는 그 후 그 유명한 김두환의원의 비서관이 되어 까막눈인 김의원의

충실한 보좌역을 하였다.

유진오 박사 제의 받고 구술속기

이제 국회 외곽에서 겪었던 일을 적어보기로 한다.

헌법학자 유진오 박사와 속기에 얽힌 이야기 한 토막!

유박사는 국회 헌법기초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서 헌법기초안의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948년 6월 3일부터 7월 12일 헌법이 확정될 때까지 그는 본회의에서 헌법 각 조항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과 함께 의원들 질문에 답변 등으로 발언빈도가 가장 높았다. 나는 유박사의 발언을 반문하다가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 이를 확인하고자 그를 두 번인가 찾아간 일이 있었다.

특위에서 헌법 초안이 마무리된 6월말경으로 기억되는데 유박사가 나를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전문위원실로 찾아갔다가 의외의 제의를 받게 되었다.

헌법해설을 한 책자를 간행할 예정인데 원고를 구술하겠으니 속기를 해 줄 수 있겠느냐는 주문이었다.

그리하여 구술속기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아마 이것이 구술속기의 효시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매일 저녁 원남동로터리에 있던 그의 2층 양옥을 찾아가 구술을 1시간씩 속기하였다(구술속기가 국회속기보다 훨씬 수월하다고 느끼면서...) 그의 서재에서 모시로 된 한복을 단정하게 입은 그는 선풍기를 밑찌막이에 틀어놓고 메모지를 보면서 강의조로 구술하고 있었다. 10여일을 속기해 나갈 때 쯤에 그가 초대 법제처장에 발탁되는 바람에 그 일은 결국 끝마무리를 짓지 못한 채 끝장나고 말았다.

그 얼마 후에 <헌법해의>라고 제한 그의 저작이 발행되어 한 권을 얻어 살펴보았더니 나의 원고는 온데간데 없어 불현듯 서운하게 느껴졌다. 다시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내 원고를 골격으로 삼아 기술한 곳이 여러 군데 발견되는 바람에 위안을 받은 일이 있었다.

따지고 보니 속기계를 떠난 지 어언 46년! 이 마당에 지난 날을 회상하니 감회가 새롭다.

후배들의 건투를 빌며 붓을 놓겠다.

남북대화 4반세기를 돌아보며

정 응 채

남북적십자 예비회담



1972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 최두선 총재는 특별성명을 통해 남북한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인도적 고통을 덜어주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재결합을 주선해 주기 위해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자고 북한측에 제의했다.

이 제의에 북한측이 동의함에 따라 그해 9월 20일 판문점에서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이 시작되었다.

당시 남북회담의 운영을 위해 새로 창설된 남북적십자회담사무국에서 남북회담의 기록을 위해 국회사무처에 속기사의 파견을 요청해 음에 따라 조우석 형, 김수민 형 그리고 필자가 남북 분단의 현장인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되는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에 우리측 수행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를 인연으로 하여 남북회담 실무자로 몸 담은 지도 어언 27년, 젊고 혈기왕성했던 30대의 청년이 이제 60을 바라보는 초로의 모습으로 변했다. 이 시점에서 당시를 회고하자니 무엇부터 정리해야 될지 그저 만감이 교차할 뿐이다.

1971년 남북회담이 시작될 때, 4반세기라는 말이 새로 나왔다. 북측에서는 이를 4분의 1세기라 표현했다. 남북분단 후 그 때가 4반세기,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라 그동안 분단으로 인해 남북으로 헤어져 겪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자는 것이 그때 남북적십자 회담에서 많이 쓰이던 어휘였다.

그런데 또 한 번의 4반세기의 세월이 지나갔다.

남북회담 초창기에 회담에 참여했던 인사들 중 현직에 남아 있는 사람

은 한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세월이 많이 흘렀다.

남북이 분단된 지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남북간에도 많은 변화가 온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우리 기업인이 북한을 오가고 신포지구에는 경수로건설단이 상주하고 있을 정도로 변하게 되어 가깝고도 먼 이웃이 되었지만 1971년 당시의 판문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먼 곳이었다. 서울에서 거리상으로는 62km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기에는 600km 이상 먼 곳이었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이었다. 당시의 판문점은 '공동경비구역'이라는 표현대로 800m의 타원형 공동경비구역에는 남북의 나눔이 없이 북한 인민군 경비초소가 남측 코앞에까지 내려와 있었고, 이곳에서 인민군이 남측 인원의 출입을 하나하나 감시하고 있는 그야말로 긴장이 감도는 곳이었다.

이러한 곳에서 인민군을 본다는 것만으로도 지레 겁을 먹게 되는 상황에서 '자유의 집' 앞까지 와서 경비를 맡고 있는 인민군의 눈을 의식적으로 피하며, 회담장인 중감위 회의실로 향하던 당시의 모습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국내외 기자들의 후레쉬를 받으며 처음 만난 남북의 대표들, 우리측에서는 김연주 수석대표와 박선규, 정홍진, 정희경, 정주년 대표가 회담대표로 참가를 했고, 북측에서는 김태희 단장 외에 김덕현, 조명일, 이종학, 서성철 대표가 회의 탁자를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마주서서 악수로 인사를 나눈 뒤 자리에 앉아 간단한 환담을 나누었다.

환담이 거의 끝나가자 북측의 김태희 단장이 개회를 선언하며 마치 적십자회담이 자기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인 듯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

우리측 김연주 수석대표도 이에 질세라 준비된 발언문을 읽기 시작하였다. 같은 회담장내에서 남북의 두 대표가 동시에 발언을 하는 진풍경이 한 동안 계속되었다. 결국 우리측에서 양보를 함에 따라 북측에서 먼저 발언을 하고 우리가 다음에 발언을 하는 순서로 회담이 진행되어 일단 마무리가 되었지만, 남북간에 처음 만난 회담에서 남북회담 대표간의 주도권 싸움은 웃어넘길 수 없는 년센스였다.

1970. 9. 20. 제1차 회담에서 우리측은 판문점 지역에 쌍방 연락사무소의 설치와 연락관 상주 그리고 쌍방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의 가설을 제

의하였다.

이에 북측이 동의해 음에 따라 남북간에는 분단으로 인해, 남북간의 전화가 단절된 이후 26년만에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남북을 연결하는 전화가 개통되었다.

1971. 9. 22 '자유의 집'과 '판문각'을 잇는 2회선의 전화가 가설된 것이다.

또한 쌍방 연락사무소에는 각기 연락관이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상주하게 된 것이다.

이 연락사무소는 그동안 북측이 필요에 의해 자기들 마음대로 열고 닫고를 거듭하는 우여곡절을 겪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 기능이 남아 남북연락을 유지하는 유일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1971. 9. 29 제2차 회담에서 "예비회담의 진행 절차와 의제"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

회담진행절차 중 '회의기록과 확인' 항목에서 "예비회담 회의기록은 각기 하되 쌍방 공히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 확인토록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회담의 기록은 각기 회담장내에 대표단 좌석 후면에 배치된 수행원석에서 하게 되었고, 우리측에서는 현장에서 녹음과 속기를 통해 회담내용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남북간에 회담내용의 기록을 확인하는 일은 없었다.

예비회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것은 본회담의 장소 문제였다.

우리측에서는 분단된 조국의 조속한 통일을 갈망하는 5천만 민족의 기대와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서 본회담의 장소를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가며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측은 교통과 통신사정, 대표단 활동의 안전문제 등을 들면서 본회담의 장소를 판문점으로 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던 북한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제3차 회담때인 10월 6일에는 서울·평양 개최를 제의한 우리측 제의에 동의했다. 따라서 회담장소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회담 전도는 밝은 전망이 보이는 듯했으나, 북측에서 본회담 의제 문제를 놓고 직접사 본연의 사업인 이산가족의 문제해결에 두지 않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불순한 기도로 인하여 회담이 장기간 교착상태가 지속되었다. 이로 인해 남북간에는 13회에 걸치는 비공개 실무 접촉을 통한 막후 협상을 거치는 등 8개월간의 시일을 소모한 후인 그 다음해 6. 12 제20차 회의에서 겨우 의제 문제를 타결하게 되었다.

본회담의 장소문제와 의제가 타결된 후 남은 문제는 본회담의 절차문제 뿐이었다. 따라서 절차문제는 쉽게 타결될 줄 알았으나, 의외로 난항을 거듭했다.

북측은 첫 본회담 장소를 평양으로 고집하면서 수행원과 기자의 수를 되도록이면 적게 하려 하였다. 북측에서 예상외의 난관을 조성하며 본회담 개최 시일을 끄는 이유는 아마도 북측에서 회담준비가 덜된 듯하였으며 많은 인원에게 평양을 공개하기를 꺼려하면서, 한편으로는 서울에 오는 자기측 인원을 줄이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듯했다. 결국 1972. 8. 11 제25차 회담에서 '본회담 기타 진행 절차와 본회담 일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예비회담은 거의 1년만에 종결되었다.

본회담의 진행 절차에는 대표단의 신변안전보장, 왕래절차, 교통·통신, 회의기록 등 제반사항이 망라되어 있다. 이 '본회담 진행절차'는 그 후에 진행된 각종 남북회담에서 관례가 되어 계속 준용되었다.

'본회담 기타 진행절차와 본회담 일시에 관한 합의서'에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합의문안에 언급되었는 바, <회의기록> 항목에는 쌍방은 회의기록을 녹음과 속기로 한다고 되어 있고, 회담장에서 자기측 중앙기관까지 녹음 중계선을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항목은 나중에 회의기록은 '속기와 녹음·녹화'로 하는 데까지 발전하였으며, 회담장에서 직접 화면으로 자기측 중앙기관까지 중계하는 시대로 변하여 평양에서 회담하는 장면을 서울 본부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웃어넘길 수 없는 기억이 있다. 1985년도에 적십자회담이 재개되면서 제8차 적십자 본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되게 됨에 따라 남북간에 이에 따른 실무문제 협의를 맡아서 하게 되었다.

물론 1972년도에 합의된 본회담 진행절차를 존중하는 상황하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었지만, 그동안 이미 10여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남북간에도 많은 상황이 변화되었다. 1972년 당시에는 회담장에서 녹음선을 본부까지 연결해 주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었으나 이미 그러한 방법은 낡은

유물이 되었고, 서울에 앉아서 해외에서 보내오는 화상을 직접 보는 시대가 된 것이다. 따라서 녹음 중계선 외에 화상을 직접 보내 주기로 실무협상 현장에서 합의를 하고 상부에 보고를 하는 중에 문제가 생겼다.

보고서 중에 "회담 현장을 CCTV로 중계를 한다"고 표현한 것을 'TV 중계'로 잘못 알고 "TY중계를 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이미 북측 과합의한 상태에서 실무협의를 맡았던 필자로서는 큰 궁지에 빠지게 되었다. 당시의 상황으로는 한 번 내린 지시를 번복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때였다. 결국 CCTV중계가 폐쇄 회로에 의한 제한된 곳에만 중계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데까지는 말할 수 없는 큰 고충이 뒤따랐다.

남북적십자 본회담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1972. 8. 30 오전 10시 평양 대동강회관에서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우리측에서는 이범석 수석대표를 포함해서 대표 7명, 자문위원 7명, 수행원 20명, 기자 20명, 합계 54명의 대표단이 4박5일의 일정으로 역사적인 평양 방문길에 올랐다.

판문점 회담장 구역 내에 있는 콘서트 건물은 유엔군 측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과 북측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있다.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과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군정위 유엔사측 일직장교 사무실은 유엔사 관리 건물이고, 중립국 감독위원회 휴게실과 북한 병사 휴게실은 북측에서 관리하는 건물이다. 만약에 실수로 북측이 관리하는 건물에 들어간다면 다시 돌아 나올 수 없는 때였다.

우리 대표단은 북측 병사 휴게실을 거쳐 분계선을 통과, 북측 땅에 발을 딛게 된 것이다.

우리 대표단이 머문 숙소는 평양 시내 대동강 동쪽 '문수리 초대소'로서 당시만 해도, 동평양쪽은 개발이 안된 번두리 지역이었다. 이 초대소는 지방에서 출장 오는 당원들이 머무는 곳으로서 별로 사용된 흔적이 없는 듯 했다. 목욕조 수도꼭지에서는 녹물이 흘러나온다. 서랍 속에 미처 치우지 못한 '치분'이 나왔다. 우리가 어렸을 때 치약이 나오기 전에 보던 물

건이었다. 그때까지도 그들은 치분을 주로 쓰는 듯했다.

8. 29~9. 2간 평양에 체류하는 동안 두 차례의 회담이 있었고, 나머지 시간은 북측의 안내에 따른 관광과 참관이 있었다.

평양 체류 기간중 제일 어려운 것이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 점이었다. 정성껏 차려주는 음식이건만 향신료가 맞지 않아 먹기에 역겹다.

평양 체류 4박5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은 비가 내렸다.

평양 교외 배추밭에는 비가 오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스프링 쿨러가 돌아간다.

우리 대표단이 이용한 차량은 북측에서 남북회담을 위해 서독에서 수입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서 운전기사가 차량의 성능도 제대로 모르고 무조건 밟으면 빨리 간다는 사실만 아는 듯 했다. 비가 내리는 길을 100km 이상으로 달린다. 속도를 늦추라고 부탁을 해도 들어주지를 않는다.

사리원을 지나 청계리라는 곳을 지날 때, 펠자가 타고 있던 차가 커브길에서 중심을 잃고 다리밑 강으로 곤두박질을 한 것이다. 7~8m는 족히 되어 보이는 높다. 물 속에 뒤집혀진 차에서 유리 창문을 통해 겨우 기어 나오니 마치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었다. 이미 우리 대표단의 차량들은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뒤늦게 따라오던 북측 차량이 한 대가 있기에 망정이지 객지에서 피아가 될뻔 했다. 개성 자남산 여관에 와서 우리 대표단과 합류할 때까지 북측에서조차 사고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었다.

당시 같은 차에 탔던 북측 안내원이 의식불명 상태인 것을 보고도 나만 살겠다고 허둥댄 꼴이 몹시 부끄럽다. 그러나 그곳에 혼자 떨어졌다면 어찌 되었을까? '의거 귀순자'로 둔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개성에서 북측 단장이 하는 얘기가 그곳에서 며칠 쉬면서 치료받고 가라고 하는 데는 더욱 겁이 났었다.

남북적십자 본회담은 그 후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1973. 7. 11 제7차 회담까지 진행된 후, 그해 8. 28 북측의 일방적인 대화중단선언으로 결렬되었다.

남북조절위원회

판문점에서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그 막후에서는 별도

의 남북 실무자 접촉이 있었다. 이 접촉은 대한적십자측의 정홍진 대표가 북측의 김덕현 대표에게 비밀접촉을 제의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들 두 대표는 각기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장과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의 신임장을 가지고 만났다.

이 두 대표간의 접촉은 1971. 11. 20부터 그 다음해 3. 22까지 11회에 걸쳐 계속되었으며, 그 결과 정홍진 대표의 평양 방문에 이어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평양을 방문하게 되고, 북측 김덕현 대표에 이어 박성철 북한 제2 부수상의 서울 방문이 이루어졌다. 이들의 서울·평양 방문의 결과로 1972. 7. 4 남북공동성명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되었다.

또한 남북공동성명과 함께 서울과 평양을 연결하는 '남북 직통전화 개설과 운송절차에 관한 합의서'가 발표되었다. 남북공동성명 발표에 이어서 남북간에는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회의가 진행되었다.

우리측에서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석하였고, 북측에서는 당시 김영주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의 신병 관계로 박성철 부수상이 공동위원장 대리로 참석하였다.

첫번째 공동위원장 회의는 1972. 10. 12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있었다. 이 회의의 기록을 위해서 우리측에서는 김인영 형과 필자가 참석을 했고 북측에서는 전금철 외 1명이 참석했다.

남북적십자회담의 기록은 녹음과 속기로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남북조절위원회에서는 일체 녹음을 하지 않고 각기 속기만 하기로 한 것이 특징이 되겠다. 이는 회담에 참가한 대표에게 비밀을 보장함으로써 발언의 재량권을 주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북한측에는 우리와 같이 부호에 의한 속기 방식이 없기 때문에 주로 속필로 회의내용을 요지만 기록하는 듯 했다.

이 회담에 북측 기록요원으로 참석했던 전금철은 그 후에 남북조절위원회 대변인겸 간사로 활약한 바 있으며, 그 후에 1988년에 진행된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때는 북측 단장으로서 우리측 권정달 의원과 박준규 의원의 상대역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근래에는 북측 대외경제위원회 고문 자격으로 북경에서 진행된 대북곡물 지원을 위한 남북회담의 북측 대표로 활약하기도 하였다.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 공동위원장 회의는 1972. 11. 2 평양에서 열렸다.

당시 개성에서 평양까지의 교통수단은 헬리콥터였다. 북측에서는 헬리콥터를 곧바로 뜯다고 해서 직승기라 부른다. 개성과 평양 교외에 임시 헬기장이 마련되었다. 평양 교외 과수원에 마련된 헬기장에는 북측의 어린 학생들이 나와 꽃다발을 전해 주었다. 그 중에는 KAL기 폭파범으로 지금은 서울에 와 있는 김현희도 있었다 한다.

우리 대표단의 숙소는 소위 내각초 대소라는 곳으로서 부벽루가 바로 앞에 있었다. 내각초대소를 가려면 평양 시내에서 대동강을 오른편에 끼고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왼편에는 청류벽이라는 곳이 나온다.

대동강을 굽어보는 자연 암벽으로서 옛날 선비들의 시구들이 음각되어 있다.

그 청류벽 바로 위에 부벽루가 있는데, 부벽루에 올라가서도 그 곳이 그 유명한 부벽루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정자 추녀 밑에 붙어 있는 현판을 보고서야 겨우 알 수가 있었다. 원래 부벽루라는 이름은 대동강에 떠 있는 듯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1972. 11. 30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공동위원장 회의에서 남북 쌍방은 남북조절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 협의를 마치고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회의를 종결함과 동시에 제1차 남북조절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그 후 북측은 제4차 남북조절위원회를 앞둔 1973. 8. 28 남북조절위원회 북측 공동위원장 김영주의 성명을 통해 당시 김대중 납치사건의 주모자인 중앙정보부장과는 대화를 할 수 없다며 남북대화의 일방적 중단을 선언하였다.

북측의 대화중단선언으로 남북대화가 중단되자 우리측에서는 이를 재개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한 끝에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 회의와 남북적십자 실무회의라는 두 갈래의 회담이 판문점에서 진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1975. 5에는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 회의를, 1978. 3에는 남북적십자 실무회의를 일방적으로 무기 연기시키는 수법으로 중단시켰다.

남북 직통전화는 남북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뒤에도 계속 운용되어 왔다.

그러던 것이 1976. 8. 18 판문점에서 일어난 도끼만행사건 직후인 8. 30 동해에서 어로작업중이던 우리 어선이 납북되는 사건이 벌어져 이들의 송환문제를 협의키 위한 대북전통문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북측이 접수를 거부한 후 남북 직통전화의 모든 회선이 다 단절되었다.

1979. 2. 17 판문점에서 소위 '남북번칙대좌'라는 것이 있었다 우리측의 남북조절위원회 대표와 북측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대표가 만난 것이다.

이 접촉에서 우리측은 남북 당국간의 회담을 재개하려 시도하였으나, 결국 무산되었다.

또한 같은 해 2월 27일에는 남북 탁구회담이 열렸는데 이 회담은 그해 4. 25부터 평양에서 개최되는 제35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었다. 그러나 이 회담도 우리측 탁구선수단의 평양대회 참가를 막으려는 북측의 기도로 결렬되고 말았다.

1980. 2. 6에 남북한 총리회담을 위한 실무대표접촉이 판문점에서 열렸다.

그러나 이 회담도 자유의 집과 판문각을 오가며 열 차례 열렸으나 성과 없이 끝났다.

그때 당시 우리는 광주사태로 국내정세가 혼미한 때였고, 신현확 국무총리가 사임을 한 후, 국회가 휴회 중이라서 새로운 국무총리가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 북측 대표는 회담 석상에서 우리측에 총리가 없는 상황에서 회담을 더 이상 계속할 수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에 우리측에서 신현확 총리가 사임한 후에 새로운 국무총리로서 박충훈 총리가 임명되었다고 말하자 그것은 '서리'이지 총리가 아니라며 총리의 자격문제를 시비하며 결국 회담을 결렬시켰다.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의 첫 회담일인 1980. 2. 6 우리측에서는 그동안 북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단절된 남북 직통전화의 재개를 제의하였다.

당초 우리측에서는 남북조절위원회용 전화의 재개통을 시도하였으나 북측에서는 남북조절위원회는 이미 없어졌다는 주장으로 조절위 전용 전화의 재개를 반대했기 때문에 적십자회담용 전화선 중 1회선을 개통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수재물자지원과 남북적십자 회담 재개

1984년 하반기부터 남북간에는 적십자회담, 경제회담, 국회회담에 이어 체육회담이 열리는 등 남북대화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회담의 물꼬를 트게 된 것은 1984. 8 우리 남한 지역에서 발생한 수재와 관련해서 북한적십자회측의 수재물자 지원 제의를 우리측에서 받아들인 결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북측에서는 우리측의 수재를 돕기 위해 쌀 5만석, 천 50만m, 시멘트 10만t, 기타 의약품을 보내겠다고 제의해 왔으며, 우리측에서 이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북측의 수재물자 인수를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대표 접촉이 판문점에서 열렸다.

이어서 9. 29부터 10. 4에 걸쳐 인천·북평·판문점을 통해 북측의 수재물자가 인수되었다.

인천과 북평항에 북측의 수재물자를 실은 배가 인공기를 단 채로 정박하게 되었고, 판문점에서는 북측의 트럭이 수재물자를 실은 채 줄을 이어 대성동까지 내려왔다.

그때 우리가 받은 물자 중 시멘트는 우리 상품보다 점도가 떨어지고 의약품은 수준 이하의 것이었다 한다.

후일 여러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북측은 당시 우리측에서 그들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알고 선전적 차원에서 제의를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내부적으로 큰 동요가 있었다 하며 이러한 제의를 하도록 건의했던 책임자는 인책되었다고 한다.

1990. 10. 18. 우리측 고위급회담 대표단의 김일성 주석궁 방문이 있었다. 강영훈 국무총리를 비롯한 우리측 대표 외에 수행원 3명 중에 필자가 포함된 것이다.

우리측 대표단이 묵고 있던 백화원 초대소에서 승용차에 오른 우리 대표단은 김일성 주석궁으로 안내되었다.

최근 북측의 식량지원을 위한 북경회담에서 북측대표는 전에 자기들이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수재물자를 지원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은혜를 은혜로 갚을 줄 알아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한다.

남북적십자 단체간의 수재물자 인도·인수를 계기로 1973. 7 제7차 본회담 이래 11년 동안 중단되었던 남북적십자 본회담이 재개되었다.

제8차 본회담이 1985. 5. 28 서울에서 개최된 데 이어서 제9차 본회담이 8.27 평양에서 개최된 것이다.

우리측에서는 이영덕 수석대표를 포함한 대표 7명, 자문위원 7명, 수행원 20명, 기자 50명, 함께 84명의 대표단이 평양에서 개최되는 적십자회담에 참가하기 위해 개성에서 평양으로 향하는 특별열차에 올랐다.

우리 대표단은 평양역 근처의 고려호텔에 묵었다.

대표단이 숙소에 도착하면 가장 바쁜 사람이 필자였다. 대표단의 짐을 일일이 확인하여 북측 요원과 함께 각자의 방까지 넣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사를 제때에 하기가 어렵다.

우리 대표단은 호텔 45층에 있는 회전 식당에서 오찬을 하면서, 평양 시내를 관망할 수 있었다.

고려호텔은 타워식으로 된 건물로서 45층 옥상에 회전 식당이 있는데 이 식당이 한 바퀴 도는데 40분 정도 걸린다 한다. 따라서 한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밖으로 보이는 평양시 전경을 다 볼 수 있다.

당시 평양에서 있었던 일 중에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다.

8. 27에 있었던 모란봉 경기장 퇴장사건이다.

필자는 당시 회담사무국 연락과장으로서 남북간의 제반 연락을 맡은 실무책임자였다. 남북회담은 모두가 그 회담행사를 하기 전에 회담 일정을 협의하여 정하게 되어 있다.

대표단의 체류 일정, 교통 수단, 숙소, 신변 안전보장문제, 관문점 통과 절차, 통신문제, 관람 등 우리 대표단이 상대측 지역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의 모든 세부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게 된다. 이 협의를 필자가 맡아서 했다.

평양 체류기간 중 우리 대표단은 학생소년궁전에서 청소년 체조를 보도

록 되어 있었다. 평양에 도착한 후 북측 연락관이 필자에게 모란봉 경기장 관람을 제의해 왔다. 북측의 설명으로는 학생소년궁전에서 보려던 청소년 체조를 장소만 옮겨서 본다는 것이었다. 이에 필자는 쉽게 동의해주었다. 원래 남북간에는 정치성이 있는 관람이나 참관은 안 한다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다.

우리 대표단은 모란봉 경기장 주석단으로 안내되었다.

관중석에 동원된 인원이 10만명 정도이고, 운동장에 매스게임을 위한 학생이 5만명이었다.

예상했던 청소년 체조가 아니고 북한 공산당 투쟁과 정권수립을 위요한 역사를 주제로 한 것이었다. 관중석에서는 카드섹션이 연출되고 운동장에서는 매스게임이 진행되고 스피커에서는 6·25 당시에 들어 보았던 김일성장군 노래가 장대를 짝 채운다.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어 현장에서 서울로 연결된 직통전화로 상황을 보고하고 퇴장을 건의했다.

전화를 거는 옆에서 반협박조로 만류하던 북측 요원들의 모습이 아직도 뇌리에 선하다.

결국 우리 대표단은 중간에 퇴장을 하고 그 다음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다음 날 진행된 회담 석상에서 북측 대표들은 마치 자기의 충성심을 과시하려는 듯 번갈아 발언을 하면서 '모란봉 경기장사건'을 거론 시비를 하며, 우리측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강압적으로 회담 분위기를 흐리게 하면서 회담을 공전시켰다.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의 교환 방문이 제8차 적십자 본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다.

1985. 9. 20 쌍방 적십자 중앙기관 책임자와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50명, 예술공연단 50명, 취재기자 30명, 지원인원 20명, 합계 151명의 방문단이 판문점에서 같은 시간에 서로 남북으로 방문길에 오른 것이다.

우리측에서는 김상협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단장으로 하여 151명의 방문단이 평양 방문길에 올랐다.

이들의 방문에 앞서서 방문자의 체류 일정과 방문지 등 모든 실무문제의 협의를 필자가 맡았다.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의 각자 고향방문은 북측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결국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의 방문지는 평양과 서울로 한정시키기로 하는 한편, 만나고자 하는 가족의 인적사항을 사전에 서로 통보해 줌으로써 지방에 있는 가족은 서울이나 평양에 와서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주기로 하였다.

그 결과 평양을 방문한 우리측 방문단 중에는 35명이 가족과 친척을 만났으며, 북측은 30명이 가족과 상봉을 하였다.

그러나 방문 과정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다. 실무협의 과정에서 이산가족들의 면회장소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만나게 해주는 것을 상정하고 별 생각없이 넘어갔다. 그러나 북측에서 공개석상에서 만나는 것을 거부하고 각자가 비공개리에 호텔방에서 만나야겠다는 것이다. 결국 첫날은 공개적으로 만나고 그 다음날은 각기 호텔방에서 만나게 하는 것으로 서로 양보를 하는 선에서 해결을 보았다.

이산가족 고향방문단과 함께 교환된 예술단은 각기 서울에서는 국립극장에서, 평양에서는 평양 대극장에서 2회씩 공연을 하였다.

남북적십자회담은 1985. 12. 2~12. 5 서울에서 개최된 제10차 회의를 끝으로 1986. 2. 25 평양에서 개최기로 합의한 제11차 회담을 북측에서 우리측의 '팀스피리트 한·미 군사훈련'을 구실로 연기시킨 후 중단 상태에 있다.

남북경제회담

1984. 9 남북적십자단체간의 수재물자 인도·인수를 계기로 남북간에 교류·협력의 기운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1984. 10. 12 우리측 신병현 경제기획원장관은 북한 정무원 부총리 최영림 앞으로 서한을 보내 남북한 경제당국 및 민간경제단체 대표들이 참가하는 남북경제회담을 개최하여 남북간의 물자교역과 경제협력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의하였다.

북한측에서 이 제의에 동의해 음에 따라 1984. 11. 15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남북경제회담이 열렸다.

이 회담에 우리측에서는 김기환 수석대표 외에 6명의 대표, 북측에서는

이성록 단장 외에 6명의 대표가 참가하여 1985. 11. 20. 제5차 회담까지 열렸다.

북한측에서는 1986. 1. 22에 개최키로 합의한 제6차 회담을 역시 우리측의 '팀스피리트 군사훈련'을 트집잡아 일방적으로 연기시킴으로써 중단시켰다.

남북국회회담

1985. 4. 9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양형섭은 우리측 채문식 국회의장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남북국회회담을 개최하여 남북간의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의해 왔다.

우리측에서는 12대 국회가 개원된 후에 1985. 6. 3 이재형 국회의장 명의로 보낸 서한에서 남북국회회담 개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예비접촉을 갖자고 제의했다. 이에 따라 1985. 7. 23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에서 우리측 권정달 수석대표 외 4명의 대표와 북측 전금철 단장 외 4명의 대표간에 제1차 예비접촉이 열렸다.

그러나 북한측은 제3차 접촉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측의 팀스피리트 군사훈련을 구실로 회담을 무기 연기시킴으로써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은 성과없이 끝났다.

그 후 1988. 7. 9 김재순 국회의장이 우리 나라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 있는 '서울올림픽 대회에의 북한측 참가 촉구 결의문'을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양형섭에게 보냄으로써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이 태동되었다.

남북간에 몇 차례의 서한이 오간 후 1988. 8. 19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제1차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이 열렸다.

이 접촉에 우리측에서는 박준규 수석대표 외에 4명의 대표가, 북측에서는 전금철 단장 외에 4명의 대표가 참가하였으며, 우리측 지역인 평화의 집과 통일각을 오가며 열차례의 접촉과 한 차례의 쌍방 수석대표 비공개 접촉이 있었다.

쌍방 수석대표간의 단독접촉은 우리측 박준규 수석대표의 제의에 의한 것으로서 공개회의가 아닌 비공개 회의를 통해 북측의 의도를 파악하고

무엇인가 돌파구를 마련해 보려는 시도였다.

원래 정상적으로 회담을 할 경우는 그 내용이 자기측 지역까지 유선으로 연결되어 회담 실행을 화면으로 직접 보게 되므로 회담대표의 행동에 한계가 있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녹음과 녹화를 하지 않기로 쌍방간에 합의를 한 후, 쌍방 수석대표와 수행원 1명만이 참가하였다.

이 접촉은 우리측 평화의 집에서 열렸으며, 필자가 수행원으로 참가하여 회담 내용을 메모 형식으로 요지로 작성하여 음료 접대를 위해 드나드는 여직원을 통해 외부로 내보냄으로써 회담장 내의 분위기를 상부에 직보할 수 있었다.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역시 북한측이 우리측의 '팀스피리트 군사훈련'을 구실로 연기시킴으로써 중단되었다.

남북고위급회담

1988. 12. 28 강영훈 국무총리는 연형묵 북한 정무원총리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남북총리회담의 개최를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이 동의해 음으로써 1989. 2. 8부터 1990. 7. 26까지 여덟 차례의 예비접촉과 두 차례의 실무접촉을 가졌으며, 이에 따라 1990. 9. 4부터 1992. 7. 17까지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여덟 차례의 남북고위급회담이 진행되었다.

우리측에서는 강영훈 국무총리 외에 6명의 대표가, 북측에서는 연형묵 정무원총리 외에 6명의 대표가 참가하였으며, 우리측은 내각 개편에 따라 강영훈 총리의 후임으로 정원식 총리가 참가하였다.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은 1990. 9. 4부터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렸으며, 제2차 회담은 1990. 10. 16부터 평양에서 열렸다.

우리측 대표단 90명(대표 7, 수행원 33, 기타 50)은 평양에서 개최되는 제2차 회담에 참가하기 위해 개성에서 특별열차에 올랐다. 개성에서 평양까지의 거리는 200여km이다. 거리상으로는 2시간 거리이다. 그러나 우리 대표단이 평양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개성을 출발하여 3시간 40분이 걸렸다. 개성에서 평산까지는 디젤 기관차가 객차를 끌고가서 평산에서부터 전철로 연결된다. 그러나 외형만 전철이지 노반이 노후되어 속도

를 내지 못 한다.

제6차 회담 참가를 위해 평양으로 갈 때부터 이 고속도로를 이용했다.

고속도로엔 차량이 한 대도 없다. 무슨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았는지 궁금하다. 개성에서 평양까지 인터체인지가 한 군데도 없고 단지 곧게 뻗은 길에 불과하고 사리원에서 빠져나가는 길이 있는데 거의 직각화되어 있어 고속도로의 기능을 살릴 수가 없게 설계되어 있다.

우리 대표단이 평양 제1백화점에 가 볼 기회가 있었다.

서울의 백화점과 비교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초라하기 짝이 없다. 부인네들이 줄을 서서 술을 한 병씩 사가지고 간다. 그들의 설명에 의하면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주부들이 남편을 위해서 술을 사가지고 가는 것이라 한다. 뱀술 한 병에 160원, 인삼주 40원의 정가가 붙어 있는데, 노동자의 봉급이 100원이다. 눈여겨 보면 동원된 인원들이 우리 대표단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기에는 그리 어렵지 않다.

남북회담에 참가하기 위하여 상대측 지역에 갈 때에는 으레 남북연락관 간에 사전에 실무접촉을 통해 모든 절차를 협의한다. 회담은 언제 어디에서 하며, 오찬과 만찬은 누가 어디에서 주최하는가, 어디에서 무엇을 참관하게 되는가 모든 것이 협의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원칙이랄까 선행 관계가 있다. "초청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른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항상 존중되어 왔다. 평양에 가서 내가 개인적으로 어느 곳을 가보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초청측에서 안내해 주는 곳만 가게 되어 있고, 초청측의 범질서에 따르게 되어 있다. 혹 취재기자들 중에 북측의 안내 없이 북측 주민을 만나 인터뷰를 한 것을 보도함으로써 특종을 하려는 기자가 더러 있어서 북측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평양에 체류하는 동안에 진행되는 오찬과 만찬의 주최는 주로 정무원 총리, 최고인민회의 의장, 우리의 시장격인 평양시 인민위원회 책임자 명의의로 이루어진다.

행사에 참여하는 북측 인원들은 거의 회담에 참여하는 인사가 주종을 이루며, 나머지 인원들은 특별히 선발된 자들이 초청된다.

우리측 대표단의 인적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좌

석배정에도 신경을 쓴다.

저들은 필자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내원과 만찬 참석자를 신경을 써 주었다.

조선기독교도연맹 위원장 강영섭, 조선기독교도연맹 서기장 고기준, 평양신학원 교수 최인덕 등 비록 가짜 목사들이지만 나름대로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인물들을 주변에 배치를 해준 것이다. 그러나 어떤 안내원은 "하나님이 진짜 있느냐? 하나님을 보았느냐"고 따져 묻는 사람도 있었다.

우리 대표단이 평양에 체류하는 동안 옥류관, 청류관, 인민문화회관 등 그들 나름대로 성의를 다한 호화관 연회장에서 오찬과 만찬 대접을 받았다.

특히 인상에 남는 것은 목란관 만찬이다.

'목란'은 북한의 국화라 한다. 모란도 아니고 목련도 아니고 흰 동백과 비슷한 꽃으로서 그 향내가 좋다고 한다. 이 목란관은 길에서는 알아보기 어려운 곳에 있다.

아파트가 뻑뻑이 들어선 중앙에 담장을 두 번 통과하여 들어가면 그 안에 으리으리한 시설이 있다.

이 연회장은 90년대에 새로 생긴 곳으로서 나오는 음식 또한 특이하다. 사슴고기, 꿩고기, 가물치회, 칠색송어구이 등 특색이 있는 음식들이 나온다. 험벗고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과 비교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연회이다.

목란관 전속으로 '왕재산 악단'이 있는데 완전히 서구화되어 반라의 무희들이 춤을 춘다.

평양에 '옥류관'이라는 유명한 국수집이 있다. 저들은 냉면을 국수라고 부른다. 이 국수집은 김일성이 교시를 통해 더 많은 인민이 국수를 먹을 수 있도록 옥류관을 확장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까지 한다. 서울에서 맛본 평양냉면과는 거리가 멀다. 메밀가루보다는 감자가루가 더 많이 들어간 듯하다.

북한에서 특별히 손님들에게 보여주는 병원이 있다. 이름하여 '평양산원'이다. 우리 나라 일반 산부인과 개인병원 시설만도 못하지만 외국 손님에게 자랑하는 곳이다.

산모들이 얼굴에 화장을 하고, 침대에 누워 있고 해산을 앞둔 산모가 남산만한 배를 맨살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마치 동물원을 구경하는 듯하다. 저들은 세 쌍둥이를 '삼태자'라 부른다.

삼태자의 경우는 태어나서 대학까지 정부에서 보살피고 공부를 시켜 준다고 자랑을 한다. 일반인들이 그 병원에 입원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이다.

남북회담과 인연을 맺으면서 1972년부터 1992년까지 평양에 일곱 번을 다녀왔다. 그러나 주마간산격이랄까 아는 것이 없다.

그 동안에 보고 느낀 것 중에서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았지만 부끄러울 뿐이다.

그 동안에 이루어졌던 남북대화의 역사도 여기에 기록된 것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회담의 종류만 해도 조절위회담, 적십자회담, 체육회담, 국회회담, 경제회담, 고위급회담 등 9개 종류가 되고, 회담 횟수로 따지면 320회나 된다. 남북간에 오간 편지 중 필자의 손을 거친 것만 해도 100여건이 된다.

이렇게 많은 회담을 하면서 과연 회담기록은 어떻게 했을까? 그 많은 기록을 한두 명의 손에 의존할 수는 없다. 회담기록은 거의가 녹음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비밀 접촉이라든지 의전상 필요에 의해서 녹음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북한측에서는 속기를 하지 않고 주로 핵심요원이 요지 위주로 기록을 한다.

우리측에서는 다행히 필자가 옛날에 익힌 속기 실력으로 비록 무더진 손이지만 많은 역사를 기록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중요한 회의에는 필자가 참여하게 되어 북측으로부터 핵심 인물로 인식되어 경계의 인물로 지목 받기도 하였다.

남북고위급 회담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하여 많은 합의서들이 생산되었다. 이러한 합의서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막후접촉이나 실무접촉이 자주 일어나게 되므로 필자의 역할도 무시할 수가 없었다.

지금은 그 모든 합의서들이 사문화되다시피 해 있지만, 남북간에는 화해와 협력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많은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각종 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동안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생산하고 채택·발효된 각종 합의서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92. 2. 19. 발효)
-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92. 2. 19 발효)
-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92. 2. 19 발효)
-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운영에 관한 합의서('92. 5. 7 발효)
-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92. 5. 7 발효)
-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92. 5. 7 발효)
-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92. 9. 17 발효)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92. 9. 17 발효)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92. 9. 17 발효)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92. 9. 17 발효)

남북회담 역사를 기록하면서 가장 보람있었던 일은 김일성과 우리 총리와의 면담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1990. 10. 18 우리측 고위급회담 대표단의 김일성 주석궁 방문이 있었다. 강영훈 국무총리를 비롯한 우리측 대표 외에 수행원 3명 중에 필자가 포함된 것이다.

우리측 대표단이 묵고 있던 백화원 초대소에서 승용차에 오른 우리 대표단은 김일성 주석궁으로 안내되었다. 정문에 있는 경비병 외에 너무나 조용하니 오히려 긴장이 된다. 하긴 평양 시내가 전부 통제되는 그 속에서 일부분, 그 중에서 가장 핵심 지역이니 별도의 경비가 필요없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대기실에서 다과를 접대받은 후 옆방으로 안내되었다. 문안으로 들어서니 낮이 많이 익은 인물이 앞에 서서 악수를 청한다. 바로 김일성이다. 인사가 끝나자마자 김일성이 먼저 자리로 가서 앉는다. 김일성을 위시한 북측 인사가 앉은 그 앞자리에 강영훈 총리를 비롯한 우리측 대표가 앉았다.

대화시간은 10분 미만이었으나, 굳은 손이 더욱 굳어져 글씨가 제대로 안된다. 대화가 끝나자 김일성이 먼저 일어서며 "우리 나가서 기념사진이 나 찍읍시다" 하면서 나간다. 바로 김일성의 뒤에서 따라가면서 사진으로만 보던 김일성의 흑을 직접 볼 수가 있었다. 걸을 때마다 약간 흔들릴 정도로 크고 훤한 모습이다.

기념사진을 찍는 곳에는 배경사진이 크게 걸려 있고 그 앞에 계단까지 마련되어 있었다. 기념사진을 찍고 인사를 나눈 후 주석궁을 떠났다.

우리 민족에게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인물이지만 북한이라는 한 정권을 이끌어 가는 독재자를 직접 만났다는 사실과 역사의 한 페이지를 직접 기록했다는 사실이 오래오래 얘기거리가 될 것이다.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김일성과 사진 한 번 찍는 데 수만 불씩 주었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던 흑부리 김영삼이 1994. 7. 8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당시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할 때, 7월 9일 정오에 북측 방송을 통해 김일성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

그때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되면서 7월 25일이면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게 되어 있었다. 김일성이 죽은 그날도 판문점에서는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이 열리고 있었다. 김일성의 사망 소식을 듣고 우리는 환호했다. 그러나 그 다음 7월 11일 연락관 접촉에 나온 북측 연락관의 울먹이는 목소리와 그 표정은 오래도록 나의 뇌리에 지울 수가 없다.

그날 연락관 접촉은 김일성의 사망으로 인해 정상회담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북측의 서신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

(전 국회사무처 속기과 근무, 현 통일원 통일교육원 홍보담당관)

경기지역 속기사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김 미 해

경기지역 속기사회가 결성되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벌써 제 3차 회의를 마치고 보니 감회가 새롭다.

회원 누구나 마음은 있었지만 선뜻 다가가기 서먹했던 처음의 시작이 이제야 비로소 자리를 잡아가는구나 하는 안도감에 조금은 마음이 놓인다.

'97년 5월 14일 경기도의회를 포함하여 수도권에 위치한 33개 의회에서 제 1차 회의를 위해 수원시의회에서 모여 전국지방의회속기사협의회지국장에 남양주시의회 홍성분님, 협의회원에 수원시의회 임용춘님, 총무에 수원시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필자를 각각 선출하고 회칙을 제정하였다.

참석인원은 26명으로 처음부터 배부를 수는 없는 법.

'97년 7월 13일 제2차 임시총회를 안양시의회에서 열고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흡한 회칙의 개정, 협의회원 임용춘님의 개인사정으로 시흥시의회의 김설희님을 재선출하였다.

그리고 '97년 11월 16일 제3차 임시총회를 부천시의회에서 열고 48명이 참석하여 속기행정교육, 의정연수원 교육보고와 제4회 속기학술세미나 보고를 듣고 회칙을 개정하였다.

이번 3차 회의에는 멀리 전국지방의회속기사협의회장 김영서님과 운영부장 윤태원님의 참석으로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과 모임장소의 선정 등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열심히 참석해 준 회원들과 장소제공 등 회의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처음에 회원들과 전화통화를 할 때는 남의 일인양 생각하던 분들이 많았는데 3차 회의를 거치면서 안부도 물을 수 있는 여유도 가지게 되는 눈부신 발전을 하였다.

그러나 아직 가지지 않는 아쉬움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나 하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것을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고 누구나 사정은 마찬가지로 '회비만 내면 되겠지'하는 생각일랑 불어오는 바람에 실어보내기 바란다.

경제적인 지원보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여의식이 더 중요하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시기 바란다.

'97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기회만을 남겨두고 몇 번에 걸친 세미나, 연수, 속기행정교육 등을 통하여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우리가 있음을 잊지 마시라.

끝으로 김영서 회장님과 윤태원 운영부장님께 감사드린다. 먼 길 오셔서 밤늦은 새벽을 넘어 토끼눈을 하고서도 경기지역속기사회 회의에 참석하시어 격려해 주신 말씀은 회원들 모두에게 큰 힘이 되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DON'T WORRY BE HAPPY'

(경기도 수원시의회)

이제는 조금 더……

김 난 희

이제는 모든 것을 조금 더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철부지로 입사한 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지나간 시간 중에는 아쉬움이 더 많기 마련인가 봅니다. 그저 인생이 즐겁기만 하던 미니스커트의 20대를 덧없이 지내고 변화 많은 30대를 지나 40대도 중반을 서서히 넘기고 있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요즘입니다.

아침 출근길, 통근버스를 놓치면 시베리아 바람보다도 더 날카로운 바람을 가르고 눈물까지 찢금 흘리며 동태가 되어 걷던 일, 점심 때 회식이 라도 할라치면 한 무리가 목적지까지 버스를 타고 가던 일, 야간국회를 마치고 '영등포방향, 마포방향'하면서 인신매매단 차량같은 봉고에서 우르르 내리던 일, 차 한 대 얻어타려고 같은 지역 의원님들께 신세지던 일, 여직원이 많은 우리과는 세상이 하도 험악하다 보니 택시를 타고 가도 동승했던 직원이 먼저 내리면서 택시번호를 적었다가 집에 도착할 무렵에는 전화로 확인하던 일 등등 지금은 옛이야기가 되어버린 일들이 왜 이토록 아쉽고 즐거운 일들로 기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지나간 것들을 추억으로 소중히 접어두고 지금 바로 이 순간을 사랑하며 생활하고 싶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봄·여름·가을의 의원동산이며 운동장, 윤중로 등 의사당 주변의 모습들이 어쩔 그토록 아름다운지 가슴저린 느낌으로 와 닿았습니다. 앞으로 과연 몇 번이나 더 의사당의 사계를 볼 수 있을지…… 그런 생각들은 내 일상주변의 모든 것들, 사람이든 일이든 그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이 사랑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노랗게 물든 도서관 주변의 은행잎을 밟으며 걸을 때 안타깝게도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길 없어 그저 아! 하고 탄성만 내었습니다. 그

들은 이 세상에서 열매와 아름다움으로 자신의 소명을 다하다가 마침내 떨어져 썩어 다음 세대를 살찌우게 하니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이나 또 일생을 마친 후에도 아낌없이 주고 있는데…….

이제는 내 시간들도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러나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남기 위해 조금 더 열심히 사랑하는 일만이 남은 것 같습니다.

(국회사무처 속기2과)

워싱턴 D.C의 잠못 이루는 밤

최윤정

특별히 한 일도 없이 바쁜 일주일이 지나갔다.

물이 다르고 사람들 생김과 말이 다른 곳에서의 일주일은 그리 편하지는 않다. 가끔 지나치는 동양계인을 보면서, 그들의 표정을 읽으면서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왔을까, 어느 민족일까 상상해 본다.

서울과 그리 다를 게 없는 이 곳 대도시 풍경. 그러나 거리를 걸으며 어깨를 부딪히는 일은 거의 없다. 다른 사람들과 가볍게든 심하게든 부딪히며 걸어야 하는 서울 지하철 2호선이 생각난다.

첫날은 자느라고 다 보냈다.

둘째날은 Veterans Day라는 휴일이었다.

비교적 시차 적응이 잘 된 것 같아서 유명한 Smithsonian을 보기로 했다. 그 엄청난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하루 종일 걸어다녔는데 겨우 한 개 건물을 봤다. Smithsonian 안에 속한 건물이 아마 10개는 되는 것 같다.

셋째날, 드디어 김창준 의원실로 출근하는 날이다.

스텝들과 공식적인 인사말을 더할 수 없이 반갑게 주고 받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재미있기도 하다. 이 쪽에서 한 마디 하면 꼭 받아준다.



Lory가 내 스케줄을 도와주는 스텝이다. 뭐가 될지 잘 모르는 가운데 가자는 대로 Capitol을 방문했다. 우리처럼 지하로 여러 개의 건물이 연결되어 있다. 하원

용 건물 3개, 상원용 건물 3개, 그리고 도서관 건물이 3개.

혼자 돌아다니다가는 길을 잃을 것만 같다. 다시 내려가서 식당 가는 길을 되짚어 가 보았다. 아무래도 먹는 것을 해결하는 일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넷째날, 출근한 지 이틀째 105대 국회 첫번째 회의가 끝나는 날이다.

Republican Staff과 Intern이 모이는 축하연에 참석할 기회가 생겼다. 그 유명한 공화당 Speaker Gingrich를 보았다. 모이라고 한 11시 30분에서 거의 사오십분 지나서야 나타났다. 그들은 회기가 무사히 끝나 즐겁겠지만 연수를 하러 온 나는 회의를 못 봐서 유감이다.

다섯째날, 회기는 끝났지만 스케줄이 잡히지 않았다.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아직 바쁘기 때문이다. 시간 날 때마다 Capitol 내부와 주변 거리를 돌아다녔다. 이곳이 D.C라는 것을 체감하기 위해서.....

여섯째날, 이곳은 확실한 주 5일 근무제다.

하는 일도 별로 없이 빈둥거리던 나도 덩달아 해방감을 느낀다. 창문으로 보이는 고가도로가 다른 날과 달리 한산하다.

내가 묵고 있는 곳은 D.C 들어가는 입구의 Rossly라는 지역인데 상업지구라 물가는 조금 비싸지만 Metro(지하철)가 가깝고 안전한 지역이다. 게다가 내 방은 창이 포토맥강 쪽으로 나고 멀리 Washington Monument와 링컨 기념관 Capitol이 보이는 환상적인 위치에 있다.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자료수집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야 할텐데 잘 될지 걱정이다.

4시 반인데 벌써 어두워졌다.

밤 경치가 너무 아름답다. 비록 겹이 나서 밖을 돌아다니지는 못하지만 창을 통해 충분히 D.C의 밤을 만끽하며 잠이 들었다.

내일은 룸 메이트와 드라이브 인이라는 곳을 가볼 예정이다.

(국회 속기2과 근무. 미국 하원 김창준의원 사무실 연수중에)

나는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될꺼야

유 미 형

학원 광고를 위해 잡지에 맛보기로 실렸던 속기문자를 보고 반한 것이 중학교 2학년 때였고, 비로소 시작한 것이 대학 2학년이었던 1993년 겨울. 그러니까 처음 속기를 시작한 것이 4년 전이었다.

속기를 배워서 구체적으로 어떤 길로 갈 것인가는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 신나서 시작한 속기가 점점 사항길로 접어들면서 다니던 학원이 문을 닫기를 여러 차례. 게다가 방학 때만 학원을 다니다 보니 진도가 빨리 안 나가서 해매기를 수십 번이었다.

1급 시험을 보고는 발표를 기다리기도 초조하고 또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도 뾰족하게 할 일도 없을 것 같고 해서 다른 길을 걷던 찰나에 국회사무처 시험공고를 보게 되었다.

합격을 하든 못하든 후회는 없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시험공부였기에 이제까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본 적은 없었다. 어느날 문득 차창 밖에 만개한 꽃을 보았을 때, 내 스물 여섯의 봄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느낌이 들었던 것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시험 원서접수를 하러 가기 위해 여의도 지하철역에 내렸을 때는 '국회의사당 방면'이라는 표시에 가슴 설레이고 정문에 들어서서는 점점 더 크게 다가오는 본청의 돔과 기둥을 보고 가슴이 설레었다. 물론 발표를 기다리는 마음은 그보다 몇 십 배 더 설레였었다.

그리고 다가온 5월 16일의 하늘은 이제까지 내가 보았던 하늘 중에 가장 아름다운 하늘이었고 내 일생에 잊지 못할 가장 기쁜 날 중의 하루가 되었다.

처음에는 국회라는 건물에 우체국이니 은행이니 심지어 세탁소나 지하통로가 있는 것이 그렇게 신기하더니 이제는 한번도 "공무원이 되어야지"하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탓인지 내가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게 된 것도 그렇고 그에 준하는 행동과 사고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 어색하기만 하다.

학교 다닐 때와는 다르게 훨씬 연장이신 선배님들을 만난 것이 새롭고,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도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움이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의 얼굴은 비슷비슷하기만 하고 그 분들은 나를 아는데 내가 그 분들을 모르는 것은 두려움이었다. "잘 해야지"하는 마음 뿐 별로 잘해내지 못해서 덕분에 고생하시는 선배님들께 죄송한 마음이다.

1~2년 가지고는 역사를 기록하는 이 일이 쉽게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반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달랑 몇 십분 쓰고 나오면 그것으로 일이 끝인 줄 아는, 회기가 끝났다고 "이제 한가하겠네..." 하면서 부러워하는 행정직 동기들이 원망스럽고 답답하기만 하다. 대기조에 걸려 있어서 확실한 약속을 못 잡거나 갑자기 회의가 있어서 약속을 못 지킬 때 이해를 못해주는 친구들한테는 미안할 뿐이다.

들어오자마자 임시국회를 지나고 이제 정기국회를 마무리하면서도 정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회의록을 만드는 것이 속기를 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느꼈다. 왜 몇 번씩 확인해도 내 눈에는 그 이상한 단어들이나 오타들이 안 띄는 것인지.....

지금도 속기를 배웠던 내가 속기사가 되어 있다는 단순한 사실에 만족하고 있을 뿐이지만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게 될까 하는 궁금함이 든다. "나는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될꺼야"하는 텔레비전 드라마 여주인공 대사가 요즘 자주 머리에 떠오르곤 한다. 도대체 "최고의 속기사란 무엇일까" 하는 생각도 떠오르지만 여전히 잘 모르겠다.

지금도 작심삼일이 되어서는 안 될 말 "항상 노력하자"를 되뇌일 뿐이다.

(국회사무처 속기1과)

신혼여행에서

홍 성 현

지난 9월 너무나도 맑고 화창한 날 나의 제2의 인생을 펼쳐나갈 결혼식을 올렸다.

그런데 어느덧 가을이 가고 쌀쌀한 겨울이 성큼 다가와 있다.

처음에 결혼식 날짜를 잡고 신혼여행지를 의논할 때 우리는 둘 다 제주도로 가기를 원했다. 그 이유는 우리 나라의 경제도 많이 어려운데 남의 나라에 가서 한두 푼도 아닌 돈을 쓰고 오기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몰려다니고 끌려다니기식의 여행이 싫었다. 건문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요즘에는 외국을 많이 나가는데 정말 내가 건문을 넓히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꼭 가고 싶은 곳이면 몰라도 이번에는 단순히 신혼여행이라서 더욱 그랬다. 그래서 제주도로 가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우리가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간다니까 주위에서는 "제주도나 외국이나 돈도 비슷하게 드는데 왜 제주도로 가느냐?" "이때 아니면 언제 외국에 한 번 나가보겠냐?"고 대다수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사실 우리 나라도 제대로 다녀보지 못해서 지도를 놓고 보던 지명도 제대로 모르고 어느 고장이 어느 도에 속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런 상태에서 외국에만 무조건 나간다고 시야가 넓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이 결정한 것은 5년 안에 우리 나라 군단위까지 어느 정도 다녀보고 난 다음 외국을 생각하기로 했다.

그런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숙박이 문제가 되었다. 나는 물론 호텔에도 한 번은 가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그렇게 비싼 돈을 들어가면서까지 호텔에서 묵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아무리 신혼여행이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고급 호텔에 묵는다는 게 허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조그만 콘도나 싸고 깨끗한 장소로 알아보라고 했다.

그런데 내가 피하려던 고급 호텔에 묵게 되었다. 왜냐하면 나의 시누이가

그 호텔의 계열사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직원용으로 해서 아주 싼값에 묵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호텔로 향했고, 호텔에 가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신혼여행을 온 사람들이었다.

나는 생각에 나아 물론 싼값에 오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왔지만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싼 곳으로 오게 되었을까 궁금해졌다. 나 같은 서민이 하루에 몇십 만원씩 주고 묵기에는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곳이고 낭비라고 생각한다. 물론 "신혼여행이니까"하고 단순히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넘어가지지를 앓았다. 호텔에 밤 9시쯤에 도착을 해서 저녁을 먹었는데 두 사람 한 끼 식사비가 6만원이 나와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무리 신혼여행이라도 돈을 쓸데없는 데 쓰고 싶지 않았던 내 생각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너무 돈에 연연하는 것같이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너무한 것은 너무한 것이었다.

우리는 두 사람 다 운전이 서툴렀기 때문에 택시로 여행을 했는데 하루는 기사 아저씨가 직업을 물어서 둘다 공무원이라고 하니까 그 호텔에 묵게 된 경위를 물었다. 그래서 우리는 사정이야기를 했고, 아저씨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더니 그렇다면 몰라도 아주 부자집 자제들도 아니고 공무원 신분인데 이렇게 비싼 호텔에 묵는 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런 고급 호텔이 아니더라도 싸고 좋은 데가 많이 있는데 왜 그런 데에 묵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방송매체에서는 늘 우리 경제를 살리자고 떠들어대고 우리는 매일 그런 얘기를 듣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메이커를 좋아하고, 중형차를 좋아하고, 시장보다는 백화점을 좋아하면서 아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이제는 우리 어른들도 자제를 하고 아껴야 되겠지만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아끼는 습관을 들여주는 쪽으로 교육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나라가 잘 살고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아끼고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아껴서 내 가정이 잘 살고, 그럼으로써 나라가 잘 사는 것도 애국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속기인 여러분들이 먼저 술선수범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경기도 구리시의회)

종이겨울(사진)과의 만남

염 정 림



푸르렀던 가을의 하늘, 따갑던 햇살, 그리고 형형색색의 단풍도 이제 찬바람에 밀려 뒷걸음질치며 하얀 겨울을 향해 손짓을 하고 있다.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라는 광고 카피가 문득 떠오른다.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내게 있어서 올 한 해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다.

'95년 어느 날엔가 고양시청 사진동우회를 만든다는 공문을 접하고, "아, 이것이구나"하면서 원서를 냈었다. 그렇게 시작한 사진과의 인연으로 생활이 조금씩 바빠지고 활기차게 되었다.

시청사진동우회는 모두가 공직에 있는 관계로 마음처럼 자주 모일 수가 없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1년에 2~3번 가는 촬영으로는 카메라의 매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는 대신 친목 도모에 만족하면서 한 해 두 해 시간은 흐르고...

'97년 5월 고양시에서 꽃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사진동우회도 바빠졌다. 사진 전시코너를 맡아 자신의 작품도 걸고 다른 동우회 사진도 관리하면서 비가 자주 내리는 기후의 악조건 속에서도 힘든 줄 몰랐다.

박람회가 끝난 후 특별휴가 3일을 받아 몇몇 회원과 날짜를 맞추어 거제도 를 거쳐서 무주 향적봉까지 다니면서 꽃도 찍고 고목도 찍고, 바다도 찍으면서 지냈다. 언제부터인가 집에서 멀리 떠나는 날이면 카메라와 함께 하고 있다. 촬영 후 현상소에서 사진이 현상을 거쳐 인화지에 색색깔로 표현되어 나오기까지의 설레임은 누구나 같을 것이다.

올 한해는 시간과 마음의 여유, 그리고 경제적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울릉도, 속초~설악산, 강릉~정동진 일출, 당진 교로리 왜목마을 일출, 김천 직지사 등등 산과 바다와 들을 누비며 다녔다.



일상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표정과 풍경들 속에서 살아있는 삶의 진솔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요즘엔 욕심을 좀더 부려서 의미없는 서터의 누름이 되지 않기 위해 약간의 공부를 시작했다.

지난 9월부터 종로 YMCA 사진학원에 등록을 하고 체계적으로 사진을 공부하고 있다. 2개월 과정으로 처음 한 달은 이론 위주로 월, 수, 금요일에 수업이 있고, 두 번째 달부터는 암실 실기로 화, 목, 토요일의 수업이지만 찍어온 필름을 릴에 감아서 현상액의 처리과정을 거쳐 인화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초보니까) 거의 매일 학원 출석부에 도장을 찍다시피 했다.

6시에 퇴근해서 7시에 학원에 도착해서 암실에만 들어서면 왜 시간은 그렇게 빨리 흐르는지 언제나 하고 싶은 만큼의 양은 되지 않았다. 어떤 친구는 휴가를 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암실에서 살기도 하면서 종이거울 속에 형상이 하나 둘 드러남에 기뻐했었다. 그렇게 2개월의 과정을 끝내고 지금은 흑백 인화의 매력을 뒤로 한 채 흔히 접하는 칼라필름을 가지고 촬영기법을 1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에 공부하고 있다.

사진을 하면서 유난히 많이 찾았던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고궁에서 전에는 미처 몰랐던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고궁이 예비신랑과 신부의 야외촬영 때문에 몸살을 앓기도 하지만 눈을 돌려보면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뛰노는 웬지 모를 호숫함에 저절로 기분이 좋아진다.

삭막한 도심에서 한 발자욱만 옮기면 나무와 새들, 그리고 온갖 꽃들과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가 머무는 곳이 이렇게 가까이에 있다는 것에 새삼 감사드리며 행복이 여기에 있구나 싶다.

손톱만큼의 마음의 여유일지라도 좋으니 김밥 한 줄, 사과 하나라도 들고서
고궁으로 소풍을 가면 어떨까?

담배연기 자욱한 카페나 당구장에서 어두움에 물들어 있느니보다, 취해서
흔들리는 초점없는 사람들의 눈동자를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 발자욱만 눈
을 돌려서 기차표 한 장 끊어서 미지의 세계로 떠나봄이 어떨는지!

아마도 돌아오는 길엔 약간은 지치고 육신이 고달프더라도 가슴 속에 담아
온 맑은 공기는 그동안 쌓여온 영혼의 먼지를 말끔하게 씻어줄 것이며 건강
해진 모습의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여!

시간을 핑계삼지 말고 한 발자욱만 옮겨보자. 누구에게나 주어진 24시간을
25시간으로 늘려보자. 내 생의 주인공답게 열심히 살아야 하지 않을까?

(경기도 고양시의회)

한글 바로 쓰기

본관에서는 회의록 작성 실무를 하면서 혼동하기 쉬운 한글 맞춤법·띄어쓰기·표준어·외래어 표기 등에 대하여 사용 빈도수가 높은 것을 중심으로 하여 문답식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국립국어연구원에서 1996년 발간한 <가나다 전화 자료집>에서 발췌·인용한 것입니다.

- 편집자 주 -

'그러므로'와 '그럼으로'의 표기

문 : '그러므로'와 '그럼으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답 : '그러므로'와 '그럼으로'는 표기로만 구별이 될 뿐 억지로 끊어서 발음하지 않는 한 발음으로는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표기에서도 자주 혼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므로'는 '그렇다' 또는 '그러다(←그렇게 하다)'의 어간에 까닭을 나타내는 어미 '-므로'가 결합한 형태이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 하기 때문에'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다음의 ①과 같은 예에서는 '그러므로'로 적어야 합니다.

① 가. 그는 부지런하다. 그러므로 잘 산다(그러니까).

나. 그는 훌륭한 학자다. 그러므로 존경을 받는다(그렇기 때문에).

다. 규정이 그러므로, 이를 어길수 없다(그러하기 때문에).

라. 그가 스스로 그러므로 만류하기가 어렵다(그리 하기 때문에).

반면에 '그림으로'는 '그리다'의 명사형 '그림'에 조사 '-으로'가 결합한 형태이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써'라는 수단의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그림으로' 다음에는 '그러므로'와는 달리 '-써'가 결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②와 같은 예에서는 '그림으로(써)'로 적어야 합니다.

② 그는 열심히 일한다. 그림으로(써) 삶의 보람을 느낀다(그렇게 하는 것으로써).

한편 ① 가), ① 나)는 ②에서 두 문장이 하나로 합쳐질 때에도 '그림으로, 그림으로(써)'에 평행되게 '~므로, ~(으)므로(써)'의 형태를 취한다는 점에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①' 가. 그는 부지런하므로 잘 산다. 나. 그는 훌륭한 학자이므로 존경을 받는다.

②' 그는 열심히 일함으로(써) 삶의 보람을 느낀다.

결국 '그러므로써, 그림으로서' 등과 같은 표기는 어느 경우에도 맞춤법에 어긋나는 표기들이 되고 맙니다.

'률'과 '율'의 표기

문 : 한자의 원래 음가가 '률(率)'과 '렬(列)'인 글자들은 어느 때는 각각 '률, 렬'로 적고, 어느 때는 '율, 열'로 적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 국어에서 두음 법칙은 어두에서만 적용되고 제2음절 이하에 올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률'과 '렬'은 이러한 두음 법칙에 예외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 한자가 어두에 쓰일 때는 물론 두음 법칙에 적용을 받지만 제2음절 이하에 쓰일 때, 특히 모음이나 'ㄴ'받침 다음에 오는 '률, 렬'은 그 'ㄴ'이 줄어지는 것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① 가, 법률(法律), 능률(能率), 출석률(出席率)

나, 운율(韻律), 비율(比率), 전율(戰慄)

② 가, 행렬(行列), 결렬(決裂), 맹렬(猛烈), 졸렬(拙劣)

나. 치열(齒列), 분열(分裂), 치열(熾熱), 우열(優劣), 진열(陳列)

즉 ①이나 ②의 '가'는 '률'이나 '렬'로, '나'는 '율'이나 '열'로 표기합니다.

이는 모음이나 'ㄴ' 받침 다음의 '렬', '률'이 '열' '율'로 각기 발음된다는 사실을 표준어로 인정하기 때문에 표기에도 그것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릉(릉)', '랍(납)', '퇴(뇌)' 등의 표기에 관해 말씀 드리면. 이들은 두음 법칙에 충실해서 어두에서는 'ㄴ'이 되고, 제2음절 이하에서는 본음('ㄹ')대로 적게 됩니다. 특히 '능(능)'의 경우는 그 독립성이 강하게 인식되어 제2음절 이하에서도 '능'으로 표기하려는 사람이 많으나 표기의 혼란을 우려하여 제2음절 이하에서는 '릉'으로 통일해서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각건대 \ 생각컨대'의 맞는 표기

문 : '생각하건대'의 준말은 '생각건대'와 '생각컨대' 중 어느 것이 맞는 표기입니까 ?

답 : '생각건대'가 맞는 표기입니다. 우리말에서는 상당수의 동사나 형용사가 '-하다'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언들이 준말로 쓰일 때는 어간의 끝 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결합하여 거센소리가 됩니다.

간편하게→ 간편케, 학습하도록→ 학습토록

다정하다→ 다정타, 혼하다→ 혼타

그런데 예외적으로, '생각건대' 등에서는 어간의 끝 음절인 '하'가 아주
준 형태를 인정해 어간 '하'가 줄어진 형태로 씁니다.

거북하지→ 거북지

생각하건대→ 생각건대

생각하지→ 생각지

생각하다못해→ 생각다못해

깨끗하지 않다→ 깨끗지 않다

넉넉하지 않다→ 넉넉지 않다

못하지 않다→ 못지 않다

익숙하지 않다→ 익숙지 않다……

이렇게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단어들은 모두 어간 말음이 'ㄱ, ㄷ, ㅅ'
등 무성 파열음일 경우이므로 구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어쨌든 \어쨌든'의 맞는 표기

문 '어쨌든'과 '어쨌든' 중 어느 것이 옳은 표기입니까?

답 : '어쨌든'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는 '어찌했든' 등의 'ㅎ'이 줄어들

어 '어째, 어쨌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쨌든'의 경우 발음은 [어쨌든]이지만 온전한 말이 줄어들 적에는 그 원말의 형태를 밝혀 적는 것을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이나 '어쨌든'이 아니라 '어쨌든'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것에는 '그랬든(그리했든)', '이랬든(이러했든)' 등이 있습니다.

'-이어요 \ -이여요'와 '-이에요 \ -이예요'의 맞는 표기

문 : '뿔이어요 \ 뿔이에요 \ 뿔이여요 \ 뿔이예요', '뿔에요 \ 뿔에요' 가운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답 : '이' 어미를 적는 규정은 앞의 명사가 모음으로 끝난 것인가 자음으로 끝난 것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앞의 명사가 자음으로 끝난 경우에는 '-이어요'와 '-이에요'로 적습니다(복수 표준어). 따라서 표기로는 '책이어요' 또는 '책이에요'가 옳습니다. '책이여요'와 '책이예요'는 각각 '-이어요'와 '-이에요'에서 '-이'의 'ㅣ' 모음이 뒤따라 오는 '어'와 '에'에 각각 영향을 준 것인데 이러한 현상은 'ㅣ' 모음 순행 동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글 맞춤법에서는 이 'ㅣ' 모음 순행 동화 현상은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책이여요'와 '책이예요'는 틀린 표기입니다.

앞의 명사가 모음으로 끝날 때에는 '-에요'로 적어야 합니다 '저'를 예로 들면 '저에요'가 옳은 표기입니다. '저이에요'에서 '이'와 '에'가 합쳐져서 '예'가 된 것입니다. 이 경우에 주의할 것은, '저에요'란 형태는 'ㅣ' 모음 순행 동화가 표기에 반영된 것이 아니라 '이'와 '에'가 합쳐진 것이라는 점입니다.

요약하면, 자음으로 끝나는 말 다음에는 '-이어요', '-이에요'가 옳고, 모음으로 끝나는 말 다음에는 '-이예요'가 준 말 '-에요'가 옳습니다. 이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논리를 적용하면 '뿔' 이나 '뿔'와 결합할 때 어느 형태가 옳은 것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뿔'은 '무엇'의 준말로 자음으로 끝나는 말이므로 '뿔이어요' 또는 '뿔이에요'가 옳은 표기입니다. '뿔이어요'나 '뿔이에요'는 옳지 않습니다. '뿔'은 '무어'('무엇'의 준말)의 준말로 모음으로 끝나는 말이므로 '뿔어요'가 옳은 표기입니다. '뿔어요'는 틀린 표기입니다.

가운뎃점(·)의 용법

문 : 문장 부호 가운데서 가운뎃점은 어떤 경우에 쓰는지 그 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 : 가운뎃점은 열거된 여러 단위가 대등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사용됩니다. 다시 세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쉽표로 열거된 어구가 다시 여러 단위로 나누어질 때 씁니다. 아래 예문에서 가운뎃점 앞의 둘과 뒤의 둘이 서로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내게 됩니다.

예) 정희·승경이, 영화·귀연이가 서로 한 편이 되어 공놀이를 했다.

②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낱을 나타내는 숫자에 씁니다.

예)3·1운동

③ 같은 계열의 단어 사이에 씁니다. 역시 두 단어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충북·충남을 합하여 충청도라고 한다.

'연도\년도'의 맞는 표기

문 : '設立年度, 一次年度' 등을 두음 법칙에 맞게 적으려면, '년도'로 적어야 옳은지, '연도'로 적어야 옳은지 알려 주십시오.

답 :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여, 요, 유, 이'로 적고, 단어의 첫머리가 아닐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도록 한 것이 한글 맞춤법 제10항 두음법칙 규정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10항에는 단어의 첫머리가 아닌 경우에도 두음 법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붙임>규정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즉, '新女性, 空念佛, 男尊女卑'와 같이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는 뒷말의 첫소리가 'ㄴ'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신여성, 공염불, 남존여비'로 적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에 따르면 '設立年度, 一次年度'는 각각 '설립+연도, 일차+연도'의 구조로 분석되는 합성어이기 때문에 '설립연도, 일차연도'로 적어야 옳습니다. 다만 한글 맞춤법 해설에서 예외를 인정한 것처럼 같은 '연도'라하더라도 '신년+도, 구년+도'와 같이 분석되는 합성어에 있어서는 '신년도, 구년도'로 적어야 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하프로'와 함으로(씨)'의 표기

문 : "동호인 회장에게 일괄 배부하여 관리케 0000 사용과 보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에서 빈칸에 '하프로, 함으로(씨)' 중에 어느 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답 : '하프로'는 동사 어간 '하-'에 까닭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프로'가 붙은 형태이며, '함으로'는 '하다'의 명사형 '함'에 조사 '-으로(씨)'가 붙은 형태입니다. 또한 '하프로'는 '하기 때문에'란 뜻을 나타내고, 함으로'는 '하는 것으로(씨)'란 뜻을 나타냅니다.(한글 맞춤법 제57항 참조).

다음과 같은 예에서도 이러한 기능의 차이가 잘 드러납니다.

① -하프로

그는 부지런하므로 잘 산다.

그는 훌륭한 학자이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② -함으로(씨)

그는 열심히 공부함으로(씨)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한다.

그는 열심히 일함으로(씨) 삶의 보람을 느낀다.

이를 근거로 위의 빈칸에는 '함으로(씨)'가 들어가는 것이 옳습니다.

'등(等)' 의 띄어쓰기

문 : 명사를 여러 개 나열해 놓고 그 다음에 쓰는 '등'의 띄어쓰기에 대해 여쭙 보려고 합니다.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까,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까?

답 : 이에 대해서는 한글 맞춤법 제45항에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 쓴다고 규정하면서 '등, 등등, 등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과, 밤, 배 등입니다'로 띄어 써야 합니다.

'및' 의 띄어쓰기

문 : '및'은 '와'나 '과'처럼 두 명사를 이어주고 있으니까 앞 명사에 붙여 써야할 것 같은데 띄어 쓰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쓰는 것이 옳습니까?

답 : '및'은 '겸', '내지' 등과 같이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해 주는

말입니다.

한글 맞춤법 제45항은 이런 말들을 '국장 겸 과장', 열 내지 스물'로 띄어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숙식비 및 준비금'에서처럼 띄어 써야 합니다.

'한번'의 띄어쓰기

문 : '한번(一番)'의 띄어쓰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 '번(番)'이 차례나 일의 횟수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쓰인 경우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등과 같이 띄어서 써야 합니다.

그러나 '한번'이 "한번 해 보다, 한번 옆지른 물은 다시 주워 담지 못한다, 한번 쥐면 펴 줄 모른다" 등에서와 같이 '한 번'과는 다른 의미로 의미상 한 단위로 쓰일 때는 하나의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합니다. "한번 해 보다"도 '일단 시도해 본다'는 의미로 쓰이지 않고, "두 번 해 본다"와 같이 '두 번, 세 번...' 등으로 바꾸어서 뜻이 통하는 경우에는 띄어 써야 합니다.

'하고서부터'의 띄어쓰기

문 : '하고서부터'를 써 놓고 보니 붙여 써도 이상하고 띄어 써도 이상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써야 하나요?

답 : 한글 맞춤법에서 조사를 그 앞 말에 붙여 쓰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터'가 조사라는 사실만 알게 되면 '하고서부터'는 붙여 써야 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고서'가 명사가 아니어서 '부터'의 품사가 의심스러워 보

일지 모릅니다. 국어에는 보조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 명사는 물론이고 명사가 아닌 부사나 부사구에 붙기도 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픽도 많다", "떠들어만 봐라"에서의 '은, 도, 만'이 바로 보조사인 것입니다. '부터'도 바로 그런 성격을 가진 보조사입니다. 따라서 '하고서부터'는 붙여 써야 합니다.

'한바'의 띄어쓰기

문 : "공부를 열심히 한바 합격할 수 있었다"에서 '한바/한 바'의 띄어쓰기는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답 : 띄어쓰기는 독서의 효율을 위해 하는 것이지만 까다로운 데가 있어 혼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현행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 제1항 총칙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음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규정과 제5장 '띄어쓰기' 항목에 근거하여 띄어 쓸 수 있습니다.

① 붙여 쓸 경우

가. 금강산에 가 본바 과연 절경이더군('왔(였,였)더니'의 뜻).

나. 어머니의 생신이온바,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데'의 뜻).

② 띄어 쓸 경우

가. 생각하는 바가 같다(방법, 일의 뜻).

이러한 구별은 하나의 말이 독자적인 단어의 자격을 갖는지의 여부로 결정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한바/한 바'는 '~였더니'의

뜻이므로 붙여 쓴 '한바'가 맞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구별이 가능한 것으로 '~니지', '~는데'가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보이겠습니다.

③ 누구인지 아니? (막연한 의문), 떠난 지 닷새가 되었다(어떤 동작으로부터 지금까지 동안).

④ 키는 큰데, 힘이 없다('이다 그런데' 의 뜻).

아픈 데 먹는 약이다('처소'의 뜻)

-대와 '-데'의 차이

문 : '병식이가 집에 OO'라고 할 때 '간데'라고 해야 하는지, '간대'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덧붙여 '-데'와 '-대'의 차이점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 : -데'와 '-대'는 잘 구별하여 써야 할 종결 어미들입니다. '-데'는 '하게' 할 자리에 쓰이어 경험한 지난 일을 돌이켜 말할 때 쓰는, 곧 회상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데'에서 '더'라는 형태소가 분석되는데 이 형태소는 옛부터 회상을 나타내는 문법 요소(선어말 어미)였고, 그 기능이 그대로 '-데'에 반영된 것입니다. '-데'가 회상을 나타낸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예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① 가. 그가 그런 말을 하데.

나. 경치가 과연 좋데.

다. 신부가 예쁘데 ?

① 가)는 "그가 그런 말을 하더라"라는 의미이고, ① 나)는 "경치가 과연 좋더라"라는 의미로 각각 화자가 자신이 직접 체험한 사실을 회상하여 청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① 다)에서처럼 '-데'는 의문문에 쓰이기

도 합니다 "신부가 예쁘데?"하면 결혼식에 가서 신부를 직접 본 사람에게 신부가 예쁘더냐고 물어 보는 말이 됩니다. 경어법 등급상의 약간의 차이를 제외하면 '-던가'와 같은 뜻입니다.

다만, '-던가'는 표준어인데 반해 '-데'도 표준어로 인정할 것인지는 아직 남아 있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오늘 날씨 참 시원한데", "두 사람이 아주 잘 어울리는데", "기분 좋은데" 등에서 보듯 '-는데, -는데, -은데, -던데' 등의 종결 어미들도 있습니다.

이 어미들에도 '데'가 보이긴 하지만 스스로 감탄하는 뜻을 나타내며 보통 다른 사람의 의견이 어떠한지 묻는 의도를 내포하기도 하는 것으로 '-데'와는 뜻이 다릅니다.

한편, '-대'는 '다(고) 해'의 준말입니다. '다(고)'에서 '고'가 탈락하고 남은 '다'에 '해'에서 'ㅎ'이 탈락한 'ㅐ'가 합쳐진 말입니다. 다음의 예들에서 보듯이 '-대'는 형용사 및 동사의 어간 다음과 동사 및 지정사의 시제 형태소 'ㄴ, 는, 었, 겠' 등에 연결되어 '-대, -ㄴ대, -는대, -엿대, -겠대' 등의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② 가. 그 여자 예쁘대(예쁘다고 해).

나. 그 사람 오늘 떠난대(떠난다고 해).

다. 그 여자는 책만 읽는대(읽는다고 해)

라. 그 사람은 학생이 아니엿대(아니었다고 해).

마. 집에 있겠대(있겠다고 해).

바. 범인을 보았대(보았다고 해).

위 예들은 모두 괄호 속에 보이듯이 '00대'가 '00다고 해'의 뜻을 갖는

것들입니다. 곧 '-대'는 화자가 문장 속의 주어를 포함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청자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너 오래" 등과 같이 명령형이나 계사 뒤에서 쓰이는 '-래'는 '-라고 해'에서 줄어진 말로 '-대'와 같은 뜻을 가진 또 다른 형태소입니다.

'-데'와 '-대'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은 예로 요약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③ 가. 그 영화 참 재미있데.

나. 그 영화 참 재미있대.

③ 가)는 화자가 직접 그 영화를 보고 "그 영화 참 재미있더라"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고, ③ 나)는 화자가 그 영화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대로 "그 영화 참 재미있다고 하더라"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병식이가 집에 간다고 해"의 의미이므로 '-대'를 써서 '간대' 라고 해야 합니다.

회 원 동 정

◆승진·축하합니다.

- 엄덕훈 : (속기1과) 사무관 -> 서기관(97. 8. 5)

◆사임·수고하셨습니다.

- 하영배 : 협회자격심사위원장(97. 9. 29)

◆임명·수고하십시오

- 한기수 : 총무부장(97.9.1)
- 김영중 : 재정부장(97.9.1)
- 김덕진 : 사업부장(97.9.1)
- 안기철 : 회원부장(97.9.1)
- 장미경 : 홍보부장 (97.9.1)
- 손숙자 : 연구위원간사(97.9.1)
- 손재옥 : 자격심사위원장(97.9.29)
- 채강희 : 안동선의원(국민회의) 보좌관(97.10.1)

◆퇴직·수고하셨습니다

- 신세화 :국회사무처 정년퇴직(97.12.31)
- 전해성 : 국회사무처 정년퇴직(97.12.31)

◆전직· 수고하셨습니다 -> 반갑습니다

- 이범준 : 국회사무처 속기과 ->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97.9.9)

◆개업·발전을 기원합니다

- 박광태고문 : 안산기 '시화기름나라'(97.10.28)
- 이정구 : 고양기 일산동 '감초고을 한민박사'(건강원)(97.12.12)

◆출강·수고하셨습니다.

- 홍순관(속기2과장)
- 김창진(속기사무관)
- 이주성(속기사무관)
- 손재옥(속기사무관)
- 지방의회 속기사 대상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에서 5일간 교육(97.8.25~29)
- 지방의회속기사 대상 국회의정연수원에서 3일간 교육(97.10.21~23)
- 지방의회 전문위원(97.10.30) 및 간부직원 교육(97.11.3)

◆교육·수고하셨습니다.

- 최윤정(崔允禎) : (국회사무처 속기과) 미하원 김창준의원 사무실 연수 (97.11.10~12.10)
- 최윤정(崔倫禎) : (국회사무처 속기과) 정부전산정보관리소 제8기 Internet 과정 입교(97.12.8~13)

◆수상·축하합니다.

- 간찬기 : (국회사무과 속기1과) 국회도서관 주최 '인터넷 정보 검색 경진대회' 노력상

◆협회동정

- 지대섭회장 : 제185회 정기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많은 활약,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에 임명(97.12.25)
- 제 185회 정기국회 국정감사실시 (97.10.1~18)
- 총일외무위 수행 속기사(구주반) 양진숙(동남야반) 이준태, (미주반) 조신자

- 국회 속기록 자료 손쉽게 검색(97.11.1~)

국회도서관은 12월2일 김수환 국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48년 제헌 국회 이후 본회의·사강임위 등 각종 국회 회의록(총821권, 85만쪽)을 전산화한 회의록 전문지원시스템 개통식을 함, 이 데이터베이스는 국회통합 정보망을 통해 제공됨. 제헌국회부터 제14대 제171회 임시국회(1994년)까지는 이미지 파일로, 이후의 회의록은 문서 파일로 저장되어 있음.

- 지방의회대구세미나 개최(97.11.5)

- 제46차 속기 무료 강습(12.15~12.27)

협회는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속기법식을 무료로 강습.

-> 강습 장소는 안정근 CAS속기학원

경영소프트 - 빠른손워드
동방 CAS속기학원.

편집 후기

편집회의 장면▶



햇병아리 <속기계>기자로서 편집후기를 쓰던 때가 엇그데 같은데 25년만에 돌아와 편집책임자로서 다시 편집후기를 쓰게 될 줄이야!

33호 이후 근 2년만에 34호가 빛을 보게 된 점, 전임자를 대신하여 추립자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만이 중단없는 <속기계>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仙

속기계를 받아 들 때마다 전에는 '無賃乘車'한다는 생각에 괜히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었다. 비록 작은 책이지만 그 동안의 미안한 마음과 정성이 함께 들어있다고 생각하니 결코 작지만은 않은 것 같다. 내년에도 올해처럼만 사랑하고 도와주시길....-美

언제나 철없게만 보이는 막내딸을 시집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닐는지, 늘 아쉽고 미진함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지만 또 겁없이 다음호를 준비하는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의미하기 때문이이라.....- 賢

원고 하나를 가지고 며칠을 끙끙댔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하나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옆에 훌륭한 선배님들이 계시기 때문. 조금씩 배우면서 만들어가는 ,<속기계>, 모두들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길....-時

편지조차 써본 지 오래인 나에게 홍보부 기자는

집채만큼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벌써 1년이 지나 후기를 쓰라니 한것도 없이 보낸1년에 기자라는 말리 부끄러울 뿐이갸. 좀 더 나은 내년을 기약하며..... -淑